

삼척문화교육과정

자 료 집

다시승유
제왕유기

우리가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 중 학교 용 -

2023년 08월

[주관]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후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우리가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 중학교용 -

저자 : 김 도 현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I. 공통 교육 내용

1. 삼척의 뿌리 : 태백산과 신령들, 그리고 발길·물길
2. 삼척의 역사 바로 알기
3. 동안 이승휴 선생과 『제왕운기』

II.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1. 천은사와 금동약사여래입상·목조아미타삼존불상
2. 도계 흥전리사지와 3층석탑재
3. 이승휴 선생 유적과 동안사
4. 삼척 읍치성황사와 오금잠제
5. 공양왕릉에 대한 새로운 이해
6. 원덕읍 이천 황장 금표
7. 임원산 봉수와 남화산 수로부인공원
8.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소재 철비
(부사이규헌 영세불망비 및 금옥침원비)
9. 삼척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
10. 삼척의 민화와 민화작가 이규항·황승규
11. 삼척 산양서원과 산양서원묘정비·소공대비

Ⅲ. 삼척지역의 민속과 전통지식

1. 삼척시 도계읍 점리 천제(天祭)
2. 도계리 긴잎느티나무와 도계 영등제
3. 삼척 궁촌리 음나무와 단오굿
4. 삼척지역 전통 가옥에서 '코클'
5. 삼척지역 '은어잡이' 전통 지식
6. 근덕 덕봉산 명상길, 덕봉산 내 기우제와 정월대보름 용왕제

Ⅳ. 삼척지역의 자연 유산

1. 대금굴
2. 추암 촛대바위와 해암정
3. 이천폭포와 기우제

[참고문헌]

I. 공통 교육 내용

1. 삼척의 뿌리

: 태백산과 신령들, 그리고 발길·물길

1) 태백산에서 모시는 신령들, 산신·천왕·천신

(1) 태백산

하늘에 대한 제사는 고조선 이래 삼국과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제천祭天’ 또는 ‘천제天祭’로 불리는 하늘제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늘에 대한 제사이자 최고신으로서의 천신天神을 포함하는 제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늘제사를 지낸 여러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이 태백산이다. 태백산은 우리나라 지맥의 중심이면서,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이다. 신라 이래 고려에 이르는 시기의 태백산은 국가 제사를 꾸준히 지내던 신성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백산은 국가제사에서 제외되었다. 태백산이 국가제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태백산이 갖는 영험성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배경이 되었다.

태백산은 산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봉우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을 말한다. 그리하여 동쪽으로는 우보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북쪽으로는 금대봉,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이른다. 이처럼 태백산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권역으로 인식되었다.

(2) 태백산 신사(神祠)의 다양한 명칭들

산신·천왕·천신이 머무르는 태백산에 도착하면 그 입구부터 영험한 분위기가 풍긴다. 태백산 초입의 골짜기를 ‘당골’이라 부른다. 이곳에 서낭

당이 있는데, 산에 오르기 전에 몸과 마음의 부정을 풀기 위해 부정풀이를 행한다고 하여 '부정당'이라 불렀다. 당골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무당 혹은 민간인의 신앙처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골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장승거리, 반재, 망경사 입구의 서낭당, 태백산 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망경사와 용정, 단종비각이 위치해 있다. 단종비각을 마지막으로 하여 산의 주봉(1,560m)에 이르면 태백산 천제가 베풀어 지는 성역에 이르게 된다. 중앙에 천제단을 두고, 그 아래에 장방형으로 쌓은 장군단과 방형으로 쌓은 후 3방향에 계단을 만든 하단이 제단 형태로 건립되어 있다. 높은 하늘 아래의 구름이 제단 주변을 휘감아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태백산은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신앙처답게 이곳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여,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신사神祠·태백산사太白山祠·천왕당天王堂·태백신사太白神祠·태백사太白祠·천왕사天王祠·태백당太白堂·구령탑·마고탑 등으로 불렸다. 이와 같은 명칭을 통해 태백산 천제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산 정상에 위치한 천왕당은 이곳이 천신을 제사 지내는 곳임을 의미한다. 이 천신은 구령탑의 명칭에서처럼 동양천문사상의 하늘 개념인 구천九天的 주인이다. 태백천왕당, 태백사 등의 명칭은 이 천신이 태백산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천신이기 이를 '마고'라고 간주한다. 마고탑이라는 명칭은 태초太初에 천지를 이룩한 거인 할머니 마고가 쌓은 탑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태백산의 천제단은 하늘신인 천신의 거처로 각인되어 있다.

천왕당에 모신 신령인 천왕天王은 사전적 의미로는 '불교에서 육계나 색계 따위의 온갖 하늘의 임금, 역사적으로 상고上古시대에 수호신'을 이르던 말로 '환웅' 혹은 '해모수'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이해되어 왔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천왕지신天王地神'이라 쓰인 것은 도교적 성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천신이 아니라 천왕이라 표현한 것은 다양한 종교의 영향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태백산에 위치한 천신의 거처가 현재는 돌탑의 형태로 남아 있지만 다양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는 제당의 형태였다. 1736년에 쓴 이인

상李麟祥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당집에 석불石佛과 함께 천왕이라 불리는 나무상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1953년 사진 자료에는 비록 제단의 돌이 흐트러져 있지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추형을 띠고 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현재와 같이 돌탑의 형태로 변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단의 형태에서 돌탑의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 같다. 현재 태백산에 위치한 망경사 터에 고려시대 석불과 대좌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태백산사가 아닐까 한다.

천제가 베풀어지는 천제단 이외에 장군단將軍壇과 하단이 있다. 장군단이라 부르지만 그 신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하단 또한 부소단夫蘇壇 또는 구을단丘乙壇이라 부르지만 그 신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천신을 위한 하위의 제신諸神들이 아닐까 한다.

(3) 태백산에서의 제의 전통

① 국가제사로 행해진 태백산제

태백산에 대한 제사는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꾸준히 이어져 왔다. 통일신라에서는 중사中祀에 국토를 수호하는 오악五嶽을 두었는데, 태백산이 북악北岳에 해당된다. 고려에서는 국가차원의 사전에 태백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방경의 아들 김순이 태백산제를 위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로 파견되었음을 통해 볼 때 국가 차원의 제사가 이어졌다고 하겠다. 성종 이후 유교이념의 도입에 따라 유교제례로 산제가 제도화됨에 따라 외산제고사를 파견하여 봄과 가을에 산제를 지내기도 했다. 비록 외산제고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태백산제가 간헐적으로나마 지속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태백산제가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태백산으로 향하는 상설역인 도심역道深驛을 활용했다. 태백산제를 폐한 후 도심역을 옮겼다. 태백산제를 모시러 가는 관리를 위해 상설역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태백산이 고려시대에 중요한 국가 제장이었음을 반증한다.

조선시대에 태백산에서 국가 차원의 제사가 베풀어지지 않았다. 세조대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東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에 영험이 있는 곳만을 사전으로 편제하는 원칙에서 볼 때, 태백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험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태백산은 이미 민간 차원에서 종교의 산실로 간주되어 다양한 종교 의례가 베풀어지고 있었다.

② 민간신앙의 중심지, 태백신사(太白神祠)

태백산이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세종실록』(8년 4월 12일 기사), 『성종실록』(24년 5월 21일 기사), 성현의 『허백당집』(신당퇴우설), 『신증동국여지승람』(강원도 삼척도호부 사묘), 허목許穆의 『미수기언眉叟記言』(퇴우조), 허목의 『척주지陟州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록에서 확인되는 공통점은 지방 관청이 태백산 신사를 관리한 사실이다. 제사를 지낸 후 두고 간 베[布]나 소[牛] 등을 관리가 거두어 사용했다. 관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사사로이 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백신사의 관리는 삼척도호부 소관이였다. 이곳에서의 종교 행위는 주로 무속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무당이 관리와 함께 제물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무당이 태백신사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백신사의 수직무守直巫라 하겠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관리자로서만이 아니라 의례의 주체로도 등장했다.

태백산권역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태백산은 인근의 삼척도호부를 수호하는 곳이기도 했다. 성현의 『허백당집』 신당퇴우설, 허목의 『미수기언』 지괴조誌怪條 등에 삼척도호부의 향리 집단 등이 4월에 백두옹(白頭翁, 태백의 신령)을 읍에 모시고 와서 성대히 맞이한 후 읍리邑吏의 집에 모셨다가 5월 5일 다시 태백산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오에 열린 오금잠제와 함께 이 지방에서 행한 향리 주도의 고을신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백산에서 행해진 신앙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인이었다. 허목의 『미수기언』에 “백성들이 태백산에서의 제사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에서 태백신사太白神祠를 헐고 태백산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백성들이 태백산 제사에 지나치게 몰두하자 태백신사를 폐지했던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음사淫祀로 치부되었기에 음사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태백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신앙의 영험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간의 신앙행위는 산 곁의 삼척도호부를 중심으로 경상도 사람들까지 이어졌다. 관련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했는데, 이때 신좌(神座) 옆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만약에 돌아볼 것 같으면 불공한 것을 신이 알고 죄를 준다. 사흘이 지난 후에 부에서 이 소를 거두어서 이용한다. 이를 퇴우(退牛)라 한다.”

이러한 형태로 거행된 태백신사에서의 치제致祭는 모두 제액除厄과 초복招福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제물로 바치는 소를 아까워하면 귀신이 흠향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바치고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믿음의 증표로 신령에게 바친 헌물이므로 아까워하기보다는 정성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관행과 관련해서 소가 넘쳐나자 관부에서 감고로 하여금 이 소를 거두어들이게 했다. 그것이 퇴우이다.

결국 소의 헌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태백산에 대한 믿음이 쇠퇴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허목의 『미수기언』에는 “사람들이 소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자 지금의 산승山僧 충학沖學이 그 신사를 불질러 요망한 신사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헌우獻牛의 일도 없다. 감고도 또한 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소에 대한 염증은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신앙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 산승이 이를 없애 헌우의 풍속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의 제사가 천신에 대한 제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소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민간의 신앙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기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태백산이 지닌 영험함 속에서 천신의 거처로 다시 부활하였다.

③ 구국의 신앙처, 태백산과 천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한 경상좌도 의병장 유종개가 태백산에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사후死後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면서 태백산은 민족의 종산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특히 신종교가 일어나면서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냈다.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제천祭天을 중심으로 발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은 지속되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李弼濟는 1871년에 영해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 했다. 관에 쫓겨 다니면서도 태백산간에서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태백산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 주셨네.”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신흥종교 중에서는 1937년의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에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을 중심으로 탑을 쌓았다.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는데, 이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활동은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속에서 구국救國의 성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구국을 위한 의례적 행위이므로 천제天祭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④ 민간으로 확산된 태백산 치성들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에서 민간 치성을 드리던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태백산에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만들고 마을 단위로 천제를 지냈다. 태백산 인근의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신이 마을의 신령으로 좌정했다는 당신화가 만들어졌으며, 천손족의 첫 후손인 단군을 천신으로 여겨 단군에 대한 치제를 행하기도 한다.

태백산의 신령은 마을에서 모실 때 마을 내의 다른 신령과는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 마을의 주신으로 서낭신을 모시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 밖의 일 중 하늘과 관련한 일은 천신에게 의뢰한다. 천신께 드리는 정성을 모아 기우제를 천제당에서 거행한다. 기후의 조절자인 천신에게 가장 큰 바람으로 비를 청하는 것이다. 마을 단위의 천제는 이처럼 천신의 능력 중 특화된 직능이 부각된다.

(4) 태백산에서 모신 신령 神靈

각종 기록을 통해 태백산에서 모신 주요 신령은 태백산 산신, 천왕과 함께 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산령(神靈)들을 중심으로 태백산에서의 제의(祭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신(山神)

태백산은 동·서·남해로 흐르는 오십천·한강·낙동강이 발원하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배움을 제공하기에 신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영험함을 바탕으로 태백산신은 태백산 전체를 관장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매우 크고 높은 신성성을 지닌 신령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태백산이라는 큰 범주에서 태백산신을 위한 제의를 행한 것은 고려시대까지 이며, 이후에는 태백산 권역 내의 고갯마루·마을·개인 산당 등에서 태백산신을 상당신으로 위하였다. 이와 함께 18세기 이후에는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여겨 영월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길에 연해 있는 마을 제당에서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모시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말~일제강점기에 태백산신은 태백산에서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길과 밭길에 연해있는 제당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셔졌다. 고갯마루 산령당에서 태백산신을 모신 사례는 태백산 사길령을 비롯하여 느릅재, 피재, 봉화의 넋재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고갯마루에 위치한 산령당에서의 제의를 주관하고, 제당 중수에 참여한 집단은 주로 각각의 고갯마루를 오간 보부상들이었으며, 보부상이 혁파된 이후에는 이들의 재산을 관리한 집단 또는 선질꾼 등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태백산신을 상당신으로 모신 사례는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 주변 마을들, 영월군 상동면 꼴뚜바우 서낭당, 태백시 서학골 사례 등이다.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 조성된 개인 산당에서 다양한 신령을 모시는데, 이중 태백산신을 모신 산신당을 가장 중요한 제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무속인들의 개인 신당에서도 태백산신을 주신으로 모신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 이곳에서 산기도, 산치성 등 태백산의 정기를 받으려는 많은 정성들이 있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매년 4월 15일(음력) 사길령 산령각, 4월 16일(음력) 느릅재 산령각, 4월 8일(음력) 봉화군 석포면 넋재 산령각, 영월에서 태백 어평 마을을 연결하는 당목재에서 음력 8월 중에 지내는 산령당 등에서 이곳을 지나던 보부상과 그 후손들, 마을 주민들이 행로의 안전과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행한 산신제이다.

이 시기에 태백산 내 개인 기도처나 산당 등에서 행해졌던 개인 차원의 산기도·산치성, 그리고 마을 또는 별도의 공동체 단위로 산신각 또는 산령각에서 지냈던 산신제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② 천왕(天王)

조선시대에는 태백산에 설치된 제당을 ‘태백천왕당, 천왕당, 천왕사(太伯天王堂, 天王堂, 天王祠)’ 라고 하였는데,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태백산사(太白山祠)는 천왕당(天王堂)이고, 태백사(太白山祠)는 천왕사(天王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당 명칭을 통해 태백산에서 ‘천왕(天王)’ 이라 불리우는 신령을 모신 제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백산 천왕당에서 모신 천왕의 성격과 관련하여 천왕을 천신(天神)으로 볼 것인지 산신(山神)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부터 단종이 돌아가신 후 태백산신(太白山神)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 및 영월 지역 주민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으나, 단종대왕을 천왕으로 여기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태백산신과 천왕을 별개로 여겨야 함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등 태백산 자락에 있는 산령각에서 태백산신을 모실 때 ‘천왕’ 이라 표현한 사례가 없으며, 1735년부터 1737년 사이에 기록된 이인상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천왕과 관련한 다음 기록이 전한다.

… 천왕당에 도착했다. 통금시간까지 도착하기로 약정했는데 드디어 60리 길을 걸어온 것이다. 천왕당 서쪽당에는 석불(石佛)이 있고 동쪽당에는 나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천왕이라고 한다. …

이는 당시 태백산 천왕당[태백당]에서 모신 신령을 태백산 산신 또는 단종대왕으로 여기지 않고, 천왕으로 여긴 것은 천왕을 산신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구려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고분 벽화에 천왕과 지신을 표기한 도상이 등장한다. 천왕은 상투를 올린佳人(佳人)이 봉황을 타고 나르는 모습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의 주요 산에서도 ‘천왕’ 이 등장한다. 지리산 성모천왕을 비롯하여 구월산 삼성사에서 모신 환인천왕·환웅천왕·단군천왕, 속리산 천왕사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천왕을 천신으로 비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따른다.

천왕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리산 성모천왕, 속리산 ‘대자재천왕국(大自在天王국)’에서 하위 놀이로 남근 큰 것을 봉헌하는 사례, ‘태백 천왕당’,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지리산 성모(聖母)는 지리산 천왕이다 ‘라고 한 표현 등을 통해 천왕은 천신이나 산신과는 다른 성격의 신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리산 천왕’이라 표현한 것은 지리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한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을 한정된 것은 ‘천왕’을 ‘천신’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천신’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모시는 신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산맥이에서 산은 산에 좌정한 조상신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 산맥이를 행하기 위해 찾는 최고의 산은 태백산이고, 거리상의 문제로 못 갈 경우 인근의 근산이나 두타산·원음산 등을 찾는다. 이들 산에 역시 천왕을 모신 천왕사나 조상신을 모신 산당이 존재하였다. 이는 천왕을 영험한 산에 좌정한 시조신(始祖神; 최고의 조상신)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태백산을 중심으로 최고의 조상신으로 여겨진 천왕을 모신 제의가 폭넓게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을 중심으로 태백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태백산이나 태백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산에 좌정한 조상신을 위하는 산맥이를 행하였다는 사실, 망경사 삼성각에서 산신, 독성과 함께 단군을 모신다는 사실, 태백산 자락에 있는 마을 제당인 소룻골 함백산 성황당에서 태백산신으로 여겨지는 단종과 함께 최고의 조상신인 단군을 모신 사례, 현재 태백산 자락에 있는 단군성전 뿐만 아니라 천신이나 태백산 산신과는 별개로 단군을 모신 산당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태백산에서 천왕을 모셨던 전통이 한말~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③ 천신(天神)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은 4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태백산을 천제 지내는 성소로 여겨서 제단을 쌓아 천제를 지내거나, 천신이 강림하는 장소로 여기는 사례, 둘째,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 셋째, 태백산에 소재한 각종 산당이나 기도터에서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넷째,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시는 사례이다.

태백산을 천제지내는 성소로 여기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하늘을 중시하는 신종교인들이 모여드는 성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死後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었으며, 다양한 신종교의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냈다.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들을 통해 동학은 하늘[天]을 중시하면서 발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는 1871년에 영혜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 했다. 관에 쫓겨 다니면서도 태백산간에서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태백산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 주셨네.” 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의 성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하여 1937년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제수를 준비하여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는 한말 이전부터 행해진 전통으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태백시 솔안마을과 백산마을 사례

태백시 솔안마을과 백산마을에는 각각 천제당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솔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백산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에서 동참하며,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솔안 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천제를 지낸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전에는 솔안마을 또는 백산마을에 속한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서낭당이 있어 백산 또는 솔안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와는 별개로 서낭제를 각 하위 마을별로 지냈다고 한다.

[자료 2]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사례

삼척시 도계읍 점리는 7개 정도의 하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마을에서는 매년 서낭제를 지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 천제당에서 7개 마을 주민들 대표와 제관 등이 모여 점리 마을 전체의 안녕과 소통·화합을 위해 돼지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자료 3]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사례

매년 음력 4월 8일 대현리를 구성하는 하위 마을 대표들과 제관들이 대현리 천제단에서 대현리 전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천제를 지낸다. 물론 하위 마을 단위의 서낭당에서는 하위 마을 자체적으로 서낭제를 정초에 지낸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위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제를 지내면서 하위 마을들을 아우르는 마을 천제단에서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태백산 자락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된다.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모시는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전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천제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천제단은 여러 하위 마을을 관장하는 중심 제당으로 기능하여 매년 또는 수 년에 한번 씩 천제단에 모여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있다. 또한 천제단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천신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天祭를 지내는 예를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천신만 모시는 예,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예, 천신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 비일상적으로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는 건물 형태의 산당인 윤씨산당, 유복산당, 팔보암, 미륵암 등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산당들이 많다, 이들 산당에서는 태백산신을 비롯하여 단군, 천신, 서낭, 용신 등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의 공간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움막이나 기타 형태로 태백산에서 산기도나 산치성을 드릴 때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관련 제보는 많다. 이와 같은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태백산 내 대부분의 산당에서 천신을 별도로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한말~일제강점기에 태백산 자락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는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천신을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2) 한강·낙동강·오십천이 시작되는 곳, 태백산

집안이나, 국가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듯이, 우리 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은 연중 쉽 없이 용출하는 천연 샘이면서 하루까지 물길 이 연결되어야 하고 해당 하천의 시작점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고려와 조선시대에 쓰여진 많은 기록과 고

지도(古地圖), 그리고 현지 조사를 통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오십천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하여 한반도의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인 1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비변사인방안지도〉 강원도 삼척부 지도를 보면 3대 강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동강 발원지와 관련하여 금대봉(金臺峰) 동쪽에 둥근 타원형 형태로 연못을 그려 푸른색으로 채색한 후 황지(黃池)를 부기하였다. 또한 낙동강 발원지로서의 황지(黃池)와 함께 낙동강이 태백산(太白山)과 금대봉(金臺峰)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하여 태백산 권역인 창죽산(倉竹山)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사미창을 지나 죽령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모여져서 북쪽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그렸는데, 이는 한강의 발원지라 여겨지는 검룡소[용추(龍湫)]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해로 향하는 오십천(五十川)이 백산(白山)과 느룻령[楡峴] 자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백산(白山)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더 길게 그렸는데, 이는 오십천의 실제 발원지가 도계 구사리 백산 8~9부 능선임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표현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동해와 남해, 그리고 서해로 향하는 대표적인 강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소개한 지도이외에도 많은 역사 자료와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태백산 자락이 한국의 중심이면서,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이곳 태백산 자락은 하늘·산·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종 문헌과 금석문, 고지도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태백산 권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태고보우비〉와 고지도(古地圖)가 들려주는 한강 발원지, 태백산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하여 많은 기록에서 발원지를 여럿 지목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오대산 우통수(五臺山 于筒水)를 한강의 발원지라 한 것은 이를 처음 언급한 권근의 「오대산서대수정암중창기(五臺山西臺水精庵重創記)」(1404년)에 실린 기록을 이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서 이를 인용하여 한강 발원지로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지산 사나사 원증국사 태고보우비(彌智山 舍那寺 圓證國師 太古普愚碑)」(정도전이 1386년에 쓴 글)에 실린 다음 기록은 역사적으로 한강이 태백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양근군은 본시 익화현이었는데, 스님 어머니의 고향이다. 군(郡)의 서쪽에 큰 강이 있는 바 그 이름이 한강이다. 근원이 태백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6백리를 흘러 서해로 들어간다. …

위의 자료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강 발원지가 태백산 권역인 금대봉 북쪽 자락인 검룡소[고지도에 표기된 용추(龍湫)로 추정]임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古地圖)인 <비변사인방안지도>, <조선지도>, <청구요람>,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을 보면 태백산 권역 북쪽 산자락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사미창(四美倉)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의 발원지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861년 전후에 만들어진 <동여도>에는 태백산 북쪽 자락에 용추(龍湫)를 표기한 후 여기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사미창을 지나 하장성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에 표기된 용추(龍湫)는 한강 발원지를 표기한 것으로 현재 과학적으로 한강의 가장 긴 발원지인 금대봉 자락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중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대산 우통수 발원설이 오랜 기간 동안 한강 발원지로 알려진 이유는 정도전이 1386년에 쓴 위의 비문이 그가 쓴 『삼봉집』에 실리지 않았고, 각종 지리지에도 소개되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 여부가 잊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백산이 고려시대까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 국가 사전에서 배제되어 이전의 위상이 약해짐으로써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강의 발원지로 인정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태백산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지면서 조선의 주요 명산으로 지목되었고, 태백산 자락에서 한강이 발원하였음을 암시하는 고지도들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1916년에 쓰여진 『삼척군지』에 금대산 기슭에 있는 소천(小川)에서 한강이 발원함을 기록한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의 전체 지형도를 작성할 당시에 한강의 가장 긴 지천(支川)은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에 있다는 설이 제기되어 발원지의 문제는 역사학적 인식에서 지리학적인 인식으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이형석이 1918년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의 하천 유로에 대한 도상 계측을 근거로 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는 금대봉 북쪽 계곡임을 제안하면서 한강 발원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1986년에는 이형석이 지목한 금대산 북쪽 자락을 김강산이 한강의 발원지로 제안하면서 그 이름을 검룡소[고지도에서 龍湫]로 하였기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0년 5월 당시 한강을 관리하였던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한국하천일람』에서 한강의 발원지를 이형석에 의해 1981년 제안되었던 태백시 금대봉 북쪽 기슭으로 발표함으로써 과학적 발원지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와 함께 1997년에는 검룡소에서 제 1회 한강대제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문화재청에서 한강발원지로 널리 알려진 검룡소를 국가지정 명승 73호로 지정함으로써 태백산 자락에서 한강이 발원하였다는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한 한강의 발원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잉태하여 분출해내는 발원지는 생명의 중심지이다. 태백산에서 발원한 알물이 대한민국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축축하게 적셔줌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이에 한강 발원지인 이곳 태백,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영속하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태백산이 있는 이곳 태백은 큰 의미를 지닌 곳으로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강 발원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발원지인 검룡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승 제 73호인 검룡소는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에 위치한다. 검룡소는 태백시 창죽동(삼수동) 금대봉 북사면에 있는 용천(湧泉)으로 지하수맥과 연결된 석회암 동굴의 입구가 계곡의 바닥에 노출되어 이에서 용출되는 물에 의해 직경 약 6m 정도의 소(沼)를 이루고 이에서 용출되는 물은 50m 정도 흘러 창죽천으로 유입된다. 검룡소의 위치는 동경 128도 55분 37초, 37도 13분 26초, 고도 954m로 갈수기에도 유량이 관측된다.

석회암 지역에 형성된 소(沼)로 지하수가 하루 5천여톤 가량 용출하고 있으며 솟아나온 물이 30여미터 경사가 완만한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며, 깊이 1~1.5m, 폭 1m의 침식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검룡소에서 용출된 물은 창죽천으로 흘러들며 유로는 침식 하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침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온 30℃가 넘는 7월에도 9℃의 수온을 유지하고 연중 용출되는 수량이 많아 하류의 창죽천까지 유로의 발달이 뚜렷하고 검룡소 부근의 하상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유수의 침식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 침식 하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형석은 근세 한국 1/50,000지형도(1918)의 도상계측자료를 근거로 한강의 가장 긴 물줄기가 있는 곳은 태백시의 금대산(당시 기록에는 어룡산으로 기록하고 있다)이라고 1981년 『월간 산』에 발표하고 이를 한강의 발원지로 발표하였다. 즉, 한강의 최상류 하천은 태백시의 창죽천이고 발원지는 창죽천의 집수역인 금대산(국립지리원의 지형도에는 금대봉으로 표기됨) 북쪽계곡으로 제안하였다. 이 발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발원지를 물의 특이성이나 신비성을 근거로 한 방법에서 특정 기준점에서 가장 긴 유로가 있는 지역 혹은 집수역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태백시의 금대산은 한강의 기점에서 가장 긴 물줄기를 가진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룡소는 원래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물이 솟아 나오는 물구덩이가 이곳에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금대봉의 원시림을 베어가기 위해 물구덩이에 돌과 나무를 넣어 메우고 그 위로 산판길[임도]을 닦았다고 한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산판 트럭들이

이 길을 통해 금대봉의 원시림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검룡소(儉龍沼)’라는 명칭은 김강산에 의해 명명되어, 1986년 4월 8일자 강원일보에 소개되었고, 명명자에 의해 한강의 발원지로 제안되었다.

1986년에는 매몰되었던 곳을 태백시 문화원에서 주도하여 준설하였고, 태백시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정비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곳은 금대봉 북쪽 기슭을 집수역으로 하는 용천으로 석회암 동굴이 지하수맥과 연결되어 있고 동굴이 계곡의 바닥으로 열려 있는 형태이다. 용출수에 의한 흐름이 연중 유지되고, 한강의 본류에서 검룡소까지 유로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검룡소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서해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 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에 이르러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하고 이 연못 속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수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룡소에서 나온 물에 의해 침식된 유로는 그때 이무기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친 자국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이무기는 물을 마시러 오는 소를 잡아먹어 동네 사람들이 연못을 메워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검룡소’라 명명한 배경은 물구덩이가 금대봉(金臺峰) 자락에 있고, ‘검룡소’ 설화를 만든 김강산 자신의 성(姓)이 김(金)이기에 ‘금(金)’字를 생각하고, 그 물구덩이에서 솟아 나온 물이 용트림하듯 와폭을 이루며 흘러내리기에 ‘용(龍)’字를 생각하여 처음에는 ‘금룡소(金龍沼)’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후 김강산은 당시 창죽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본인이 꾸민 이야기를 하며 그 물구덩이를 ‘금룡소(金龍沼)’라고 불러 줄 것과 금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말을 해 주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르기에 발음이 쉽지 않아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른다는 것을 보고, 발음이 어려운 ‘금룡소’보다는 단군 왕검의 ‘검(儉)’字를 차용하여 ‘검룡소(儉龍沼)’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검’이라는 말이 고어(古語)에 신(神)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룡소(儉龍沼)’ 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에는 검룡소에서 제 1회 한강대제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국가 지정 명승 73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백 검룡소 1(심영진 작가 촬영)



태백 검룡소 2(심영진 작가 촬영)

(2) 낙동강 발원지 ; 용소(龍沼)·황지(黃池), 그리고 천천(穿川)

낙동강 발원지로 잘 알려진 황지(黃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태백산과 연화봉 사이에 있으며, 화전리 용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함께 모여 남쪽으로 30리를 지나 작은 산을 뚫어 생긴 물길인 동점리 천천(穿川)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황지는 연못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거나 가물면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고,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제전(祭田)을 내려주었다는 사실과 함께 황부자 전설 또한 잘 알려진 내용이다.

황지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496.70km이고, 고생대 석탄기 임진층군과 고생대 대석회암층군의 경계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사시사철 지하수가 솟아 나오고 항시 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알려진 황지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기록이나 고지도를 통해 예전 사람들이 황지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본다면 황지는 우리들에게 좀 더 크고,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크기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지도〉·〈해동지도〉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 태백산 권역 내에 백두산 천지와 같은 형태와 크기로 황지를 그려 노란색이나 푸른색으로 마감하였다. 이는 낙동강 발원지로서의 의미와 함께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근원이 매우 깊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재항(姜再恒)이 쓴 「황지기(黃池記)」(1719년)에는 그 너비와 세로 길이가 3~4 장(丈) 정도였고, 물은 맑고 깊으며 깨끗하고 조용하였는데, 너무 맑아서 물에 비치는 머리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인상은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1735~1737년 사이)에서 황지의 넓이는 반묘(半畝) 정도였고, 모양은 마치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았으며 안쪽은 넓고 바깥쪽은 줄어들어 작았다. 물러서 움직이는 진흙땅이 연못 물가 주위에 3장(丈) 너비로 깔려있어 겨울철이 아니면 감히 걸어서 가까이 들어가려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심의승이 쓴 『삼척군지』(1916년)에는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그 크기는 40칸[間]이라고 하였다.

즉, 황지는 물이 고여 있는 50여평 정도 크기의 연못과 함께 그 주변이 높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72년에 제작된 「삼척부지도」를 보면 황지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가 작은 원으로 표현된 연못을 지나고 있음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황지 주변에 작은 연못(현재의 중지와 하지)이 있어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지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첫째 이야기는 “연못물이 이따금 흐리게 변하여 바로 황색으로 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연못 속 신룡(神龍)이 용궁(龍宮)을 청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연못에 ‘(황)黃’字가 들어간 이유를 설명한 윤선거가 쓴 『과동기행(巴東紀行)』(1664년)과 이보(1629~1710년)의 「유황지기(遊黃池記)」에 언급된 내용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의 옛 집터이기 때문에 ‘황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데, 송병선(1836~1905년)의 「자봉화입태백산기(自奉化入太白山記)」와 심의승의 『삼척군지』(1916년)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황지의 못은 세 개가 있다. 상지(上池)는 둘레가 100m로 전설에 황씨의 집터요, 중지(中池)는 둘레가 50m로 황씨 집안의 방앗간 자리이며 하지(下池)는 둘레가 30m로 가장 깊은 못이며 변소 터라 이른다. 수량은 무한하여 대한(大旱)시기나 우기의 대홍수 시기나 수량의 증감을 모르는 항상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름은 차고 겨울은 따뜻하다. 물밑까지 맑고 투명하여 어족이 전혀 살지 않는 못이니 황지라 하여 더욱 유명하다. 상지의 남쪽 언덕에 큰 구멍이 있는데 수심을 알지 못하는 수굴이다. 황지에 대한 전설은 이러하다. 옛날에 황씨 성을 가진 부자가 많은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았으나 돈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의 표본이요 노랭이었다. 하루는 황씨가 마구간을 청소하는데 태백산의 한 노승이 시주하기를 청했다. 주인이 꾸짖으며 백미 대신 소똥을 가래에 퍼 던져 주며 “이거나 받아 가라” 고 하였다.

노승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받아 가는 것을 보고 있던 그 집 며느리가 민망스럽게 여겨 백미 한 되를 떠서 시부모 모르게 뒤쫓아가서 노승에게 주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노승이 며느리보고 말하기를 “이미 이 집의 운이 다하였으니 아기를 업고 속히 소승의 뒤를 따르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하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곧 집을 나서서 구사리 산마루까지 갔을 때 천지가 진동하고 큰 우렛소리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 집쪽을 돌아다보니 자기 시가는 둘러 빠지고 큰못이 되었더라고 한다. 며느리는 시부모와 가족을 생각하고 울며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즉석에서 석불이 되고 말았다. 이 못이 황지의 세 못이며 미륵불은 지금의 구사리 산마루에 있는데 높이 9자에 아기를 업고 뒤를 돌아다보는 모양을 하고 길가 숲속에 우뚝 서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황지’ 라는 명칭은 원래 연못에 용이 있어 청소하는 과정에 물이 이따금 흐려지기에 ‘황지’ 라 하였는데, 19세기 이후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터로 이야기되면서 현재 많이 알려진 ‘황부자 전설’ 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실제 지형을 조사하여 낙동강이 시작된 곳이 황지가 아닌 천의봉 자락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작성된 각종 고지도와 지리지를 보면 황지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황지보다 상류에 있는 화전동 용소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해져서 낙동강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지만,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라는 점은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발원지는 심산유곡보다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왕래하는 곳 이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부를 형성하는 조산(祖山)이나 당대의 문화 자산을 간직한 산의 가슴에 해당하는 곳을 발원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송병선은 “황지가 있는 장소가 태백산의 가슴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겹겹이 쌓인 성난 마음이 이곳에 도착하니 확 풀렸는데, …” 라고 하였다.

태백산의 가슴이면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는 진정 낙동강의 발원지라는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다. 태백산이 지닌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의미와 함께 각종 기록에 나타난 황지를 생각한다면 이곳은 진정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지(聖地)로 여겨야 할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발원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용담(龍潭)

고지도(古地圖)인 <상백본 척주지>의 태백산과 黃池(1870년 경)에는 현재의 太白山 소도 당골 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所道池를 타원형으로 그려서 푸른색으로 채색하였는데, 所道池에서 黃池로 연결되는 물줄기가 있으며, 黃池에서는 黃池 북쪽에 있는 黃池山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하여 太白山 남쪽의 穿川[구문소]을 지나 안동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표기하였다.

1916년 자료에 의하면 이 연못은 소도리 당곡동(唐谷洞)에 있었으며, 당시 못의 둘레는 15칸[間]이며 그 깊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현지조사 결과와 지도에 표기된 위치를 종합해 보면 所道池는 현재의 太白山 소도 당골 내에 있는 청원사 경내의 용담으로 볼 수 있다. 용담과 관련하여 전하는 정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이 산다는 용담[용소]은 옛 삼척군 황지읍 소도리에 있는 청원사의 용담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 낙동강 하류 지방에 편모를 모시고 3형제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어머니가 병을 얻어 시름 시름 앓아 눕더니 어머니의 하반신이 차츰 용으로 변하여 갔다. 3형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백방으로 물어보고 약을 써 보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아들 3형제를 불러 놓고 “이 강줄기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태백산이란 명산이 있다. 그 산 중턱에 용소라는 큰못이 있으니 나를 그곳에 데려다 달라.” 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난데없이 용마가 나타나서 집앞에서 엉엉 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말에 태우고 태백산 중턱 용소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매우 만족하고 기쁜 낯빛으로 아들 3형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이 용소에 들어가 살터이니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길만이 나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조금도 섭섭히 생각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돌아가라.” 고 당부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벽력이 울리며 폭풍우가 쏟아지더니 용마도 어머니도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다만 용마의 발굽에 달렸던 말편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말편자는 현재 청원사(淸源寺)에 보관되어 전해지고 있다. 용소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 3형제는 서운한 마음으로 태백산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중 유복자인 막내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냉정하게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간 참혹한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다가 마침내 태백산 중턱에서 돌미륵이 되어 버렸다. 이 돌미륵은 지금도 용소를 멀리서 굽어보면서 인용이 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용담에는 지금도 인용이 서식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로 1년에 두 번 씩 수질이 변한다고 한다. 청정하던 물이 갑자기 흐린 물로 변하여 어떤 때는 약 2일 동안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태백시 소도동 구 함태광업소 자리에서 약 5백m 지점, 태백산의 중턱에 청원사라는 절이 있

다. 경내에는 아름다운 석탑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다. 이 절은 원래 탐원사라는 옛 절터에 새로 건립했다. 절 앞에 많은 수량이 솟아 나오는 용담이라는 깊은 소가 있다. 수원은 태백산에서 발원, 지하로 스며들어 이곳에서 용출한다. 이 소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황지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이 소를 용담 또는 용소라 부른다.



청원사 내에 있는 소도연[용담]과 극락보전 전경 (2009년)

■ 천천(穿川 ; 구문소[孔淵])

황지와 화전동의 용소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철암에서 이어지는 물줄기와 만나는 곳이 천천(穿川) 유역이다. 이 지역은 산지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하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천천(穿川) 하나 뿐으로 여겨왔다. 그 상류는 세 곳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화전리의 용소(龍沼)에서 발원하고, 둘째는 황지리의 황지에서 솟아 오르고, 셋째는 혈리의 석굴(石窟)에서 흘러나와 동점리에서 석문(石門 ; 구문소[孔淵])을 지

나 철암천과 합류하여 경상도 낙동강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낙동강 상류이다. 즉, 황지에서부터 태백산 동쪽의 수많은 계곡물이 모여 구문소까지 쏟아져 왔지만 산이 가로 막혀 더 이상 흐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져서 산을 뚫은 냇물이라는 뜻을 지닌 穿川[구문소]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穿川의 양쪽 언덕에 마주보고 솟아있는 돌벽을 석문이라 불렀다. 천천(穿川)은 구멍 연못[孔淵]으로도 불렸으며, 현재는 ‘구문소’를 이른다. 이곳은 그 형상이 돌로 만든 홍예문과 흡사하여 이 지역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관에서 제전(祭田)을 설치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보(李簾)의 「유황지기(遊黃池記)」와 강재항(姜再恒) 「황지기(黃池記)」에는 천천(穿川[구문소])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다시 구문소로 가서 이리저리 마음껏 구경했다. 하천은 황지에서부터 태백산 동쪽의 수많은 계곡물을 모아 모아서 이곳까지 쏟아져 왔지만 산이 가로 막혀 더 이상 흐름이 단절되었는데 하류로 통하게 구멍이 뚫려서 커다란 구멍하천이 만들어졌다.

구문소 안을 살펴보니 구멍의 넓이는 십보(十步) 정도이고 높이는 수십장(數十丈)쯤 된다. 활같이 흰 모양으로 된 안이 넓은 집[아치형집]이 하나 지어져 있고 구멍[竇] 안팎으로 수심은 바닥을 알 수 없으며 구멍 상류와 좌우는 모두 암석이었고 가파르고 깊숙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때는 아직 하천의 얼음이 아직도 단단하게 얼어있는 날씨였기 때문에 빙판 위를 걸어서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니 마치 유리로 만든 전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말하는 소리와 구멍이 상응한 메아리는 금석(金石)이 나오는 것 같았다. 구멍 안 빙판 위에는 커다란 나무 한그루가 걸쳐 눕혀있었다. 내가 채찍으로 두드리니 북소리인 듯 천둥문의 큰 북 같았으니 모두 구멍이 도운 바다.

구멍 물길 동쪽 벽 귀퉁이에는 굴이 있었으니 입이 딱 벌어져서 수염만 문지를 뿐이다. 컴컴하고 어두워 측정을 할 수 없는데 사람들 말이 이 굴

은 위로 산 정상과 통한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천지간 조화의 흔적이 이와 같이 광대하고 기이하니 큰 신령이 도끼로 뚫어놓은 굴이 아니겠는가 …

… 황지의 물이 연화봉 아래로 흘러가서 그 곳에서 산 동쪽의 여러 물과 합쳐져 이른바 아흔아홉 개 하천이라고 하는 데 처음에 이것들이 동쪽으로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남북으로 가로막은 산 때문에 남쪽으로 흘러갈 수 없었는데, 그 후 산허리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똑바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산을 뚫은 냇물이라는 뜻의 천천(穿川: 구문소)이 되었다.

그 옛날 물길은 산을 돌아서 남쪽으로 흘러가다 다시 동쪽으로 꺾고 북쪽으로 흘러들어 갔지만 지금은 진흙으로 메워진 채로 있다. 천천의 양쪽 언덕의 돌벽은 마주보고 솟아있는데 높이가 각각 사람 키 10키쯤 되며 석문이라고 부른다. …

이인상(李麟祥)의 『능호집(凌壺集)』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실려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 사람이 말하기를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황지(黃池)의 물이 예전에는 산 뒤쪽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갔지만 용이 이 구멍을 뚫어 물길이 바뀌었는데 물 밑바닥에는 용이 아마도 엎드려 숨어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황지에서부터 태백산 동쪽의 수많은 계곡물이 모여 구문소까지 쏟아져 왔지만 산이 가로 막혀 더 이상 흐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져서 산을 뚫은 냇물이라는 뜻을 지닌 穿川[구문소]이라는 명칭이 생겼으며, 천천(穿川)의 양쪽에 마주 보고 솟아있는 돌벽을 석문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구문소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 삼척군 장성읍 동점리(洞店里)에 엄종한(嚴宗漢)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식생활이 곤란하므로 매일 구문소에서 낚시와 그물로 고기를 잡아 십여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그물을 쳐 놓고 이튿날 아침 일찍 그물을 건지려다가 실족하여 물 속에 빠져 정신을 잃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용의 배에 자기 몸이 찢리는 것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자기는 죽었구나 하는 체념과 살아 헤어 나가야겠다는 결심등 착잡한 심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눈을 감고 물밑을 기어 다시 큰 물 속을 들어가니 물깊이가 몇천 길이 되는 것 같았다. 위를 쳐다보니 중앙에 한 동천굴로 통하는 하늘이 보이는데 대낮의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고 평평한 모래밭이 십리나 되는데 돌이 태반이요 큰집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인적은 없어 고요하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구중궁궐이요 용왕의 궁중이라 생각하고 환하고 평평한 모래 길을 따라 건다가 제일 큰 대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대궐 안을 살피니 문 위에 두개의 그물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잃어버린 자기의 것이기에 이상히 여겨 기웃거리며 만져 보는데 돌연 안에서 백발 노인이 나오더니<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왔으며 그것을 왜 만지는가?>고 물었다. 그는<그물을 잃어 찾다가 실족하여 이곳까지 왔나이다.>하고 사실대로 말했다. 노인은 말하기를<내 어린 두자식이 놀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을 뻔하여 화가 나서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두고 병이 나서 앓고 있다가 오늘에야 완쾌되었다. 지금은 사냥을 가고 있는데 곧 돌아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거라.>라고 말했다. 엄중한은 당황하여<길을 몰라 갈 수 없습니다.>고 하니 노인은 염려 말라고 하면서<흰 강아지 한 마리를 줄 터이니 강아지를 따를 것이요 가는 도중에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소매 속에서 흰떡 한 개를 주면서 길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흰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달려가니 어느덧 바다 깊은 곳에 이르렀다. 오는 도중 강의 좌우 풍경이 절경이었다 한다. 큰 파도가 일며 물 중간이 열리며 갈라져 큰 길이 나타났다. 자꾸 걷는 도중 배가 고파 흰떡을 먹으니 마음이 상쾌하고 배가 부르며 길을 걸어도 조금도 고달프지 않았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어느 한 곳에서 강아지가 멈추므로 살피 보니 그곳이 바로 그물을 쳤던 곳이라 강아지와 함께 바위 위에 올라가 자기 집을

바라보니 무당의 굿소리가 나며 조문객이 오락가락 하였다. 엄중한은 이상히 여겨 알아본즉 자기가 익사하여 행방이 묘연한지 벌써 3년이 되어 두 아들이 부친의 탈상을 겸한 3년상에 영혼을 위로하는 무당의 굿소리라 하였다. 길을 인도하던 강아지는 즉시 죽고 흰떡은 흰 돌이 되었다. 강아지의 시체는 천천 뒷산에 매장하고 백병석(흰떡)은 엄씨가 잘 간직하여 가보로 모셨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점점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3년만에 엄중한이 죽어 흰 강아지 무덤 근처에 매장하였다. 그 뒤 경북 대현사람 조성이란 자는 엄씨의 사위로 집이 가난하여 장인이 백병석을 가보로 하여 천금의 부자가 된 것을 탐내어 여러 차례 딸에게 물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듣지 않고 깊이 숨겨 두었는데 장인이 죽은 뒤에 훔쳐 갔다고 한다. 엄중한의 묘는 지금 천천 뒷산에 있고 묘앞 비석에는 그 사적이 적혀 있으며 백병석은 안동 방면 조씨 가문 중에 보관되어 유물로 전하고 있다 한다. 이 이야기는 문집 [유계집]에 실린 것이 세상에 퍼졌다 한다.



孔淵[구문소] 전경 (철암천에서 황지천 방향)

(3) 오십천,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되다.

오십천은 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계인 백병산에서 시작되어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50여 번을 굽이쳐 흐르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기에 이 하천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발원지는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 있으며,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이다.

오십천 발원지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허목, 1662년), 『여지도서』, 『삼척군지』(심의승, 1916년) 등의 기록을 보면, 오십천(五十川)이 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라진 별도의 산인 우보산(牛甫山) 혹은 유현(楡峴)에서 발원(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흘(九沙屹)이라 하며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미인 폭포]이고, 이 물이 동쪽으로 백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오십천’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에서 물 근원까지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하므로 대충 헤아려서 오십천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 제작된 많은 고지도에 태백산 자락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을 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변사인방안지도(奎12154)>에는 동해로 향하는 오십천(五十川)이 백산(白山)과 유현(楡峴) 자락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향함을 2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백산(白山)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더 길게 그렸는데, 이는 오십천의 실제 발원지가 도계 구사리 백산 8~9부 능선임을 감안할 때 정확하게 표현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한강과 낙동강이 현재의 태백시 권역 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비해, 오십천은 행정 구역상 삼척시 권역 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태백시와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는 태백산의 권역을 태백산에 한정함으로써 나타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보(李簾)의 「유황지기(遊黃池記)」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

간의 기운이 태백산에 이르러 동해·서해·남해에 까지 이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대간 줄기와 함께 태백산 권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오십천을 이루어 동해에 닿으며,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는 서해에 닿고, 황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해에 이르고 있음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태백산은 산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봉우리를 포함하는 폭 넓은 권역을 말한다. 그리하여 동쪽으로는 우보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군, 북쪽으로는 금대봉,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이른다. 이처럼 태백산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북 북부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권역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함께 이인상(李麟祥)이 쓴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를 보면 이산의 높은 봉우리로는 천의(天衣)·상대(上帶)·장산(壯山)·함박(含朴) 등이 있고, 물에는 황지(黃池)·공연(孔淵)·오십천(五十川) 등이 있으며 신(神)으로는 천왕(天王)과 황지(黃池)의 신이 있다고 하였다. 즉, 태백산 자락에서 오십천이 시작됨을 확실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목의 『기언(記言)』 「태백산기(太白山記)」를 보면 ‘태백산은 신라 때의 북악(北嶽)으로 문수(文殊)·대박(大朴)·삼태(三台)·우보(虞甫)·우검(虞檢)·마라읍(摩羅邑)·백산(白山) 등이 모두 큰 산이며 동이(東曉)의 진번(眞番) 땅에 자리 잡고 있다.’ 라는 글이 보인다. 즉, 오십천이 시작되는 백산을 태백산 권역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태백산의 권역을 위와 같이 인식한다면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이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십천 지형을 살펴보면 심한 곡류를 하면서 삼척시를 동서로 양분하며, 하구로부터의 거리는 56.33km이다. 이 하곡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시킨다. 오십천 발원지는 고위평탄면 상에 나타나는 고산 습지로써 해발고도는 1,148.3m로 매우 높지만 발원지 주변의 경사는 17.3°로 산지 능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급사면에 비해 완만하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지역을 습지 또는 늪지로 인식하며, 빗물이나 이슬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아 보이며, 지하수 용출에 연속성이 있기에 유로의 발달이 항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태백산 권역을 폭넓게 인식한 기록을 바탕으로 오십천이 태백시와 삼척시의 경계에 있는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동해안으로 향하는 가장 긴 물줄기가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동해·남해·서해로 흘러드는 가장 긴 강이 모두 태백산 자락에서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백산 권역을 대부분 아우르고 있는 태백시는 진정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큰 기운과 힘이 솟아나는 심장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3) 사통팔달, 태백산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

태백산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열려있다. 동쪽으로는 유령[느릅령]을 통해 삼척 도계와 연결되며, 통리를 통해 삼척 도계와 삼척 가곡-원덕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는 두문동재와 만항재·싸리재를 통해 정선과 연결되며, 화방재를 통해 영월지역과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새길령을 통해 천평-봉화로 이어지고, 낙동강이 이어지는 강 유역을 통해 구문소-봉화지역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피재를 통해 삼척 하장·정선·강릉으로 이어진다.¹⁾

이와 같이 태백지역에서는 사방으로 연결된 길이 나 있어 태백을 에워싼 모든 지역에서 태백으로 올 수 있으며, 또한 태백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지역이 바로 태백이다.

이와 관련하여 1911년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리지』(강원도 편)를 보면 上桶洞에 龍井幕, 鐵岩洞에 식터쥬막과 구무쇼쥬막, 禾田洞

1) 피재를 통해 상인들이 태백지역과 하장·정선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하였으며, 이들의 행로 안전과 상업 번성을 위해 제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지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는 사실은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승, 『삼척군지』, 하장면 적각리조, 1916. <… 직치(稷峙)에 산령각(山靈閣)이 있는데 1890년대에 상인들이 자금을 거두어 건립하였다.…>

에 嚴木亭幕, 黃池洞에 橋峴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上桶洞의 龍井幕은 황지에서 느릅령을 지나 삼척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는데, 느릅령을 전후한 위치에 주막을 만들어 이를 오가는 상인들이나 민간인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鐵岩洞에 있었던 식터주막과 구무쇼주막은 당시 경북 내륙의 낙동강 유역에 형성된 길을 통해 ‘봉화 - 구문소 - 철암’으로 이어지는 노선에 있었던 주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禾田洞에 있었던 嚴木亭幕은 황지에서 피재를 거쳐 하장과 정선으로 향하는 이들을 위한 주막이었으며, 黃池洞의 橋峴幕은 황지를 중심으로 정선·삼척·봉화·영월을 연결하는 길이 만나는 결절점 부근에 있었던 주막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막을 통해 1911년 당시 태백사에서 외부로 연결된 주 도로가 어디였는지와 사람들이 주로 지나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유산기나 고지도에 표현된 길을 보아도 태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遊山記를 통해본 옛길

태백산과 황지를 보기 위해 다녀간 사람들이 쓴 유산기를 보면 당시 태백을 중심으로 봉화지역과 연결되는 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태백지역 내의 이동 경로도 파악할 수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능호집(凌壺集)』에 실려있는 이인상(李麟祥)이 쓴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를 보면 봉화에서 태백산 - 황지 - 철암 - 봉화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봉화 - 50리 - 각화사 - 상대봉 - 태백산 천왕당 - 소도리점(素逃里店)[소도 내] - 20리 - 황지 - 소뢰현(素耒峴)[송이재] - 철암(홀로 우뚝 솟아 있는 산봉우리는 높이가 수십 장(丈)이나 되고 마치 투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음) - 10리[백산] - 방허촌(方墟村)[방터골] - 공연(孔淵)[구문소] - 50리 - 홍제암(洪濟菴) - 60리 - 봉화’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였다.

즉 필자는 현재의 봉화 - 태백산 - 소도 - 황지 - 송이재 - 철암 - 백

산 - 방터골 - 구문소 - 봉화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태백산 천왕당과 황지, 구문소를 본 후 다시 봉화로 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 중의 하나인 낙동강 유역을 통한 봉화와의 연결로와 태백산에서 상대봉을 거쳐 봉화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다.

강재항(姜再恒)의 글을 모은 『입재유고(立齋遺稿)』에 실린 「황지기(黃池記)」를 보면 봉화에서 천평을 지나 새길령, 혈리 동굴, 황지, 철암, 구문소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춘양현(春陽縣) - 각화사(覺華寺) - 도심촌(道深村) - 자우동(雌牛洞) - 10여 리 - 소공산(召公山) - 용유령(熊踰嶺) - 천평촌(川坪村) - 10여 리 - 조도령(鳥道嶺) - 박외촌(博隈村) - 공암(孔巖) - 황지(黃池) - 서하동(瑞霞洞) - 본적동(本寂洞) - 황지 앞 하천 - 노령(弩嶺) - 철암(鍊巖) - 편의령(便宜嶺) - 자지산(紫芝山) - 동점(銅店)을 바라봄 - 천천(穿川) - 왔던 길을 찾아 따라가서 - 자지산(紫芝山) - 황지 - 천평(川坪) - 고적령(高積嶺) - 봉화’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였다.

즉 현재의 봉화 - 도심촌 - 천평 - 새길령 - 혈리 동굴 - 황지 - 노령 - 철암 - 구문소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 중의 하나인 ‘태백 - 혈리 - 새길령 - 천평 - 고적령 - 봉화’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다. 이 길은 봉화에서 태백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였으며,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각종 고지도에도 이 길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보가 쓴 「유황지기(遊黃池記)」를 보면 봉화에서 구문소 - 철암 - 황지 - 혈리 - 천평 - 봉화 도심촌으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감동(高甘洞)[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 마전령(麻田嶺) - 용혈사(龍穴寺) - 고선촌(高鮮村) - 홍제암(洪濟庵) - 월암(月巖) - 미암(微巖) - 구문소 - 山 바깥쪽 평탄한 길 - 소야곡(蘇野谷) - 십여리 - 철암촌 - 손이령(孫伊嶺) - 황지 들판 - 본적사 있는 절골 - 민가에서 잠자리 - 황지 - 서학동(瑞霞洞) - 박외동(朴外洞)[바위굴을 구경] - 박외촌(朴外村) - 業平

村[어평마을] - 신절령[新節嶺] - 川平村[천평마을] - 고적동(苦積洞) - 도심촌(道心村) - 각화사(覺華寺) - 춘양(春陽)’ 으로 이어지는 노정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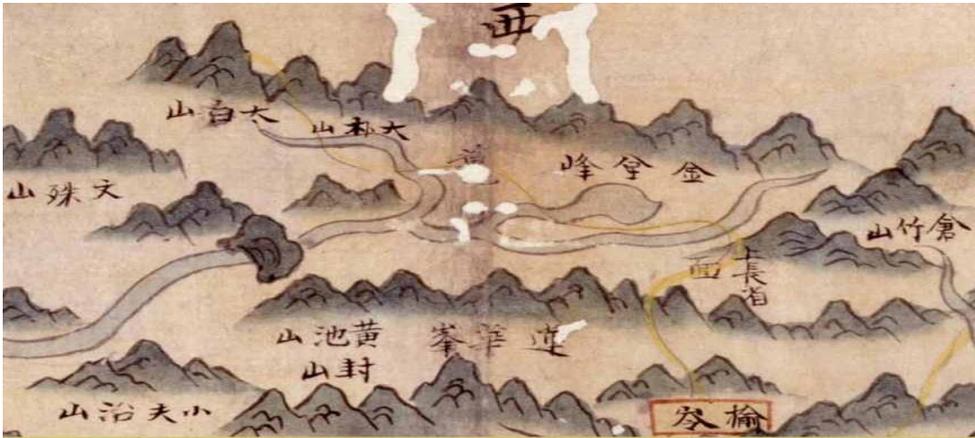
즉 현재의 봉화 - 구문소 - 철암 - 송이재 - 황지 - 서학골 - 혈리 - 어평 - 천평 - 봉화 도심촌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이었던 ‘태백 - 혈리 - 천평 - 고적령 - 봉화’ 로 이어지는 길과 태백에서 구문소를 지나 낙동강 유역을 통해 봉화와 연결되는 길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유산기를 통해 태백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인 새길령을 통해 천평-봉화로 이어지는 길과 낙동강 유역을 통해 구문소-봉화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지역 내에서 ‘혈리 - 소도 - 황지 - 송이재 - 철암 - 구문소’ 로 이어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古地圖를 통해 본 옛길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를 보면 태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연결된 옛길을 알 수 있다. 이들 지도에는 주로 빨간색이나 노란색, 또는 검정색 실선으로 길을 표기하였으며, 주로 고갯길과 하천 옆으로 난 길을 표기하였다. 대표적인 고지도 3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745년에서 176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변사인방안지도(奎12154)> 강원도 삼척부 지도를 보면 태백산과 함백산 사이에 난 고갯길을 통해 봉화·영월과 연결되며, 이 길은 ‘황지 - 느릅령’ 으로 이어져 삼척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옛길을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이었던 ‘태백 - 혈리 - 사길령 - 천평·어평 - 봉화’ 로 이어지는 길과 태백에서 느릅령을 지나 삼척으로 연결되는 길을 알 수 있다.



〈비변사인방안지도(奎12154)〉강원도 삼척부 太白山과 黃池(1745년에서 1760년 사이)를 중심으로 한 옛길

1795 ~ 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古4709-37)〉 강원도 지도를 보면 태백산 서쪽 자락에 난 길을 통해 봉화·영월과 연결되며, 낙동강이 이어지는 유역을 통해 구문소 - 황지 - 느릅령 - 삼척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고, 옛길을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에서 봉화로 향하는 길이었던 ‘태백 - 혈리 - 사길령 - 천평·어평 - 봉화’로 이어지는 길과 봉화에서 구문소를 지나 황지 - 느릅령을 지나 삼척으로 연결되는 길을 알 수 있다.



〈여지도(古4709-37)〉강원도 太白山과 黃池(1795 ~ 1822년 사이)를 중심으로 한 옛길

1861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도(奎10340)〉 강원도 지도를 보면 봉화와 영월 지역에서 태백산과 창옥봉 사이에 난 고갯길을 통해 황지 - 느릅령 - 삼척으로 이어지는 길과 정선에서 태백을 지나 느릅령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낙동강이 이어지는 유역을 통해 봉화에서 구문소를 지나 철암 - 느릅령 - 삼척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알 수 있고, 옛길을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태백을 중심으로 정선·영월·봉화·삼척 해안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여도(奎10340)〉강원도 太白山(1861년 전후 추정)을 중심으로 한 옛길

위에서 소개한 고지도를 통해 태백에서 서쪽인 정선이나 영월로 이어지는 고갯길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인 새길령을 통해 천평-봉화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낙동강이 이어지는 유역을 통해 구문소-봉화지역으로 이어지는 길과 함께, 이들 길이 느릅령을 통해 삼척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영서지역과 경북지역에서 태백의 황지와 느릅령을 거쳐 삼척으로 이어지는 길을 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봉화와 태백을 연결하는 주요 고개였던 사길령은 현재 태백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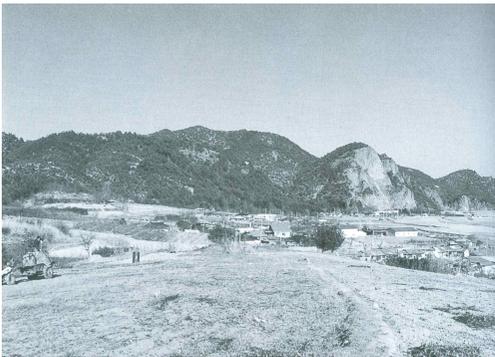
도동 혈리의 정거리에서 천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강원도에서 경상도 춘양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고갯길에 있는 신앙 공간은 산령각과 함께 국수당이 있으며, 신수(神樹)로 모시는 엄나무가 있다. 조선 후기에 이 고개를 넘나들던 보부상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안전을 기원하면서 상업의 번창을 위해 산령각을 짓고 매년 음력 4월 15일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느릅령은 백두대간 줄기인 피재에서 백두대간과 갈라진 줄기가 낙동정맥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에 나타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경북과 영서지역 사람들이 태백을 거쳐 삼척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고개를 넘나들던 사람들은 고개가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든 데다 짐승, 특히 호랑이가 득실거리 호랑이의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이에 고개를 넘을 때에는 무서워서 혼자 넘지 못하여 여러 명이 모여 넘었고, 어떤 때에는 짐승을 쫓기 위해 징과 팽과리를 치며 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느릅령 정상에 산령각을 지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안전을 기원하면서 상업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16일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주요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2. 삼척의 역사 바로알기

1) 선사시대의 삼척

원덕읍 산양리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삼척지역에도 10만여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²⁾ 이후 옥원리유적, 갈천동유적, 증산동유적 등 여러 지역에서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찌르개, 찌개, 밀개, 격지 등 여러 점의 뿔석기(구석기 유물)가 발견되었다. 이웃한 동해시 지역에서 다수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삼척지역의 주요 대소하천 유역의 구릉지나 동해안에 연접한 해안단구상의 평탄면에서 구석기시대 관련 유적이 보다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³⁾ 이를 통해 삼척의 폭넓은 지역에서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생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



산양리유적 전경



산양리 출토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는 최근 증산동유적 발굴조사에서 결합식 낚시와 석부 등 유물 몇 개가 수습되어 그 존재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양양 오산리유적을 비롯하여 울진과 동해시 지역에서 다수의 신석기유적이

2) 홍영호,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1)」, 『박물관지』제6호, 강원대중앙박물관, 1999.

3)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4) 아래 산양리 구석기시대 유적 관련 사진은 다음 논문에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홍영호, 「동해안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구석기유적(1)」, 『박물관지』제6호, 강원대중앙박물관, 1999.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삼척지역의 주요 하천 유역의 사구지대나 주변의 구릉지에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생활유적(生活遺蹟)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⁵⁾

청동기 시대 유적·유물의 경우 인근 동해시 지역에서 지석묘·석관묘 등의 유적과 반달형 돌칼·마제석검·마제석촉·마제석부·민무늬토기·어망추 등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삼척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원덕읍 호산리에서 마제석촉 1점, 1960년대 봉황산 서편에서 석부와 석착(돌끌), 교동 뒷산에서 석부(돌도끼)와 석촉(돌화살촉), 월암산에서 석부, 1965년경 남산절단공사 절개지에서 마제석검 1점, 1967년 원덕읍 장호리에서 석검 1점, 석촉 4점, 1994년 교동 택지개발지구와 종합운동장 사이의 구릉지에서 화살촉 1점과 다량의 민무늬토기 조각, 성북동 갈야산 서쪽 기슭에서 석부 1점과 마제석검조각을 수습한 적이 있다.



산양리 출토 굽개

그리고 출토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근덕면 교가리 도원동에서 석검조각 1점, 원덕읍 옥원 3리 송실마을에서 반달돌칼로 보이는 석기 1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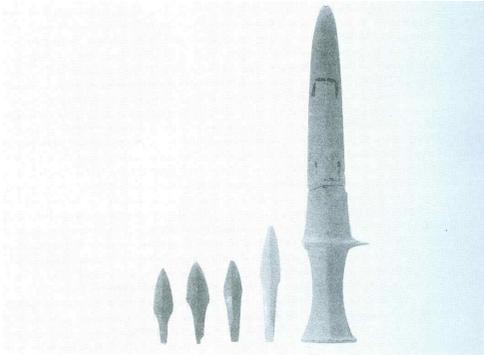
향후 삼척의 주요하천인 오십천, 마읍천, 추천, 용화천, 호산천, 가곡천 등 하천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청동기시대의 삼척지역 문화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⁶⁾

5)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6) 아래 청동기시대 유적 관련 사진은 다음 보고서에 각각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호산리 LNG산업단지내 유적 발굴 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장호리 출토 간돌검 및 돌화살촉



호산리 1호 주거지내부 위석식 노지

삼척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철기시대 유적지로 주요 하천인 오십천 하류역의 오분동유적, 마읍천 하류역의 하맹방리유적, 가곡천 중류역의 노경리유적 등이 알려졌다. 이중 1992년 삼척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근덕면의 하맹방리유적은 마읍천 하류역의 북쪽에 형성된 사구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영동 남부지역에서 최초로 철기시대 여(呂)자형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으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향후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삼국 형성 이전의 실직국과 그의 영역에 속한 여러 읍락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⁷⁾⁸⁾



하맹방리 철기시대 여자형 주거지



호산리 철기시대 4호 주거지 유물 출토

7) 이상수, 『삼척의 고고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2.

8) 아래 철기시대 유적 관련 사진은 다음 보고서에 각각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관동대박물관, 『삼척 하맹방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35책, 2004. ;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호산리 LNG산업단지내 유적 발굴 조사 약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그리고 철기시대에 들어서 동해안에 창해 3국이라 불리는 군장국가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릉의 예(濊)국, 삼척의 실직국(悉直國), 울진의 우유국(優由國) 혹은 파단국(波旦國)이 그것이다. 문헌상의 기록은 없으나 당시 세 나라 사이에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져 실직국이 파단국을 합병하고 이어서 실직국은 다시 예국의 침공을 받아 마지막 임금이라고 전하는 안일왕(安逸王)이 울진으로 피난하여 산성을 쌓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실제로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안일왕산성이라 불리는 산성터가 남아있고 관련된 지명과 말이 지금도 남아있다. 통고산, 복두괘현, 왕피리, 병위동, 포전, 임광터, 핏골, 거리곡, 왕피천 등의 지명과 “예 나온다 그쳐라” “예 쳐온다 그쳐라” 등의 말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삼국·남북국 시대의 삼척

삼척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는 실직국이 문헌상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3년(102년)이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파사이사금 23년(102년) “가을 8월에, 음집벌국(音汁伐國-경북 안강)과 실직곡국이 경계를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판결해 주기를 청했다. 왕은 이를 어렵게 여겨 금관국 수로왕이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함으로 불러서 물었는데, 수로가 건의해서 다투던 땅을 음집벌국에 속하게 했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게 했는데, 다섯 부는 모두 이찬(伊滄, 신라의 17관등 중 제2 관등)으로써 주관하게 하였으나 오직 한기부(漢祗部)만이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써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수로왕은 노하여 종 탐하리(耽下里)에게 명하여 한기부주(漢祗部主) 보제(保齊)를 죽이고 돌아갔다. 그 종이 달아나서 음집벌주 타추간(陔鄒干)의 집에 의지해 있었으므로,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가 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음집벌국을 정벌하니, 그 왕은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했으며, 실직과 압독(押督-경북 경산) 두 나라 임금도 항복해 왔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5년(104)에는 “가을 7월에 실직이 배반했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쳐서 평정하고, 그 남은 무리들을 남쪽 변경으로 옮겼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신라가 본격적인 영토확장 정책을 편 것은 지증왕 때부터인 것으로 이해되는 만큼, 파사왕 당시에는 실직국의 영토를 실제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조공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지리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직국의 세력권은 삼척지방에서 남으로는 경상북도 영덕 남쪽 청하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하 이북의 영덕, 영해, 울진 지방이 모두 고구려 땅이었다고 했고, 경덕왕 때 한화정책에 따라 지명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 일대의 지명이 모두 고구려식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가 지증왕 6년(505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군주로 파견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고구려 세력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삼척을 중심으로 남쪽의 청하까지 그 세력권으로 삼았던 실직국이 점차 쇠퇴하면서 고구려 세력과 신라 세력의 각축 속에 한 때는 고구려의 영향도 받다가 지증왕 이후 확실히 신라의 영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 내용으로, 내물왕 40년(395년) 가을 8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했으므로, 군사를 내어 그들을 실직의 언덕에서 크게 깨뜨렸다.

눌지왕 34년(450년) 가을 7월에 고구려 변방의 장수가 실직(悉直)의 언덕에서 사냥하니 하슬라(何瑟羅) 성주 삼직(三直)이 군사를 내어서 엄습하여 죽였다. 고구려왕이 이를 듣고서 화를 내고 사신을 보내어 일러 말했다.

“내가 대왕과 사이 좋게 지냄을 지극히 즐거워하던 터인데, 이제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경에 있는 장수를 죽이니 이 무슨 뜻입니까?”

이에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범했으므로 왕이 말을 낮추어 그 것을 사과하니 그제야 돌아갔다.

자비왕 11년(468년)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 변경의 실직성을 습격했

다. 이와 같은 해인 장수왕 56년(468년)에는 봄 2월에 왕이 말갈군사 1만 명으로 신라의 실직주성을 쳐서 빼앗았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이 일대가 그 때까지 확실히 어느 한 나라의 영토로 정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선덕여왕 11년(642년)에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키자 고구려의 구원을 청하기 위하여 사신으로 갔던 김춘추에게 고구려왕이 출병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죽령(竹嶺)은 본시 고구려의 땅이니, 그대가 만약 죽령의 서북쪽 땅을 되돌려 준다면 군사를 보내줄 수 있다” 고 한 사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소국에 지나지 않았을 실직국이 과연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장악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1세기경의 동해안의 정세를 보면 북쪽에는 옥저와 동예가, 남쪽으로는 사로국(신라의 전신)을 비롯한 소규모의 군장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기에 실직국은 해상활동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직국의 중심이었던 삼척은 뒤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지증왕 13년(512년)의 우산국 정벌 때의 출항기지로 추정될 만큼 오십천 하류에 뛰어난 조건의 자연 항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 필요한 넓은 연병장, 조선(造船)에 필요한 좋은 목재 산출 등의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실직국은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하여 주변 소국들과 교역하는 한편 동해 남부 해안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중간 거점으로서 울진, 영덕, 청하 등지의 주요 요소에 그 세력권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실직국은 파사왕 이후 신라의 영향 아래 신라문화권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로 이 당시의 유물이 모두 신라식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실직이 확실한 신라의 영토로 된 것은 지증왕 6년(505년)에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지증왕 13년(512년)에는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복종하여 따르게 함으로써 동해안 일대는 완전한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이후로도 실직은 동해안의 정치·군사의 중심점 역할을 했으니 법흥왕11

년(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된 울진봉평신라비에 보이는 형 집행의 총책임자로서의 실지도사의 관명과 통일 이전 신라의 군사조직인 6정의 하나인 실직정이라는 군단이 설치되었던 점 등이 그 증거라 하겠다.

그 후 태종무열왕 5년(658년)에는 선덕여왕 8년(639년)에 북소경으로 삼았던 하슬라 땅이 말갈과 붙어 있어 백성들이 편안할 수 없다하여 소경을 없애고 주(州)로 삼아 도독을 두어 다스리게 하는 한편 다시 실직을 북진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삼척이 그만큼 중요시되었던 증거라 하겠다.

이어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지방제도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삼척의 실직주와 강릉의 하슬라주를 합쳐 명주(溟州)라고 이름을 바꾸고, 실직주의 소재지는 삼척군으로 개명(改名)하여 태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이후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삼국사기』 제35 지리2를 보면

“삼척군은 본래 실직국인데 파사왕 때에 항복하였다. 지증왕 6년에 주(州)로 만들어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고,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 그대로 부른다. 그 아래 소속된 현은 넷으로 죽령(竹嶺)현은 본래 고구려의 죽현(竹峴)을 개명하였으나 지금은 미상이고, 만경(滿卿, 또는 滿鄉이라고도 함)현은 본래 고구려의 만약(滿若)현을, 우계(羽谿)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곡(羽谷)현을, 해리(海利)현은 본래 고구려의 파리(波利)현을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은 미상하다.”고 하였으니 당시의 지명과 행정 구역의 변천상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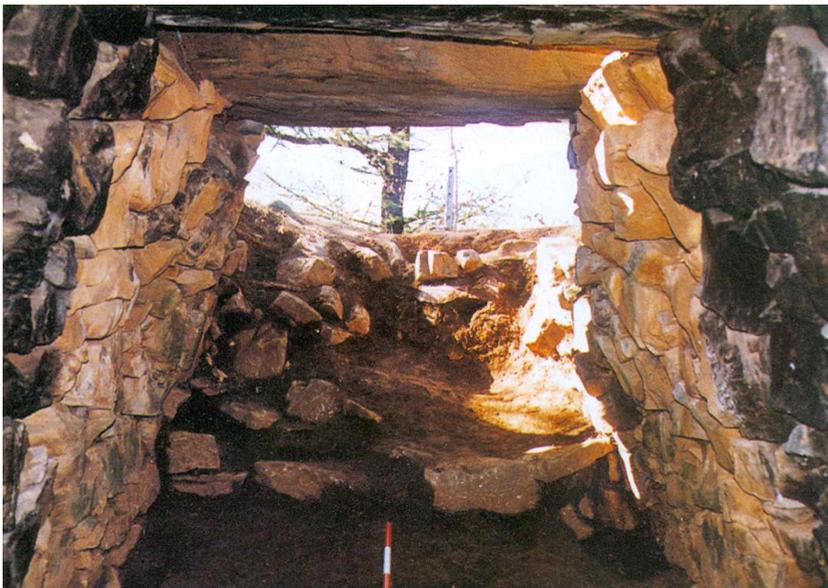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 지역에 크고 작은 초기국가 형태의 나라들이 생겨나던 당시에 우리 고장 삼척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직국이라는 강력한 세력권을 유지했던 군장국가가 성립되어 한 때는 주변 소국을 병합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먼저 팽창을 시작한 신라의 조공 관계적인 복속을 받았고, 한때는 고구려의 영향하에 놓였다가 마침내 신라에 완전히 병합되고 말았다.

지금도 실직국의 치소였던 삼척에는 실직(悉直)에서 음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직(史直)과 어정(御井, 임금이 마시던 샘)에서 유래했다는 ‘어물리’라는 지명과 당시의 고분군 그리고 실직국 때의 성터라고 전해오는 갈야산성(葛夜山城) 등의 유적이 남아있어 당시의 위상을 말해주는 듯하다.⁹⁾



갈야산 고분군 출토 유물 토기류



삼척 사직동 고분군 1호 내부

9) 삼척지역에 진출한 신라와 관련한 아래 사진은 다음 보고서에 각각 실려있는 사진을 전재하였다.

김일기, 「三陟 葛夜山 出土 新羅土器」 『江原史學』 4輯, 강원대학교사학회, 1988.

관동대학교 박물관, 『三陟 城北洞 葛夜山 古墳群』, 학술총서 13책, 2003.

관동대학교박물관, 『三陟 史直洞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학술총서 13책, 1994.

3) 고려시대의 삼척

고려시대 초기 삼척의 행정 변천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지방호족들의 자치에 맡겼던 듯하며, 성종2년(983년)에 12목과 병마사제도가 마련되면서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삼척은 동북면병마사의 관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다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성종14년(995년)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강원도는 함남, 경기, 경북의 일부를 포함하여 삭방도(朔方道)라 했다. 이 때 원주와 그 속현인 영월과 평창의 일부는 중원도라 하여 오늘날의 충청도에 속했으며 원주가 강원도에 속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도 아래에는 고을을 그 크기에 따라 도단련사(都團練使), 단련사(團練使), 자사(刺史) 등을 두어 다스리게 했는데 강원도는 회양, 철원, 강릉 그리고 삼척(당시의 지명은 척주)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어 다스렸다.

현종9년(1018년)에 다시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되어 4도호(都護).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의 외관조직을 갖출 때는 삼척현이 되었는데 이 때 지금의 옥계인 우계현(羽谿縣)이 명주로 이관되었다. 공민왕22년(1373)에는 현령 대신 안집중랑장(安集中郎將)이, 우왕3년(1377)에는 다시 군으로 승격하여 지군사(知郡事)가 다스렸다.

이처럼 현종9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현으로 강등되었던 삼척이 공민왕 말년에 들어서 다시 그 지방장관의 위상이 다소 높아졌고 이어서 우왕 때 군으로 승격된 것은 동해안에 왜구의 출몰이 잦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나는 동해안의 왜구 출몰 기록을 보면 공민왕7년(1358년), 공민왕23년(1374년), 우왕7년(1381년), 우왕8년(1382년), 우왕12년(138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는데 그 때마다 삼척이 그 침범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해류의 흐름이 삼척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왕10년(1384년)에 삼척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지군사로 하여금 수군을 지휘하는 만호(萬戶)를 겸직하게 한 것도 왜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4) 조선시대의 삼척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를 보면 도의 관찰사 밑에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으로 나뉘어 있었다. 강원도에는 최고위직인 부윤(府尹종2품)은 없었다.

영동지방의 경우 대도호부사가 파견된 곳은 강릉뿐이고 삼척과 양양 두 곳에만 도호부사가 파견되어 다스렸다. 참고로 영서의 경우 대도호부사가 파견된 곳은 없고 원주에는 같은 정3품이나 한 단계 낮은 목사(牧使)가 그리고 춘천에는 도호부사가 임명되었다.

조선시대 삼척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태조2년(1393년) 목조(穆祖)의 외향이라 하여 삼척부(三陟府)로 승격되었고 태조6년(1397년)에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鎭)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소속된 부근 고을의 병마를 거느려 수어(守禦)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강원도에는 삼척과 간성에 각각 진을 두고 부사가 첨절제사를 겸직하게 하였다. 태종13년(1413년) 삼척부(三陟府)를 삼척도호부로 개명하고 종3품의 관원이 부사로 임명되었다. 세종3년(1421년)에는 삼척진의 첨절제사를 병마사로 개명하고 도호부사가 겸직하였다. 세종4년(1422년) 삼척진의 병마사를 다시 병마수군첨절제사로 개명하고 부사가 겸직하였고 이로부터 삼척진은 강릉진관(江陵鎭管)에서 분리되었다. 세조12년(1466년)에는 부사가 겸직하고 있던 삼척진병마수군첨절제사를 분리하여 단독 진장(鎭將)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삼척포가 수군첨절제사 진(鎭)으로 편성될 때 고성포, 안인포, 울진포, 월송포 등 4개의 만호영(萬戶營)을 거느린 것으로 되어있다.

성종6년(1475년) 강릉·삼척·울진·평해의 16개역을 관장하는 교통행정 구역인 평릉도의 소재지를 평릉역에서 교가역으로 옮겼다.

인조9년(1631년)에는 도호부 관내를 9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는데 매곡, 부내, 노곡, 덕번, 북평, 박곡, 미로, 소달, 장생의 9개리가 그것이다.

조선 후기 강원도의 군사조직은 관찰사 밑에 4개의 영(營) 두었다. 철원 부사가 겸임한 방어영(防禦營), 춘천부사가 겸임한 좌영(左營), 횡성현감이 겸임한 중영(中營), 그리고 삼척의 우영(右營)이 그것이다. 삼척에는 영(營)

을 지휘하는 영장(營將)을 따로 두었으며, 처음으로 배치한 것은 현종13년(1672년)의 일로 삼척포첩절제사가 겸직하게 하여 영동 9개군 즉 통천, 고성, 흡곡, 간성, 강릉, 삼척, 울진, 평해, 월송의 수륙군의 병권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음해인 현종14년(1673년)에는 삼척영장이 토포사를 겸직하게 하여 영동 9군과 울릉도의 치안도 담당토록 하였다.

영조14년(1738년) 다시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져 관내의 9개 지역을 12개 면으로 나누었으니 말곡, 부내, 노곡, 근덕, 원덕, 미로, 소달, 상장성, 하장성, 견박곡, 도상, 도하의 12개면이다.

5) 현대

태종13년(1413년) 전국을 8도로 나눈 이래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커다란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고종32년(1895년) 이른바 을미개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다. 전국을 23부 331군으로 고쳤는데 이 때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분리하여 영동지방은 강릉부(江陵府)가 설치되어 영동 9군 즉 강릉, 삼척, 울진, 평해, 양양, 간성, 고성, 통천, 흡곡을 관할하였다. 영서지방은 춘천부(春川府)가 설치되어 영서 13군 즉 춘천, 양구, 인제, 낭천, 김화, 금성, 회양, 평강, 철원, 홍천, 횡성, 양근, 지평을 관할하였다. 이 때 삼척은 삼척도호부에서 삼척군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고종33년(1896년)에 23부제를 폐지하고 다시 전국을 13도로 개편하였는데 이 때 삼척에는 행정적인 변동은 없었으나 영동 9군의 군무를 총괄하던 삼척포진과 영동의 교통행정체계인 평릉도 제도가 폐지되었다.

삼척포진은 고려 우왕 때 수군 기지가 설치된 이후 고종33년(1896년) 폐지될 때까지 500년 이상에 걸쳐 동해안을 진수하는 중심 기지가 되어왔다. 그것은 삼척의 오십천 하구는 수심이 깊고 자연 방파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수의 공급, 연병장, 조선을 위한 우수한 재질의 목재 산출 등 수군기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항구였기 때문이다.

1914년 관내 12개 면(面)중 부내와 말곡을 합하여 부내면으로 도상·도하·

견박곡을 합하여 북삼면으로 하였다. 부내면은 1917년 삼척면(三陟面)으로 다시 1938년 삼척읍(三陟邑)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북삼면에서 읍(邑)으로 승격되었던 북평읍이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통합되어 동해시로 분리되었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로 분리되었다.

1986년 삼척읍이 삼척군에서 분리되어 삼척시(三陟市)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삼척군과 삼척시(三陟市)를 합하여 삼척시로 개편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동안 이승휴 선생과 『제왕운기』

사적 제421호

소재지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은사 내(內)

1) 시대 배경 (고려 후기 사회)

고려 후기 사회는 무인정권과 몽골의 침입 그리고 충렬왕대에 확립된 원의 정치적 간섭과 공민왕대의 반원적 개혁 정치라는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이는 당연히 신분제의 변동과 더불어 조세 수취방식의 변질 등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특히 일반 백성들에게는 공민왕과 우왕의 통치기에 이르러 이미 극복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곧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흉년이 들어서 굶어죽은 자가 절반이나 되었으며, 길가에 버린 시체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한적인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승휴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존의 귀족문화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때에는 강계의 난, 몽골의 침략과 몽골에의 복속으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와 신분 계층간의 변동기에 중앙 관계로 진출하려는 일군 사인(士人)이 있었다. 이들은 ‘능문능리(能文能吏)’의 교양과 능력을 토대로 사회 변혁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면서 그 시대를 계도해 간 신진사대부였다. 이들은 유학을 정신적 근간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광세재민하고 들어와서는 수신제가하는 의식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승휴와 같은 초기 신진 사대부는 그들의 불안정한 정치적 위치와 미숙한 사상으로 인해 불교적인 사회풍토를 개혁하는 배불론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과 행동체계를 구체화하였다.

2) 이승휴 선생의 생애

고려말의 유명한 학자이자 충신인 이승휴가 민족의 역사서인 『제왕운기』를 지으신 곳이 바로 두타산 자락에 있는 미로의 천은사였다.

『제왕운기』는 당시 지금의 천은사 자리에 ‘용안당’이라는 초막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이승휴는 몽고의 지배 아래 자주성을 잃고 허둥대는 집권층과 그 가운데 고통받으며 점점 나약해져 가는 고려 백성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높은 뜻을 품고 지은 것이다.

이승휴는 최씨 무신정권이 극에 달하던 고종 11년 1224년에 태어나 몽골의 침입에 몸소 저항도 하고, 무신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몽고의 지배를 직접 겪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참으로 훌륭한 대기만성형의 선비였다.

처음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 나이 29세 되던 해 봄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늦은 나이였다. 그나마도 직접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가 급제의 기쁨을 안고 홀어머니가 계시는 외가인 삼척으로 내려온 동안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인 강화도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다.

이 때 이승휴는 삼척 지방 주민들과 함께 요전산성에 들어가 몽골에 대항하였다고 그의 저서인 동안거사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이승휴 자신이 울릉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소감을 시로 남겼으니 바로 ‘무릉도를 바라보면서’라는 제목의 시이니 무릉도는 지금의 울릉도를 말한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가지 못한 채 두타산 아래 구동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12년간을 머무르던 이승휴가 비로소 관직에 발을 내디딘 것은 그의 나이 41세 때였다. 첫 관직인 지금의 강릉인 경흥도호부의 서기를 시작으로 식목록사, 원행 사신의 서장관, 합문지후, 감찰어사, 우정언, 우사간, 양광, 충청도 안렴사, 전중시사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요직을 거쳤다는 점이 아니라 솔한 질서와 반대로 파면과 복직을 거듭하면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도를 지켰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전중시사로 있던 나이 57세 때인 1280년에는 당시의 왕인 충렬

왕의 실정과 세력가인 부원배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면되기도 하였다. 파면당한 이승휴는 미련없이 관직을 버리고 외가인 삼척으로 돌아와 두타산 아래 구동에서 머무르며 -위진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의 구절에서 따온 이름의 초막인 용안당을 짓고 유유자적한 생활 속에 독서와 저작을 즐기며 살던 중 뜻한 바 있어 불후의 명저인 『제왕운기』를 쓰셨으니 낙향한지 7년 뒤인 1287년 나이 64세 때의 일이었다.

한편 원행 사신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원나라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당시 이승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라서 재주가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사행 명단에서 빠졌다. 이를 안 원종 임금이 예전 선생의 충성스러운 일을 보고 그의 이름을 벼루 갑에 적어두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친히 술과 안주를 내리시며 간곡히 권유하실 뿐만 아니라 집이 가난함을 아시고 백금 3근을 여비에 보태라며 하사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이승휴의 재주와 충성심과 청렴결백한 성품을 알 수 있다.

이승휴는 원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때 이승휴가 지어 원나라 황제에게 올린 글이 얼마나 명문장이었던지 황제가 무려 세 번이나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최고 학자로 불리던 한림학사 후우현을 비롯한 원나라 조정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입을 모아 문장이 중국을 감동시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일행이 돌아오자 원종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집무실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후한 상을 내리시고 최고 사신을 특진시키고 이어 이승휴가 지은 글을 직접 읽어보시고는 관직이 없이 따라갔던 이승휴를 잡직서령 겸 도병마녹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3) 이승휴 선생의 『제왕운기』 소개

이처럼 고려말의 유명한 학자요 관리인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쓴 목적과 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대내적으로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국왕과 신하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으로 허물어져 가는 나라와 백성들의 자주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승휴는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를 중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를 무대로 활약하던 우리 조상들이 세우셨던 여러 나라들의 관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정립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 역사에 포함되지 못했던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민족사에 당당히 올린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득공이 쓴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무려 5백년 가량이나 앞선 것이다.

『제왕운기』란 책이름의 뜻은 제는 황제의 제로 중국을 나타낸다. 그리고 왕은 우리나라의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나타낸다. 그리고 뒤의 운기라는 말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시나 노랫말 식으로 적었다는 뜻이다.

『제왕운기』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제왕운기』는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신화시대인 반고와 삼황오제부터 하.은.주의 삼대와 진.한.위.진.송.제.양.진.수.당.5대.송.금에 이어 원에 이르기까지 7언시로 썼고, 하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2부로 나누어 전반부인「동국군왕개국연대」는 지리기를 시작으로 단군의 전조선.기자의 후조선.위만조선.진한, 마한, 변한의 삼한과 이를 계승한 신라.고구려.백제의 3국과 후고구려.후백제.발해까지 7언시로 썼고 후반부인「본조군왕세계연대」는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충렬왕 때까지 5언시로 썼으니「동국군왕개국연대」의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며「본조군왕세계연대」의 본조는 본 왕조의 준말이니 당시의 고려를 말하며 세계는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니 쉽게 말하면 고려 왕조의 역사란 뜻이다.

4) 동안 이승휴 선생의 불교관과 간장사(看藏寺)

고려후기의 거사들을 정의한다면 도(道)에 관심을 갖고 수행에 힘쓰며 생활하였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불교신자(在家佛教信者)는 공경대부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가불교신자들의 활동이 내포한 사회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승휴의 불교관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을 중심으로 한 재가 신자들은 국가·사회의 어려움을 타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각종의 불교 의례를 주관하였다. 고려시대에 불교 의례가 개설되었던 목적은 불교가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점에서 벗어나 인간사의 구체적 관심사에 대응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왕경』과 『금광명경』에 의한 의례의 개설 목적을 보면 고려 사회의 제 문제를 불교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휴의 『동만거사집』에 수록된 「간장사기」에 실린 불교에 대한 인식은 당시 거사 불교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이승휴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사회적인 면에서 재가불교신자(在家佛教信者)들은 재시(財施; 재산을 사회에 나눠주는 활동)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여기서 재시(財施)는 재가불교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단합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간장사기(看藏寺記)」에 보면 이승휴가 약 10년간 삼화사에서 1000상자의 불경을 빌려 읽은 후 71세인 충렬왕 20년(1294)되던 해에 홀연히 용안당(容安堂) 간판을 간장사(看藏寺)로 개칭하고 승려가 주석할 받을 희사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용안당을 간장사로 바꾸면서 이승휴는 왕실이 평안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또한 국왕이 성세를 누리며 승평의 곡조가 연주되는 것을 길이 즐기도록 축원하였다는 기록은 그가 국가·사회적인 면에서 재시(財施) 활동을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셋째, 이승휴는 삼화사 불경 열람을 마친 후 간장사를 만들고, 그가 읽은 불경 내용 또는 불서 해제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내전록』을 충렬왕 24년(1289년) 무렵에 저술하였다. 내전(內典)은 유교 서적인 외전(外典)에 대비되는 의미이므로 불교 서적 목록을 정리한 서적일 가능성이 크며, 저술한 배경은 재가불교신자로서 하여야 할 사회·문화적 책무라 여기고,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여겨서이다.

넷째, 「간장사기」를 작성할 당시에는 현실 문제 해결과 역사 인식에서 불교에 의탁한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나, 몽산덕이가 법어를 내려준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한 시를 통해 참선을 중시하는 이승휴의 불교 인식이 말년에 좀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참선, 자기 수양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몽산덕이와 교류한 이승휴는 몽산덕이와의 교류 이후 참선과 화두를 기저로 한 불교 인식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천은사 내 동안사에서 거행된 동안대 제에 참석한 분들



이승휴 다례제에서 최선도 이사장님 헌화(獻花)

이승휴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 기반하여 종교적인 실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였고, 이를 통해 그의 불교관은 고려 후기 재가불교신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승휴를 비롯한 재가불교신자들의 불교 인식과 활동은 고려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으로 기능하였고, 비록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창된 이후에는 그 영향이나 활동이 축소되어 갔으나,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5) 간장사[看藏寺(看藏庵)]의 위치

현재의 천은사(天恩寺)가 이승휴가 편액을 건 간장사(看藏寺)와는 별개라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天恩寺는 이승휴와 관련되는 간장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음은 위에서 논증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동안거사집』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천은사는 현재 이승휴 유허지와 관련하여 국가 사적 4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충렬왕 때 고쳐야할 폐단 10개조를 올린 후 파직된 이승휴는 삼척에 내려와 두타산 자락인 구동 즉, 현재의 미로면 내미로리 天恩寺 경내에 용안당을 세우고, 경진년(1280년) 10월에서 기축년(1289년)까지 약 10년간 삼화사에서 1000상자의 불경을 빌려 읽은 후 71세인 충렬왕 20년(1294)되던 해에 홀연히 용안당(容安堂) 간판을 간장사로 개칭하고 승려가 주석할 발을 희사하였다는 내용이 실린 「간장사기(看藏寺記)」, 그리고 이승휴의 아들에 의해 중수된 후 둘째 아들인 담육의 요청으로 최해가 쓴 「간장암중창기(看藏庵重創記)」가 전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각종 지리지에 이승휴·간장사[간장암]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간장사기」와 「간장암중창기」를 원용하고 있다.

「보광정기(葆光亭記)」에 용안당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 1]

구산동을 가로질러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용계다. 용계 양쪽 가를 따라 밭 2경이 있으니, 이것은 동안거사 외가에서 전해오는 시지이다. … 잘록한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심용슬지이안’이란 글귀를 취하여 ‘용안당’이라 이름했다.

「간장사기」에 간장사와 용안당과의 관련성, 절의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자료 2]

- 간장사란 옛날 용안당이요, 용안당이란 동안거사가 해장을 열람하려고 지은 것이다.
- 이 절은 경역이 마을과 접하여 그다지 외로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

「간장암중창기」에 실린 ‘간장암’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3]

‘… 지금은 이를 희사하여 인사(仁祠 ; 절)가 되었으니, 어찌 증축하여 높이지 않으랴’하고, 이에 서로 더불어 역량을 모아서 건물을 좀 더 크게 넓히고 단청도 영롱하게 하여 옛날보다 사치스러워졌다.

「병과시(病課詩)」에도 이승휴가 거주하였던 장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자료 4]

두타산 구동 용계(龍溪) 곁에 모옥(茅屋)을 지어 살면서 직접 밭 갈며 어머니를 모셨다.

위에서 소개한 [자료 1], [자료 4]를 통해 이승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면서, 말년에 용안당을 지었던 장소가 삼척에 위치한 구동(龜洞, 龜山洞) 용계(龍溪) 부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왕선은 이에 대하여 동해시 무릉계에 용추가 있기에 무릉계곡을 용계로 비정하여 현재의 삼화사가 위치한 곳을 구산동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비정할 지명으로 신왕선이 소개한 대문수, 포포천, 용추, 구산 등의 지명을 확정할 만한 논리보다는 조선시대에도 언급된 적이 없이 최근에 회

자되는 지명을 소환하여 전개한 추론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명을 현재 사용한 사례를 신왕선이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왕선의 주장이 공인되기 위하여 용계와 구동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용계와 구동[구산동] 관련하여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서 현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은사 입구에 있는 일주문 우측 산 비탈에서 ‘구(龜)’자가 새겨진 바위를 본 적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그리고 천은사에서 선음산에 오르는 길은 계곡인데, 이 계곡을 마을에서 ‘용소골[龍沼谷]’이라 부른다. 이 용소골에 있는 용소에서 선음산에 올라가기 힘든 마을 주민이 산맥이를 한 사례도 확인하였다.



천은사에서 선음산으로 오르는 길 옆의 용소골 용소에서 산맥이를 하는 장면(2007년)

이승휴가 용안당을 지었고, 이후 간장사라고 편액을 건 곳이 현재의 천은사임을 위에서 앞선 항목에서 논증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 2]를 보면 당시 간장암이 마을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은사 경내에서 청자 도요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현 주지스님 거쳐인 용안당 건물 뒤편의 동북쪽으로 난 당시의 암자인 화엄암과 부도군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편인 산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유구는 전체 1개소로 북서-남동향의 자연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는 길이 남-북 320cm, 동-서 440cm의 규모로 평면 장타원형의 소규모 가마이다.

수습된 유물들 중 대접이 가장 많으며 그 외의 접시, 완, 도지미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이 가마는 12~13C에 사용한 가마로 추측된다. 이것으로 보아 이승휴가 이곳에 용안당을 짓고 은거하며, 불경을 읽는 등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에도 사용되었던 가마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 그리고 현재 전하는 지명과 위치, 그리고 현재의 천은사 경내에서 발굴된 청자 도요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승휴가 불경을 읽으면서 지낸 용안당(이후 간장사)은 현재의 천은사 사역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논증하기 위해 '중대', '대문수', '포포천' 등의 위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6) 동안 이승휴 선생 활동 요약

- **관료로서의 활동** : 감찰·연관의 역할을 특히 많이 함.
/ 백성들 편에서 행정 처리
- **외교 활동(서장관)** : 중국(원) 치켜세우면서도, 노구교 칭송하면서도
고려의 자주 의식 강조
- **『제왕운기』**
 - : 중국 역사 서술에서 자치통감 류의 의식 (춘추 + 정통의식 강조)
 - 단군을 국조로 이후 이어지는 초기 국가들
 - 신라·발해 → 고려로 이어지는 정통 의식

- 불교 : 수선사 계열(지눌 / 사굴산파 - 삼화사 연결)
/ 실천 강조하는 계보임.

7) 동안 이승휴 선생이 지닌 정신 요약

- ‘민족 + 백성’ 위한 지식인으로서의 실천하는 자세 중시
(관료로서 행동 중시 → 動安居士, 動安居士行錄)
- 백성을 중시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많이 보임.
- 자주성 강조 + 정통 의식 + 부패 관료와 척신 척결 의지

⇒ 국가와 민족, 백성을 위하자

(그가 생각한 세상을 열기 위해)

- 왕권 안정 필요
- 고려의 정통성 확보, 부패 관료 척결 의지,
원에 대한 일정 부분 타협, 왕실 권위 확보 노력
- 이러면서도 발전적인 방안 고민 (선진 문물 등에 대한 찬양)
- 사상적 기저 : 도교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경향 드러냄
(유학에서의 실천성, 불교에서의 실천적 불교 경향)

Ⅱ.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

1. 천은사와 금동약사여래입상·목조아미타삼존불상

‘백련대白蓮臺(백련암白蓮庵, 백련사白蓮寺)’라고도 불리웠던 천은사天恩寺는 이후 ‘간장사看藏寺(간장암看藏庵) → 흑악사黑岳寺’를 거쳐 현재의 사명인 천은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은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의 기록인 「간장사기」·「간장암중창기」와 함께 조선시대에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 『두타산삼화사고금사적』, 「천은사기실비」, 목조아미타삼존불을 개금改金하는 과정에서 나온 「중수기」, 「아미타불원문」¹⁰⁾, 「삼존상개금후불탱개채원문」¹¹⁾, 천은사를 소재로 채제공 등이 남긴 시, 준경묘·영경묘를 수축할 때 천은사에 내려 준 「완문」과 「수호절목」 등이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 천은사의 창건 유래와 사명의 변화 과정, 역사성을 잘 알 수 있다.¹²⁾

현재 천은사 사역寺域은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승휴 선생을 모신 동안사와 함께 주불전인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삼성각, 약사전, 설선당(인법당), 영월루, 범종각, 용안당, 육화료가 있다.

석물石物은 극락보전 앞에 오층석탑과 석등 2기가 있으며, 부도는 용안당 좌측 언덕에 배치되어 있다. 소대는 극락보전과 약사전 사이의 뒤에 설치하였고, 헌식대는 소대 좌측에 있다.

10) 極樂寶殿의 阿彌陀佛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嘉慶 三年 戊午(1798)에 改金 후 작성한 것임.

11) 極樂寶殿의 阿彌陀佛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1922년 작성한 것임.

12) 천은사의 창건 설화와 역사, 그리고 寺名 변화 과정 등에 대하여 ‘1) 천은사의 역사’ 항목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기에 이를 참고하기 바람.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천은사 극락보전

1) 천은사(天恩寺)의 역사

천은사는 천년 고찰로서 불자들을 위한 신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지니고 법등을 이어 왔다. 구체적으로 천은사가 지닌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천은사 경내에서 출토된 금동약사여래입상은 통일신라 최전성기의 양식을 계승한 유물로서 영동 남부지역의 불교문화사에서도 최고(最古)의 유물이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약사신앙이 전파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최초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목조아미타삼존불(木造阿彌陀三尊佛)은 복장물(腹藏物)로 발견된 중수기(重修記)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양식 또한 고려 후기 단아양식의 불상을 계승한 조선전기의 불상에서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둘째, 나름대로의 민족의식과 역사적 정통성을 내포한 이승휴의 대표적인

저서인 『제왕운기』를 저술한 곳이 용안당(容安堂), 즉 간장사(看藏寺)이고, 이는 현재의 천은사이다. 따라서 이곳 천은사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이승휴 선생이 10여년 이상을 머무르며 『제왕운기』를 저술한 유서 깊은 사찰이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제왕운기』에는 중국의 역사를 상권에 먼저 기록한 후 하권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점이라든지, 단군조선의 시작을 중국과 같은 B.C 2333년으로 저술한 사실들은 그가 유학자이고 역사가이기 이전에 그의 생애와 생존했던 시기(1224~1300)가 민족 사상의 일대 격변기에 위치한다는 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¹³⁾

셋째, 천은사는 인근의 준경묘와 영경묘를 수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축 후 조포사(造泡寺)로 지정되어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등 원찰(願刹)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은사는 법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축 이후 1899년에 능침수호사찰로 지정되었으며, 치제(致祭)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조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148호

소재지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오대산 월정사 보관]

1985년 천은사 사찰 구역 내에서 출토된 소형금동불로서 대좌의 일부만이 결실되었고, 얼굴은 다소 마모되었다. 원래는 도금을 하였으나 거의 박탈되고, 흔적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이 불상을 근래에 더 크게 모방·조성하여 천은사 경내 약사전에 봉안하였다.

그러나 속옷(內衣)의 대각선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으로 내려오고, 띠매듭, 띠자락이 없는 등 차이가 나고 있다. 원래의 불상은 주지 스님(문

13) 김도현, 「이승휴의 생애와 관련 유적」, 『이승휴와 제왕운기』, 동안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 2004, 31쪽.

일봉 선사)이 보관하다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불상의 크기는 불신(佛身) 10cm, 대좌(臺座) 4cm로 전체 14cm이다.

이 불상은 백발(白髮)에 크고 둥근 육계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은 마모로 인하여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으나 살이 오른 원만한 상호이다. 왼손은 약합(藥盒)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허리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다. 약합은 일반적인 둥근형이 아니고 약사발형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대의(大衣)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

는 통견이며, U자형으로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주름선은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즉 불상의 하반신에 나타나는 주름이 U자형으로 잡히는 이른바 아육왕(阿育王, Asoka)식 여래상이다. 속옷은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경사져 있고, 띠매듭이 있어 띠자락 2개가 아래로 벌어져 있다.

불상은 약합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임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 걸쳐 약사여래가 유행하는데, 석불일 경우에는 주로 좌상, 금동불일 경우에는 주로 입상으로 만들어진다. 약합은 일반적으로 둥근 모양 또는 둥근 모양에 두경을 의미하는 선을 윗부분에 그리는 반면에 천은사 금동불은 윗면이 편평한 사발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천은사 금동불은 상호, 신체와 대좌의 비례가 조화를 이루어 인체 표현에 가깝다. 불상의 편년은 마모가 심하나 탄력과 생명감, 표현력이 있고 단정하여 통일신라 양식의 절정기와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은 상호, 법의, 왼쪽 손목 뒤로 넘어가는 대의, 띠매듭, 대좌 등의 양식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신라 하대의 후기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통일신라의 조각술은 8세기 중엽에 절정에 달하는데, 이 시기 즉 최전성기의 사실적 경향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약사불신앙은 약사불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 가지 병환, 재난(災難)이 제거되고, 무명(無明)과 번뇌가 해소되며,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부처님을 믿

는 것이다. 약사부처님은 한 손은 마구니를 격파하고 또 다른 한 손에 있는 약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매우 현세구복적이고 대중신앙적인 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800년경을 전후로 하여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약사신앙과 역병(疫病)과의 관계를 짐작해 볼 때 약사불상이 800년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된 사실과도 부합된다. 통일신라 하대에 약사불상이 많이 조성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귀족들이 서로 대립 항쟁하는 내란기가 계속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사불이 신앙되고 약사불 조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경덕왕 이후 특히 8세기말에서 9세기 중엽까지인데, 이 시기는 기근과 재해, 질병과 내란이 계속되던 재난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 후기에 들어와서는 비로자나불상이 주류를 형성해서인지 약사불상은 전기에 비하여 현격하게 줄고 있다. 이 점도 천은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의 편년을 설정할 때, 그 하한을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147호
소재지 :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은사 극락보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삼존불(木造阿彌陀三尊佛)은 1948년 동짓달 천은사(天恩寺)에 화재가 나서 주요 법당이 불에 타 없어지고, 산신당, 조사전, 화엄암만 남게 되자, 이 불상을 삼척시내 삼장사(三藏寺)로 옮겼었다. 그 후 현재의 주지 스님인 운허당 일봉선사가 다시 천은사로 모셔왔다.



삼존불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천은사 극락보전 내 목조아미타삼존불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觀音菩薩)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이 협시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불신(佛身) 높이 약 100cm, 무릎 폭 약 74cm로 두부와 상체, 하체간의 비례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관음보살상은 본존과 매우 흡사하다. 보살이 입는 천의가 아니라 불의(佛衣)를 입었고, 수인.상호.법의 모두 전체적으로는 본존과 동일하다. 다만 오른쪽 어깨를 덮는 반달형 법의는 반단양식이 아니며, 가슴부분의 N자 주름도 변형되었다. 지장보살상은 머리를 깎은 승려머리(민머리)이다. 지장보살 역시 불의(佛衣)를 입었고, 수인.상호.법의 모두 전체적으로 본존과 흡사하다.



천은사 극락보전 내 목조아미타삼존불 본존(阿彌陀佛)

관음보살처럼 오른쪽 어깨를 덮는 반달형 법의가 반단양식이 아니고, 오른쪽 가슴 부분의 N자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 왼쪽 팔꿈치 위의 ㄱ형 주름도 직선화되어 있다. 가슴에는 관음보살상의 치레장식과 동일한 목걸이를 하고 있다.

이 삼존불은 지장보살이 승려 머리로서 조선후기에 유행하는 형식의 선구를 보이고, 불화가 아닌 조각으로서의 반단양식도 빠른 편임을 예시하고

있는 양식사적인 의의가 있다. 동시에 고려 후기 단아양식의 불상이 조선 전기를 거쳐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양식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조선 전기의 삼존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6년 12월 14일 천은사 아미타불의 복장(腹藏)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하여 천은사 극락보전(天恩寺 極樂寶殿)에 봉안된 아미타불의 복장(腹藏)내에서 만력24년세차병신년(萬曆二十四年歲次丙申年)에 제작된 중수기(重修記).천수다라니경 목판본. 강원도 삼척부 두타산 흑악사(黑嶽寺) 각판(刻版). 서천불설팔만대장경목록(西天佛說八萬大藏經目錄).아미타불원문(阿彌陀佛願文).시주질(施主秩).삼존불개금발원문(三尊佛改金發願文).삼존상개금후불정개채원문(三尊像改金後佛禎改彩願文).서천불설팔만장경목록. 강원도삼척군천은사극락전개금시주기(江原道三陟郡天恩寺極樂殿改金施主記).‘성주사인(聖住寺印)’이 있는 능엄경. 묘법연화경을 포함하는 다량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특히 ‘만력 24년(萬曆 24年)’이라 쓰여진 「중수기(重修記)」를 발견함으로써 목조아미타삼존불 조성시기의 상한선이 실증적으로 올라가서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또한 1798년과 1922년에 작성된 원문(願文)을 통해 당시 천은사와 인근 사찰의 사세(寺勢)와 불상·불화의 개금(改金)과 개화(改畫) 과정, 참여한 화사(畫師)를 통한 강원도 지역 불교미술의 계보 정리와 함께 천은사의 연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다라니와 불교 부적이 새겨진 목판으로 찍은 진언, 개인적으로 필사한 서천불설팔만대장경목록(西天佛說八萬大藏經目錄) 등을 통해 밀교적인 경향도 나타난 당시의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복장에서 나온 목판 인쇄물은 1456년에 조성된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중대사자암 목조비로차나불 범서(中臺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 梵書)’라 명명된 목판 인쇄물과 함께 조선시대에 강원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불교 부적 형태와 그 사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삼척시 도계 흥전리사지와 3층석탑재

국가 사적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 290-3번지

삼척 흥전리 사지는 삼척시에서 태백시로 넘어가는 38번 국도로 가다가 도계읍 흥전리에서 서쪽 매바위골로 들어가 산을 향해 올라가면 산 중턱의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 290-3이다. 현재 ‘절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그러나 흥전리 사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한산사지(寒山寺址)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다. 한산사지에 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관찬(官撰) 지리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사찬(私撰) 지리지인 『삼척군지』, 『척주지』, 『진주지』에는 한산사가 고려·조선시대에 존재한 사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매봉산 중턱에 자리잡은 이 곳 절터는 『삼척군지』(1916년)이후 각종 지리지에 고려·조선 시대에 존재하였던 ‘한산사’라는 사찰로서, 약 300여년전(『삼척군지』 발간 시점 기준)에 산불로 소실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산사지와 절터내 유물들은 시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흥전리사지’라 부른다.

이 절터[사지(寺址)]에서 발견되는 석재와 유물들은 문헌 기록과 달리 통일신라 말 고려 초기 유물로 볼 수 있고, 유물의 중심 시대는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물은 불교미술사와 태백산 문화권 영역 규명에 사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시론 차원의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삼척시의 흥전리 사지가 태백산 북쪽 사면에서 최초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속하는 절터이며, 영주-봉화-태백-삼척을 잇는 문화 전파의 교통로를 추정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흥전리 사지 외에는 통일신라시대 불교 유적·유물들이 태백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까닭에 일종의 가설이었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에 속하는 태백시의 본적사지 석탑과 유물이 조사되어 이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다. 즉 이들 불교 유적·유물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자장의 행적과 함께 태백산 지역이 신라시대-통일신

라시대에 북방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 거점 역할을 하였음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발굴한 결과, 층단식 건축대지의 산지가람, 금당지, 탑지 등 단탑식 가람 배치를 확인하였고, 동원에 밀집된 대규모 건물지군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통(國統:층단의 최고 통솔자)’명 비석편과 꽃무늬가 선으로 새겨진 청동제 장식, 당초문·연화문 등이 새겨진 다량의 암·수막새, 일반건물에서는 보기 힘든 귀면와(鬼面瓦)와 곱새기와 등의 특수기와를 비롯해 철제 초두(鏹斗:다리가 세 개 달린 긴 자루의 작은 솥)와 철호(鐵壺:쇠항아리) 등이 출토되었다.¹⁴⁾

유적은 태백산에서 느릅재를 지나 삼척으로 향하는 주 교통로 옆에 위치하며, 이곳은 백두대간이 낙동정맥과 낙남정맥으로 나뉘며 영남문화와 영동문화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해당한다.

탑의 양식과 선문계 기와 파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어골문·격자문 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명맥을 유지하였던 사찰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석탑재

절터 주변에는 탑재와 석등재, 비좌, 주초석 및 기타 석재가 ‘동-서’로 쌓은 축대를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다. 수습된 탑재를 중심으로 석탑을 추정 복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부는 4개의 장대석으로 결구된 지대 위에 삼층기단을 형성하였다. 하층기단은 4구의 안상이 조식된 장대석 4매를 방형으로 결구하였고, 중층기단은 중대 저석과 중대 중석이 동일한 석재로 각 면 1매 석씩이고, 그 위에 판석으로 된 중대 갑석이 놓인다. 상층기단 면석은 각 면 1매씩이고, 상대 갑석과 갑석부연은 동일한 판석으로 만들어졌다. 두 갑석 상면에는 각호각 3단의 괴임 받침이 있다.

또한 상층기단 과 중층기단의 각 면에는 탕주가 1주씩이며 양 끝에 우주

1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 현장보고회 자료집」, 2014.



금당과 거북모양 탑 받침

려하여 추정 복원한 높이는 지대석 하단에서부터 3층 옥개석까지 약 3.92m로 예상되고 있다.

탑의 건립시기는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라말 고려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말 9세기 후반 선종의 유행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단부가 3층이라는 점에서 그 예가 드문 석탑이고, 태백산 지구의 불교 유적들과 그 궤를 같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강원 북부 지역으로의 불교문화 전파 경로와 시기를 추측하고 이들 문화권 사이의 공백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¹⁵⁾

가 있다. 탑신부에서는 옥신석 2기, 옥개석 3기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1석의 석재로 만들었다. 옥개석의 층급 받침은 4단이고 옥신 괴임은 각형 2단이다. 가장 작은 옥개석에 찰주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륜부는 결실되어 찾지 못하였다.

동 시기의 석탑과 체감비율을 고

려하여 추정 복원한 높이는 지대석 하단에서부터 3층 옥개석까지 약



흥전리사지 석탑재 전경



흥전리사지 초층옥개석

15) 아래 사진은 다음 글에 있는 사진과 필자가 찍은 사진을 살은 것이다.

洪永鎬 · 金道賢, 「三陟市 道溪邑 興田里寺址에 대한 考察」, 『博物館誌』第 3號, 江原大 學校 博物館, 1996.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삼척 흥전리사지 시발굴조사 현장보고회 자료집」, 2014.

②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정병

삼척 흥전리 사지(三陟興田里寺址)에서 출토된 출토 정병은 별도의 무늬를 새기지 않은 청동 정병으로, 그 형태가 온전하게 발견되었다. 발견된 청동 정병 2점은 사지에서 출토된 금동 주련과 함께 ‘국통(國統)’이란 글씨가 새겨진 비편이 발견됨으로써 신라 하대에 왕실과 관련한 스님이 주석한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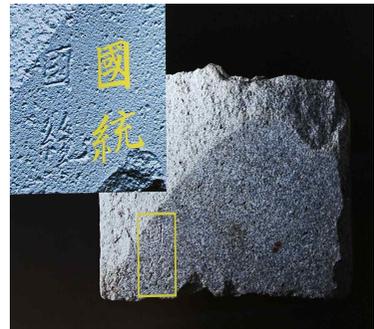
이 정병은 광복 이후 국내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정병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보물급 작품으로, 통일신라시대 정병의 전형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동아시아 정병 연구의 가장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된다.

③ 삼척 흥전리 사지 출토 국통명 비편

흥전리 사지(興田里寺址)에서는 비편이 여럿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이다. 국통이 새겨진 비편을 발견하기 전에 수습한 비문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 (1) … □김성계림지망(□金姓鷄林之望) …
 (2) … 시당결행전어자□(示黨潔行傳於子□)
 … ? ? 호(乎) (3) … 독이□이자□(獨二□而自□) … ?인(仁)우(兩) (4) … □호□(□乎□)
 …



‘국통(國統)’명 비석 조각

【2】

- (5) … □선림용흥□(□禪林龍興□) … (藏)
 (6) … □주야. 화(□珠也. 和) (7) … 검덕시(儉德施) … (8) … □□□
 … (9) … □□□ …

- 【3】 (10) … 불마영류한탑송(不摩影留寒塔松) … ?

- 【4】 (11) … 부어□왕지보살위(釜於□王之菩薩謂)… ?

이들 비문편은 내용이 워낙 단편에 불과하여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편이 발견된다면 흥전리 사지의 역사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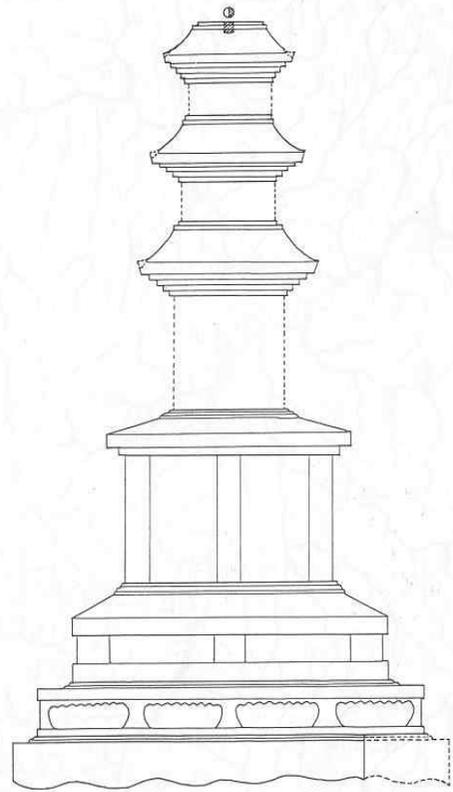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청동 정병 2점, 금동 주련과 함께 ‘국통(國統)’이란 글씨가 새겨진 비편이 발견됨으로써 신라 하대에 왕실과 관련한 스님이 주석한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흥전리사지 배례석(연화문)



철제 초두(세발자루솔)와 쇠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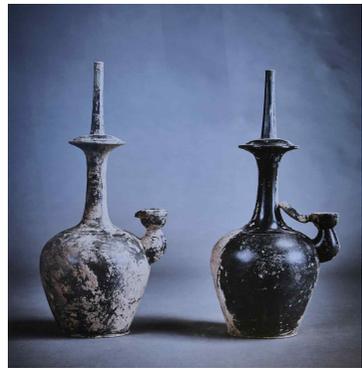


도면 1 興田里寺址 石塔 推定復元圖

[흥전리사지 추정 복원도]



굽새기와



흥전리사지 출토 정병



흥전리사지 출토 귀신모양 기와



범웅관아(梵雄官衙) 명 청동관인

3. 이승휴 선생 유적과 동안사

1) 동안사

1995년 지락당 터 옆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사당 1동을 건립하였고, 이후 이승휴 선생을 기리는 동안대재를 이곳에서 봉행하고 있다.



천은사 내 동안사 전경

2) 천은사내 이승휴 유적지

(1) 연못지

연못지는 지락당(知樂塘)이라 하였는데, 방당(方塘) 즉, 네모진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지락당”이란 명칭은 “어찌 내가 고기의 즐거움을 모름을 알겠는가”라는 장자의 제물편의 말을 취하여 이름 지었다고 한다. 사찰에 조성된 연못지는 대부분 연꽃을 심어 조경했는데 이곳에도 연꽃을 심었다고 한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삼척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를 발굴 조사한 후 작성한 지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방형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못지는 최대 장축이 동-서 14m, 남-북 16m로 면적은 약 224㎡(68평) 정도이다. 현재 남아 있는 호안석축에 의한 연못지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선대 조성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연못지의 최하층위인 모래+자갈층에서 조선후기로 보이는 청화백자와 수파문기와가 출토되고 고려말로 추정되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대의 유구가 홍수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자 후대에 다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평지의 연못지는 호안석축이 모든 방위에서 확인되나 이 연못지에서는 동측의 물막이 부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지락당 전경(복원 후)

또한 호안석축은 적어도 1회 이상의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호안석축을 쌓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안석축은 최대 높이가 2.2m정도인데 1.6m까지는 50m~80m 가량의 석재를 사용하여 쌓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아래층인 선대의 석축은 장방형의 석재를 허튼층쌓기를 하면서 퇴물림 방식이 강하게 쌓은 반면 후대의 석축인 상위의 석축은 방형에 가까운 석재를 허튼층쌓기 방식의 퇴물림 방식이 약하게 쌓았다.

현재 노출된 연못지의 바닥은 하상층의 자갈과 굵은 모래층으로 형성되었으며 거대한 자연석재가 군(群)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다른 연못지에서도 볼 수 있는 조경석으로 놓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호안석축은 동측만이 축성되었다. 외면에는 물이 새는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내면에만 잡석으로 마감하였다. 호안석축의 기단은 없으며 하천의 지표위에 자연석을 그대로 쌓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남측은 자연석이 연못지

를 향하여 비스듬히 놓여 자연벽을 이루었으며 서·북측은 하상층의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지면서 거대한 바위가 호안(湖岸)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수구는 별도의 시설이 되지 않고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유입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수구도 별도의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출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측은 어느 시기엔가 붕괴되어 작은 자연석으로 다시 쌓은 것으로 보인다.

(2) 추정 다비장(茶毘場)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삼척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를 발굴 조사한 후 작성한 지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추정 다비장은 건물지 북측 언덕 위에 있다. 이는 기존에 이학사 서당터로 추정되었으나 건물지로 보이는 유구는 보이지 않고 스님이 입적하면 행해지는 다비



추정 다비장 전경

장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이는 1m×1m정도의 석열이 원형으로 둘러져 있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목탄과 소토가 출토되고 있다. 또한 북쪽으로 길이 2m, 폭 70cm내외의 석열이 놓여 있는데 이는 약간의 변형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소토층이 남아 있다. 이것도 다비장으로 쓰였던 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동측으로 약간 아래의 토층에서 5m×1m의 석열이 있다. 석열내에서 청자편과 백자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어떠한 용도인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청자와 조선백자가 동일한 토층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조선후기에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3) 청자 도요지

이 유적은 현 주지스님 거처인 용안당 건물 뒤편의 동북쪽으로 난 당시의 암자인 화엄암과 부도군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편인 산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관동대학교에서 삼척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를 발굴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굴조사시에 2×8m규모의 Tr. 2



청자 도요지 전경

개를 넣어 도요지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자편, 도지미, 소토 일부가 출토되었다. 당시 발굴 조사에서 시굴조사시에 확인한 도요지 윤곽선을 중심으로 Tr.를 전체적으로 확장하여 유구를 노출한 결과 표토 제거 후 10~20cm 두께의 퇴적된 흑갈색 사질층 밑에서 유구가 노출되었는데, 가마 유구는 전체 1개소로 북서-남동향의 자연 경사면과 같은 방향으로 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는 길이 남-북 320cm, 동-서 440cm의 규모로 평면 장타원형의 소규모 가마이다. 가마의 남쪽 하단부에는 자연 암반이 확인되었으나 가마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마의 벽체는 대부분 유실되어 완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북벽은 2단~3단 정도의 높이 66cm로 벽체에 사용된 석재들이 조금 남아 있는 편이다. 남벽은 거의 유실되어 윤곽선만 남아있다. 서벽은 두께 38~54cm, 높이 38cm로 모서리 부분의 석재들은 불먹은 흔적이 완연하다. 입구부는 대나무숲과 계곡에 바로 접하고 있는 관계로 확인을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물들과 소토들이 입구쪽과 소성실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이 가마는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장타원형의 가마로서 그 구조는 소성실이 1개인 단실요이며 바닥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지하면을 약간

파서 조성하였고 천정은 남아 있지 않지만 등요와 같은 지상 토축일 가능성이 높다. 소성실의 바닥면은 진흙을 깔아 처리하였으며 경사가 거의 없는 편이고 고온의 불길이 닿아 비교적 굳게 익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청자요 유구의 원형이 대부분 상실된 관계로 그 구조의 정확한 양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강원도 지방에서 확인된 최초의 청자 가마터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습된 유물들은 대접이 가장 많으며 그 외의 접시, 완, 도지미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이 가마는 12~13C에 사용한 가마로 추측된다. 이것으로 보아 이승휴가 이곳에 용안당을 짓고 은거하며, 불경을 읽는 등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에도 사용되었던 가마로 추측된다.

(4) 보광정(葆光亭), 용안당(容安堂)

현재 이승휴 당시에 만들었다는 보광정과 용안당 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동안거사집』 「보광정기」에 실려있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두타산(頭陀山)의 중대동(中臺洞)은 기이하고 절묘하여 신기한 경치를 다 드러냈고, 묶어 놓은 듯도 하고, 편편하기도 하며, 웅기종기 땅을 움푹해 놓은 듯한 곳이다. 거기에다 거닐고 의지하기 편리하니 그 아름다움을 이루다 형용하기가 어렵다. 만일 동파가 이곳을 본다면 의당 서씨로써 비교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 노닐며 구경하는 운치는 곧 십사관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중대도의 동북쪽으로 하나의 봉우리가 홀로 솟아 머리처럼 생기어 평퍼짐하게 흘러내리는 산봉우리가 있으니, 그것은 대문수라 부르고, 대문수 남쪽에 솟발처럼 솟아 일어난 것이 훌쩍 날아오르는 듯한 것은 삼공봉이고, 비스듬히 경계진 양쪽 골짜기 사이에 돌고 굽이져서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포포천이다. 내의 북쪽에 문수봉에 딸린 겹친 산언덕이 있는데, 이곳은 삼공봉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묵하고 널찍하여 물이 안고 도는 곳으로서, 특별히 하나의 작은 구역을 이루고 있느니, 이곳이 구산동이다.

구산동을 가로질러 서북쪽으로 동남으로 쿵쿵 흘러가는 물줄기가 용계이다. 용계를 따라 양쪽 가에 밭 이경이 있으니, 이것은 동안거사 외가에서 전해



용안당 (현재 천은사 주지실)

오는 바의 시지이다. 땅은 비록 메마른 박토이지만 몇 식구의 집안이 의지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에 시내 서쪽 밭의 잘록한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나오는 “심용슬지이안(審容膝之易安)’이란 구절의 글귀를 취하여 용안당(容安堂)이라 하였다.

당의 남쪽에 차가운 물이 풍풍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데, 가물어도 더 줄지 않고, 비가 와도 더 많아지지 않으며, 차고도 차가워서 시원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여, 손으로 움키기도 전에 몸이 이미 청량해진다. 그로 인하여 그 위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 대나무를 섞어서 심고 화초를 빙 둘러 심어 놓으니 비록 소박하여 화려하지는 않으나, 누추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남화진인의 제물편에 나오는 글귀인 “물은 주입해도 가득해지지 않고, 퍼내도 마르지 않으며 그 나오는 근원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보광이라 한다.”를 취하여 이름을 보광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5) 표음정(瓢飲亭)

현재 이승휴 당시에 만들었다는 표음정 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동안거사집』 「보광정기」에 실려 있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광정 가운데에 얽은 돌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고, 그 가운데 작은 우물을 파서 음식 짓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놓고 설당거사 소동파의 전중시의 “한 번 배부름은 기약할 수 없으나 한 바가지 물은 기필할 수 있다.”라는 시구를 취하여 표음정이라 하였다.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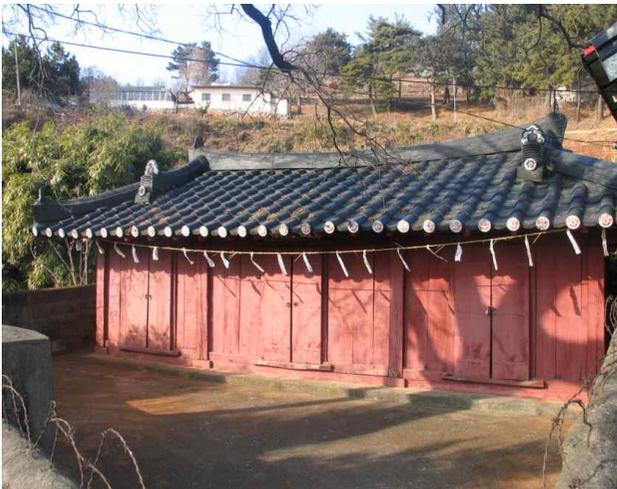
4. 삼척 읍치성황사와 오금잠제

소재지 : 삼척시 성북동

조선시대 각 군현에 설치된 성황사는 2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첫째는 고을 전체의 안녕과 기복(祈福) 등을 기원하는 장소로서 지방관이 봄과 가을에 유교적 의례에 의해 제사를 주관하였던 장소로서의 측면이다.

물론 이외에도 이곳에서 지방의 향리나 토착세력들이 신상(神像)을 모시고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제의를 주관하게 하는 등 음사(淫祀)가 행해진 장소이기도 하였다.

둘째는 무사귀신을 위무하고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 여단을 설치하였는데, 여제를 지내기 3일 전에 성황사에서 성황밭고제를 지내어 여제 지냄을 알리는 역할과 함께 여단의 중앙에 성황신위를 모심으로서 여제를 주관하는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삼척의 성황사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삼척 읍치성황사 근경



삼척 읍치성황사내 성황신위

삼척 성황사는 고려말인 홍무 25년(공양왕 4년)에 전국적으로 성황사를 설치하여야한다는 지침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설치된 성황

사는 수 차례에 걸쳐 성의 안과 진산인 갈야산으로 반복 이동해오다가 1908년 전국적으로 읍치 성황사를 폐한 이후 삼척의 성황사도 읍치 성황사로서의 위상이 없어지고, 성황사 주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다가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1922년에 두랑산에서 현재의 위치인 갈야산 기슭으로 이전한 이후 4차례 중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전한 이후에도 옛 전통에 따라 5월 단오에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등 삼척의 중심 성황사로서 기능하다가 지금은 성북동 마을 성황당으로 그 위상이 많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읍치성황사를 운영하면서 단오에 오금잠을 모셔놓고 제의를 지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다. 삼척의 오금잠은 조선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부사 정언황, 김효원 등이 계속 폐하고 없었으나 이들 부사가 물러난 이후에도 허목과 채제공이 계속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없어지지 않고 삼척 사람들에게 계속 신봉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조선 중기이후 삼척에 파견된 부사들이 성황당의 미신을 혁파하고,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무당 의 민폐 제거, 세금 징수라는 측면에서 없었으나, 민간에서는 계속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척 읍치성황사에서의 오금잠제



삼척 읍치성황사에서의 성북동
성황제

여기서 삼척에서 행해진 오금잠제에서 주목하여야할 요소는 지방의 향리나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단오를 전후하여 제사를 지내고, 신상(神像)을 받든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성황신의 성격은 인간 기원신 · 전통적인 산신(山神) · 동물신 · 주물(呪物)을 모신 사례 등 매우 다양한데, 삼척 성황사에서 오금잠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황신의 모습들 중 주물(呪物)을 모신 사례로서 이해될 수 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읍치 성황사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이 지방에서의 전통적인 신앙 관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향리와 지역민 등에 의해 매년 제사가 거행되는 과정에서 폐단이 심하여 결국 지방관들이 이를 금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삼척에서 오금잠제를 단오에 지내는데, 이는 강원도 내에서 그 예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 향리들에 의해 단오(端午)에 신상(神像)을 앞세우고 제의(祭儀)가 거행된 예를 강릉·양양·영월·양구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5. 공양왕릉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원도 기념물 71호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고려 34대 왕으로 고려의 멸망을 지켜본 공양왕은 고려의 20대 국왕인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충목왕 원년(1345년) 탄생하였으며, 이름은 요(瑤)이다. 1389년 음력 11월 창왕이 폐위되자 왕위에 올라 1392년 음력 7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백관과 백성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왕



삼척 공양왕릉 근경

위에 오른 후 강원도 원주를 거쳐 간성에 유배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되었고, 태조 3년(1394년) 3월 삼척으로 유배되어 삼척에 온 지 한 달 여만인 4월 17일에 교살되었다. 이성계가 새 왕조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고려 왕조의 멸망을 지켜보는 불행한 군주로 생을 마감하였던 것이다.

현재 공양왕릉은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강원도 고성군 간성에 각각 남아 있다. 공양왕의 부인 노씨의 고향인 고양에 조성되어 있는 고려 공양왕 고릉은 사적 제191호로 지정(1970년 2월 28일)되어 있으며, 고성의 공양왕릉은 공양왕을 모셨던 함부열의 묘역에 있다.

고양의 능이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능이다. 하지만 삼척의 능 또한 공식적인 공양왕의 능으로 볼 수 있다. 삼척에서 교살되었다는 점과 교살된 이후 삼척 궁촌에서 장사지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경기도 고양에 고릉이 조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삼척 궁촌에 공양왕릉을 수호하는 사람을 두었다는 허목의 『척주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조선시대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근덕면 궁촌에 있는 능을 공양왕릉으로 명시한 기록으로는 현종 3년



경기도 고양 공양왕릉 전경

(1662년) 삼척부사 허목이 편찬한 『척주지』와 철종 6년(1855년) 김구혁이 기록한 『척주선생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양왕과 관련하여 교살된 해인 1394년 가을에 공양왕을 비롯하여 조선 개창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국행수륙재를 삼화사(三和

寺 ; 삼척)를 비롯하여 관음굴(觀音堀 ; 강화도)과 견암사(見巖寺 ; 거제도)에서 설행한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국가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국행수륙재를 열어 고려와 조선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더하여 태조 이성계는 태조 6년에 공양군(恭讓君)의 비(妃) 노씨(盧氏)의 전지에서는 공수(公收)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덕치(德治)를 베풀려 하고, 고려를 무력에 의해 무너뜨린 후 조선이 개창되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고려의 마지막 왕의 왕호를 왕위를 공손하게 물려주었다는 의미를 담은 ‘공양왕(恭讓王)’이라 명명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후 태종 16년에 고려 마지막 왕을 ‘공양군(恭讓君)’에서 ‘공양왕(恭讓王)’으로 높여 부르고, 공양왕의 능호를 내렸다. 즉, 태종대에 왕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은 것이다. 이와 함께 성종 6년에 공양왕릉 수호를 위한 묘지기를 두었으며, 선조·현종·숙종·영조 대에도 공양왕을 태조 이성계가 잘 모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후대의 왕들도 신하들이 공양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양왕으로 잘 대우할 것을 명하는 기록들이 이어진다.

공양왕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고려를 무력으로 무너뜨린 후 조선을 개창하였다는 국내외의 시각을 의식하여 평화로운 정권 교체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고양에 있는 공양왕릉을 비롯하여 삼척에 있는 공양왕릉은 조선시대 내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수호군을 두어 묘역을 관리할 수 있었고, 현재 삼척시 근덕면 궁촌에는 지방기념물 제

71호로 지정된 4개의 무덤으로 이루어진 공양왕릉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양왕과 삼척과의 인연을 살펴보면 삼척에서 교살된 후 장사지냈기에 그의 능인 공양왕릉이 삼척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삼척과의 인연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삼척과 공양왕과의 인연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삼척에서는 공양왕의 비극을 극복하여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밑알로 만들어 내면서, 삼척 나름의 발전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유배왔다가 교살(絞殺)됨으로써 고려의 멸망을 지켜본 곳이 삼척인데, 이곳은 공양왕이 교살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 왕조 개창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목조 이안사의 부모묘인 준경묘와 영경묘가 미로면 활기리와 동산리에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백우금관 전설이 전하며, 영조와 고종대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곳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할 지세라고 극찬하였다. 즉, 삼척은 고려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이면서, 그 이전에 이미 새로운 왕조 개창의 기운(氣運)이 샘솟은 곳이었다.

이와 함께 인근의 삼화사에서 조선 개창 과정에서 희생된 공양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와 조선의 소통과 화합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국행수륙재를 설행케 한 매우 유서 깊은 곳이 이곳 삼척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삼척지역에 형성된 공양왕 관련 설화와 지명이 만들어 졌는데, 공양왕 관련 지명과 설화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은 왕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궁촌 지역을 궁궐로 여기는 지명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양왕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공양왕릉을 중심으로 북쪽의 사라치(沙羅峙)에는 살문[箭門] 즉, 홍살문을 설치한 것으로 공양왕의 죽음과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애절함 뿐만 아니라 공양왕에 대한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려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공양왕은 이곳 주민들에게 풍농과 풍어를 이끌어 주는 신령으로 여겨지며, 장군신으로 강림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민음이 형성되었다. 즉, 궁촌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켜주고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신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삼척 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삼척 공양왕릉 제례 전경 (2014년)



삼척 근덕 공양왕릉 제례

지금까지 공양왕에 대한 인식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비운의 왕이면서 그 죽음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왕으로서, 왕호에서 보여주듯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왕이다. 그러나 삼척에서는 공양왕의 비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한 삼척 나름의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능동적으로 계승하여 삼척 문화를 좀 더 풍요롭고, 발전적이며,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어 실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6. 원덕읍 이천 황장 금표

소재지 : 삼척시 원덕읍 이천 3리

최근 강원도에서 금표 또는 봉표의 표석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전통시대의 임업정책이나 토산물 정책을 살펴보는 실제 수단으로서 소중한 것이다.

금표 또는 봉표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사찰이나 태봉 등 신성하고 권위있는 구역의 접근을 막는 것, 유배지에 임의로 출입을 금하는 것, 좋은 재목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된 숲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산삼을 임의로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삼척시 원덕읍 이천 3리 이천폭포 상류에 있는 느티나무 서낭당 옆에 ‘금표(金標)’라고만 새겨진 비석(높이 50cm, 너비 30cm)이 있다. 이 금표로부터 서쪽에는 거주는 물론 입산도 금지되었다는 전언(傳言)을 참고하고, 인근의 ‘사금산(四金山) 황장목 목도꾼 소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금표도 황장금표라 판단된다. 참고로 그 소리를 인용해 보겠다.

<목도꾼 소리> 마을골의 사금산에/불갱골에 오백여년/한해 두해 자란 솔이/황장목이 되었구나/아방궁의 상량목이/이 낭기가 될랴는가/백양대의 도리기둥이/이 낭기가 될랴는가/이 낭기가 경북궁의/상량목이 되었구나

위의 목도꾼 소리에서 ‘마을골의 사금산’이라 하였으니, 이 금표는 곧 마을산 황장금표가 되겠다.

『관동지』와 김종연의 『척주지』를 보면 삼척에는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황장목 생산을 위해 적전산·황지산·소달산·마을산·궁방산·가곡산을 황장봉산으로 지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황장봉산 입구에 세워진 황장금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필요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천 사금산 금표(四金山 禁標) 전경



이천 사금산 금표

7. 임원산 봉수와 남화산 수로부인공원

□ 임원산 봉수

삼척은 신라 파사 이사금 23년(102년)에 신라에 병합되었고, 장수왕 56년(468년)에는 고구려와 말갈병이 실직성을 쳐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 후 고려 우왕 10년(1384년)에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삼척포진을 설치하고 만호를 두었고, 조선 현종13년(1672년)에는 영장을 파견하여 영동 9개군의 병권을 관장하게 하는 등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삼척의 해안을 통하여 여진족과 왜구의 침범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해안 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비가 매우 중요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삼척지역에는 성곽과 봉수 등 관방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해안 경비와 통신 업무를 담당한 봉수대 유구 5개가 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남아있어 당시 해안으로 침투해 오는 적에 대한 방어와 연락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봉수(烽燧)는 햇불[烽]과 연기[燧]로서 밤낮으로 신호[急報]를 보내던 통신방법이다. 즉, 수십리의 거리마다 바라보고 살피기에 좋은 요지의 산꼭대기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밤에는 햇불을 들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주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림과 경비, 통신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국방상의 중요한 시설이며 제도였다.



임원산봉수 원경

삼척지역의 봉수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의 각종 지리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나 위치 이동, 봉수 수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이어져오다가 삼척부사(三陟府使) 유시회(柳時會)의 재임 중인 1626년에 영동지방의 봉대(烽臺)를 폐지하면서 삼척지역의 봉수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봉수가 폐지된 이후 근덕의 양야산 봉수와 원덕의 가곡산 봉수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마을신앙의 처소로 이용되고 있다.

삼척시 임원리 수로부인 공원 옆에 있는 임원산봉수는 일제 강점기에도 연대와 방호벽의 존재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일제 강점기에 해안 감시소를 설치하였으며, 해발 141.1m의 높이로 바닷가에 위치한다. 임원에서는 이곳을 봉화대라 부르고, 봉화대에서 임원초등학교 쪽에 있는 골짜기를 봉골이라 부른다. 연대 남쪽에 있는 건물지에서 한국전쟁 이후 거처가 없던 사람들이 임시로 생활했다고 한다.

현재 임원산 봉수는 정상부 능선 상에 연대를 설치하였고, 연대 남쪽에는 2칸으로 된 창고지가 있으며, 동쪽은 급경사여서 별도의 시설이 없는 자연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남·서·북쪽의 3면으로 방어 시설인 방호벽이 연대와 창고지를 둘러는데, 연대의 서쪽 방호벽 외측 또한 경사가 급하다. 방호벽 남쪽에는 방호벽을 자연 활개로 사용한 민묘 1기가 남쪽을 향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연대와 창고지, 방호벽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서 주변에서 또 다른 연조를 발견할 수 없어서 단봉으로 볼 수 있다. 사용한 돌은 화강암인데, 전체적으로 흙을 같이 사용하여 토축과 석축이 혼합된 혼축으로 볼 수 있다. 연대 하단부는 폭 1.5m, 높이 27cm 정도의 크기로 기단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39x15x28cm, 30x40x20cm 정도 크기의 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연대의 외벽을 쌓은 돌은 38x37x30cm, 30x40cm 크기의 돌을 이용하였고, 훼손되어 밖으로 드러난 속돌은 20x20cm, 15x19x8cm, 10x15cm 크기의 돌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대 상부에 연소실을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부분에는 국립지리원에서 삼각점을 설치하여 현재 함몰된 상태여서,

연소실의 현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연대의 석축이 훼손되어 하단부에서 연소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한 오름 시설은 연대 외벽의 훼손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연대는 동서 방향 9.2m, 남북방향 7.2m, 둘레는 27m이고, 높이는 대략 2.4m이다.

건물지는 동남-북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난방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창고용으로 추정된다. 창고에는 당시 거화 재료나 기타 물품을 보관하였는데, 연대 남서쪽에 위치한 직방형의 건물로서 건물지 중간은 폭 62cm로 구획하여 2칸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고, 출입구는 창고지 동쪽에 있으며, 봉수대쪽으로 폭 70cm 정도의 중간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창고지 축조에 사용한 돌은 화강암으로서 수년 전의 산불로 인해 적갈색으로 산화되어 있다.

창고지의 크기는 남동-북서 방향으로 5.9m, 북동-남서 방향으로 4.1m이고, 높이는 1.2m 정도가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창고지 석축은 5~6단으로 벽을 쌓는 과정에서 54x16, 30x15, 30x22, 50x22 정도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엇갈려 쌓았는데, 축조의 정형성은 없다. 석축의 두께는 60cm 정도였고, 출입구의 입구에 있는 방은 1.6m x 3.1m, 두 번째 방은 2.9m x 3.1m 정도의 공간이다.

방호벽은 너비 2m, 둘레 50m, 높이 85~90cm 정도의 규모로 잔존하는데, 동쪽 해안이 절벽이어서 半圓形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연대로부터 북쪽 방향에 있는 방호벽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며 서쪽은 매우 많이 훼손되었다. 이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소규모이고, 호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흙으로 쌓은 토축인데, 연변봉수 중 방호벽이 있는 대부분의 봉수는 石築이고, 인천의 축곶봉수는 토-석 혼축이다. 축대 사이에 28x25cm, 31x34cm 정도 크기의 돌들이 박혀 있다. 방호벽에서 남쪽 바다를 향하여 민묘가 1기 있는데, 민묘 뒤의 봉수 방호벽이 자연스럽게 활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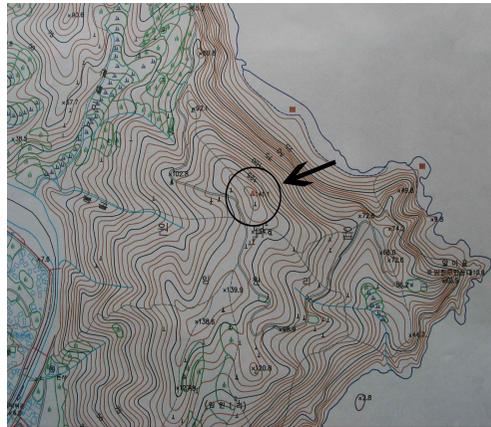
임원산 봉수에서 발견된 유물은 숫돌과 옹기편, 기와편이 있다. 숫돌은 건물지 석축 상부에서 발견되었는데, 길이 20cm, 너비 2cm 정도로 많이 사용하여 매우 가늘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옹기편은 방호벽에서 발견하였으며, 기와편은 봉수지 내에서 발견하였다. 기와편은 민무늬로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임원산봉수의 연대와 방호벽, 건물지는 남북 장축의 능선상에 위치하고, 서쪽은 산지이므로 북, 동, 남의 3면을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위치에 있다. 연대의 형태별 구조에서 ‘연대 + 방호벽형’으로 볼 수 있으며, 봉수대 건물지의 배치 형식 분석에 따른 분류에서 본다면 방호벽 내에 연대와 건물이 있는 일곽형으로 볼 수 있다.



삼척지역의 봉수 배치 현황



(지도) 임원산 봉수 위치 (1 : 5,000)



임원산봉수 연대와 기반부



임원산 봉수 방호벽 전경



임원산봉수 창고지 전경



임원산 출토 기와편과 용기편

□ 수로부인 공원

「수로부인 설화」는 「헌화가」와 「해가」라는 노래 2편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노래 2편은 단순한 노래라기보다는 그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적 요소 등은 제의(祭儀) 성격을 폭넓게 내포하고 있다. 제의(祭儀) 성격과 관련된 요소는 바다, 용, 노옹, 수로 부인, 주선(晝饌), ‘꽃을 바침’ 등이다. 수로부인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덕왕대에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차 가다가 바닷가[海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돌봉우리가 병풍처럼 바다를 두르고[臨海] 있고 높이가 천 장[丈]이나 되고 그 위에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가 보고 좌우에 이르기를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그 누구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종자는 "사람의 발길이 이를 수 없는 곳입니다"하고 모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때 옆에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있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는 꽃을 꺾어 노래[歌詞]까지 지어바쳤다.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다. 그 뒤 이틀 길을 더 가다가 또 바닷가의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공은 땅바닥에 넘어질 듯 발을 굴렀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 다시 한 노인이 있어 말해주기를 "옛 사람의 말에 못 사람들의 말은

쇠도 녹인다 하니 바다 속의 용인들 어찌 못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 않겠습니까. 마땅히 관내(管內)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바다언덕을 지팡이로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인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다. 공이 그 말을 따랐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어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니 "칠보궁전에 음식은 감미롭고 기름지며 향기롭고 깨끗한 것이 인간의 연화(煙火)가 아니었습니다"했다. 이때 부인의 옷에 배인 향기는 기이하여 세상에서 들어본 바 없는 것이었다. 수로부인은 자태와 용모가 절세로 빼어나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번 신물(神物)에게 붙잡혀갔다.

이때 못 사람들이 부르던 해가(海歌)는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앓아간 죄 그 얼마나 크랴,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먹으리」라고 했고 노인의 현화가는 「자쫓빛 바위 위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저 꽃 꺾어 바치오리다」라고 했다」

『삼국유사』권 2 기이편에 수록된 「수로부인 설화」와 관련한 곳은 관련 기록과 동해안의 지형 등을 고려해 본다면 삼척 해안지역임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위치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삼척 임원리 해안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임원리 수로부인 공원 전경



임원리 수로부인 공원 내 수로부인상

8.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소재 첩비 (부사이규헌 영세불망비 및 금옥첨원비)

삼척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금석문은 지방관으로 부임하였거나, 시찰하는 관리들의 선정(善政)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선정비, 효자·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세운 효열비, 사찰에서 세운 기실비, 공덕비, 부도비 등, 그리고 서원·원사(書院·院祠)의 비석, 신도비·묘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세운 비석이 있다. 이 중 우리 지역에 세워진 선정비와 비를 세운 주민들을 생각하며 첩비(鐵碑)를 세운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사 이규헌 영세불망비(府使 李奎憲 永世不忘碑)

강원도문화재자료 제 121호

소재지 :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산 2-1

연 대 : 현종 4년(1838)

첩비(鐵碑)로서 금옥첨원비(金玉僉員碑)와 함께 금옥각 내에 세워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옥각 내에 있는 기문과 금옥첨원비를 종합해 보면 이규헌은 정유년에 천재지변으로 기근이 막심하여 조정에 건의하여 곡식을 내어 백성들을 구휼하니, 역둔리와 인근 주민들(2里 8洞)이 감사의 표시로 이규헌 부사 영세불망비를 현종 4년(1838년)에, 현종 5년(1839년)에는 비 건립에 참여한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금옥첨원비를 세웠으며, 그 다음 해인 현종 6년(1840년)에 비각을 세워 금옥각이라 하였다. 이 비는 비신(碑身)과 비개(碑蓋)를 하나로 주조하였으며, 비개의 문양과 비신의 글씨는 앞면에만 양각으로 주조하였다.

비각에는 “금옥각(金玉閣)”이라 쓴 편액을 정면에 걸어 두었으며, 비각 내에는 비를 세운 내력과 이건·중수(移建·重修) 상황을 알려 주는 고종 20년(1883)에 쓴 <순영완문(巡營完文)>, 1925년에 최윤재(崔允在)가 쓴 <금옥각 중건서(金玉閣重建序)>, 1956년 김홍두(金弘斗)가 쓴 <이건기(移建記)>가

걸려 있어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부사 이규헌은 현종 원년~5년(1835~1839) 사이에 삼척부사로 재직하였다. 1836년과 1837년의 큰 흉년에 유민(流民)을 구활(救活)하였는데, 봉록(俸祿)을 덜어내고, 부민(富民)들에게서 많은 돈을 마련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요역을 감면해 주기위해 노력하였으며, 양사보(養士保)를 창설하여 거접(居接)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만년제(萬年提)를 쌓았으며, 봉황대에 석인상 3개를 세워 상충하는 기운을 다스렸고, 죽서루 아래에 방수제(防水提)를 쌓았다. 빙월루(氷月樓)·원풍루(願豐樓)·해선유희지소(海仙遊戲之所) 등 3개의 현판을 써 새기고는 세 누각에 각각 걸었다. 운흥사(雲興寺)에 화재가 나자 중건할 수 있도록 쌀과 돈을 지원하여 중건한 후 사명(寺名)을 신흥사(新興寺)로 하였으며, 흑악사·공양왕릉·효자 및 열녀 비각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839년 12월에 능주목사로 옮겨갔는데, 그를 기리기 위해 역둔에는 선정비를 세웠으며, 부내에는 흥학비가 전해지고 있다.



하장 역둔 금옥각



부사 이규헌 영세불망비

□ 금옥첨원비(金玉僉員碑)

강원도문화재자료 제 121호

소재지 : 삼척시 하장면 역둔리 산 2-1

연 대 : 헌종 5년(1839)

철비로서 부사 이규헌 흠민청덕영세불망비(府使 李奎憲 恤民淸德永世不忘碑)와 함께 금옥각 내에 세워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옥각 내에 있는 기문과 금옥첨원비를 종합해 보면 이규헌은 정유년에 천재지변으로 기근이 막심하여 조정에 건의하여 곡식을 내어 백성들을 구휼하니 역둔리와 인근 주민들(2리 8동(2里 8洞))이 감사의 표시로 이규헌 부사 영세불망비를 헌종 4년(1838년)에, 헌종 5년(1839년)에는 비 건립에 참여한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금옥첨원비를 세웠으며, 그 다음 해인 헌종 6년(1840년)에 비각을 세워 금옥각이라 하였다.



금옥첨원비

이 비는 비신과 비개를 하나로 주조하였으며, 비개의 문양과 비신의 글씨는 앞면에만 양각으로 주조하였다.

9. 삼척 출신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분들

□ 김하규[1858 ~ 미상. 金河圭 ; 金夏圭, 金夏奎] - 항일의병 운동

김하규는 강원도 삼척(三陟) 사람으로, 김현규(金玄圭) 의진에 가담하여 강원도 삼척을 근거지로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우리 민족에게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게 하였다. 국권강탈 행위인 을사늑약은 일제가 그간 은폐해 왔던 한국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언론활동·종교활동·교육활동·학술활동 등 각계 각층의 국민 계몽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었다.

이같은 시기에 김현규는 경북 울진(蔚珍)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1906년 1월 도사(都事)로 있던 김하규를 불러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하여 왜적을 물리치겠으니 자네도 역시 소모(召募)에 응하라"함으로 이에 따랐다. 그리하여 김하규는 20여 명의 포군(砲軍)을 모아 김현규 의진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해(寧海)의 신돌석(申奭石) 의진과 합세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등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6년 8월 24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유형(流刑) 10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심부윤[1905~1951, 沈富潤 ; 沈水燮, 沈象鐸] - 항일의병 운동

심부윤은 강원도 삼척(三陟) 사람이다. 1919년 4월 14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의 삼척공립보통학교(三陟公立普通學校) 2학년 재학중 4학년생인 김달하(金達河)·오원모(吳元模) 등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한 후 이튿날인 4월 15일 동교 운동장에서 동교생(同校生) 18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선

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1924년 10월 14일 부산공립상업학교(公立商業學校) 2학년 재학중 학교측에 교사증축(校舍增築), 조선어시간 연장, 영어·박물교사(博物教師) 교체, 이화기계(理化機械) 완전설비 등을 요구하며 2·3학년생 140여명의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가 퇴학당하고 평양사립숭신학교(平壤私立崇信學校) 2학년에 편입 1926년 5월 중도퇴학하고 귀향(歸鄉)하였다.

1927년 8월~1928년 5월 조선일보 삼척지국(三陟支局) 기자가 되어 1927년 10월경 정건화(鄭健和)와 함께 삼척군(三陟郡) 청년동맹을 조직하였으며 1928년 3월 신간회(新幹會) 삼척지회(三陟支會)를 조직 활동하였다.

1931년 5월 중순경 삼척청년동맹(三陟青年同盟) 집행위원장으로 이상인(李尙寅)·박내빈(朴來賓)·오원모(吳元模) 등과 함께 삼척군내(三陟郡內)에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조직을 협의하고 같은 해 10월말 'K회(會)'를 조직하여 교수부(教授部) 책임을 맡았다.

1931년 11월 30일 삼척군(三陟郡) 삼척면(三陟面) 정상리(汀上里) 산중에서 'K회'의 모임을 개최하여 근덕면(近德面)과 노곡면(盧谷面) 간의 도로개수공사에 면민(面民)이 부당하게 부역되는 것을 계기로 부역반대시위(賦役反對示威)를 대규모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근덕면(近德面) 교가(交柯) 장날에 면민 300여명을 규합하여 근덕면사무소(近德面事務所)를 습격하는 등 시위활동을 벌이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32년 3월 3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江陵支廳)에서 소위 주거침입, 보안법, 폭력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1933년 7월 24일 삼척면 오분리(梧粉里) 해안에서 변소봉(卞小鳳)·정석대(鄭錫大)·이상인(李尙寅)·박내빈(朴來賓) 등과 함께 삼척군내에 노동공작위원회를 조직하고 인근 각면(各面)에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하여 각면(各面)을 책임 분담하였을 때 중앙부 책임을 맡아 수차례 회합을 가지며 활동하다가 동년(同年) 11월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36년 12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심재규[1887~1913, 沈在圭] - 일제강점기 삼척 출신 독립운동가.

심재규의 자는 계명(啓明)이며, 아명으로 명길(命吉) 또는 재규(在圭)로 불리었다. 심찬조(沈燦朝)의 아들이며, 미로면 상거노리에서 출생하였다.

심재규는 1905년 7월 의병장 신돌석(申奭石)[1878~1908]의 부하가 되어 부친으로부터 북삼면 삼화리[현 동해시 북삼동] 홍월평에 있는 논과 소 네 마리를 매각하여 군자금으로 희사하면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08년 11월 신돌석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부 지방으로 출동한 심재규는 1909년 8월 주명식(朱明識)이 이끄는 의병 부대로 편입하여 도총장(都總長)에 임명되었다. 11월 17일 무장한 부하 20명을 인솔해 강원, 울진(蔚珍)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다. 경상도 영주, 안동 지구에서는 일본군과 교전하여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하기도 했다.

1910년 6월에는 5명의 부하를 인솔하여 봉화(奉化)에 거주하는 홍재명(洪在明)으로부터 300냥을 모금하였다. 7월에는 봉화 오산리(梧山里)에 사는 박찬호(朴瓚浩)로부터 금 14원을 모금하고, 선천리(仙川里)에서 백미 3두를 강요하다가 1910년 10월 14일 홍재명 등의 밀고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13년 3월 고문에 의한 병을 얻어 석방되어 귀가하였다가 9개월 만에 운명하였다.

1977년 12월 13일 건국포장 제730호를 받았으며, 1984년 12월 26일 묘비가 건립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0. 삼척의 민화와 민화작가 이규황·황승규

민화는 민중을 위하여 민중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나 민화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민화가 미술사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화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이다. 민화는 일반 민중의 실용적인 요구에 따라 그려진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림이다. 따라서 민화는 일정한 장소와 때가 있었다. 민화는 예술적 행위를 통한 그림이 아니라 사용할 장소와 시기가 결정된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여 완성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민화는 작가가 드러나지 않은 그림이다. 민화는 민중을 위해 민중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고 제작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삼척에서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작가는 이규황과 황승규이다.

이규황은 이 초시라고도 불리웠는데, 울진에서 삼척으로 이주하여 근덕면 부남리에 살면서 일찌기 학자들과 교유(交遊 : 서로 사귀어 놀거나 오고가



이규황 유허비

고 함)하였으며, 재예(才藝)가 탁월하고 지조가 분명하고 확고하였다. 공(公)의 글씨와 문장은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써내려 갔으며, 서화는 청초하고 정숙하였다. 황승규(黃昇奎)와 아들인 이종하(李鍾夏)에게 민화를 전수하였으며, 아들 이종하는 그의 아들 이영우에게 민화를 가르쳐 대를 잇게 하였다.

황승규(黃昇奎 : 1886~1962)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민화와 서예에서 이름을 떨친 인물인데, 그에게 민화를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이규황인 것이다.

그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석강 황승규인데, 그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민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규항이 그린 책거리 문자도

황승규는 경북 평해읍 기성에서 태어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로 이주하였다. 그의 아버지 황건(黃健)은 평해 기성면 덕실에서 황대구의 둘째로 태어났으며, 결혼 후 삼척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장자 우위의 상속으로 선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황승규의 아버지 황건은 동해안을 따라 올라와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정착하였다.

황승규 민화의 특징은 선과 색에 있다. 대부분의 선은 두툼하고 힘차다. 그러면서도 온유하면서 매끄럽다. 그래서 황승규 민화의 형상들은 원만(圓滿)으로 가득 차 있다. 황승규의 민화의 색은 '색의 마술사' 라고 불리울 만큼 색을



황승규가 그린 무신도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적(赤).청(靑).황(黃).흑(黑).백(白)의 색깔을 사용하면서 색상의 대비, 조화, 균형, 비례가 기막힌 관계를 이루며 색다른 멋을 보여주고 있다.



황승규가 그린 화조문자도

가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거리 문자도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만하다. 책거리그림은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그린 것으로 주로 선비들의 사랑방이나 서재를 장식하였다. 책거리그림에는 선비들의 애장물인 책과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사랑방의 기물인 도자기.화병.화분.부채 등과 선비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술병.술잔.담뱃대.악기.도검.활.투호.바둑판.시계.대모 안경 등을 책 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책거리 문자도는 책거리그림과 문자도를 상.하단에 이중으로 배치된 그림이다.

황승규의 산수민화 가운데 대표작은 손자 황창희가 소장하고 있는 10폭의 관념산수도이다.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된 의도는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다. 옥양목이나 종이에 그린 다른 작품과는 달리 비단에다 온갖 정성을 쏟아서 완성하였다.

그리고 병풍에 뒷면에도 자신의 글씨로 후손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유언하듯이 쓰고 있다. 황승규는 병풍 뒷면의 글씨를 다른 사람의 글씨를 받고

자 하였다. 손자 황창희는 다른 어떤 사람의 글씨보다 조부의 글씨로 써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황승규는 손자의 청을 받아들여 직접 병풍 뒷면 8폭에 글씨를 썼다.

산수도는 민화풍이기는 하지만 정통산수화에 가까운 걸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승규는 자신이 민화를 그린 환쟁이가 아니라 정통 산수화를 그린 문인화가로 후손들에게 기억되길 바랐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그의 말년의 작품은 그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그린 것으로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손자 황창희도 이 병풍을 조부 황승규를 모시듯이 극진한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다. 황승규는 떠났지만 황승규의 산수화는 안방에서 집안의 울타리처럼 후손을 지켜보고 있다.¹⁶⁾

16) 차장섭, 「석강 황승규의 생애와 작품세계」,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2005.

11. 삼척 산양서원과 산양서원묘정비·소공대비

세종 5년(1423) 관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관찰사로 임명된 황희의 구호책에 힘입어 서민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백성들은 황희를 소공에 비유하여 그가 쉬었던 와현에 소공대를 쌓아 그의 치적을 기리었다. 이후 소공대가 와해된 것을 중종 11년(1516) 그의 4대손 황맹헌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곳을 둘러보고 소공대비를 세웠다. 이후 선조 11년(1578) 그의 6대 손 황정식이 삼척부사로 부임하여 풍우로 마모된 비를 다시 세웠으며, 비문은 당시 영의정 남곤이 지었다.

순조 24년(1824년) 흥면섭 등 삼척지역 유림들에 의해 황희의 공덕에 보답하고자 ‘소동사(召東祠)’라 이름을 붙인 사우(祠宇)를 원덕읍 산양리에 건립하였다. 철종 8년(1857년) 지역 유림들과 지역민들의 성금으로 서원 형태로 발전하여 후학 교육도 병행하였으며, 철종 12년(1861년) 4월 산양서원묘정비를 세웠다.

그러나, 고종 5년(1868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 이후 의병활동이 19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기에 당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산양서원은 의병활동을 유림들이 지원하였다는 빌미로 소각되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비석을 비롯하여 그 흔적만 남아있던 산양서원 터에 1971년 산양서원묘정비각을 중수하고, 황희 정승을 위한 제향을 다시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삼척시의 지원으로 산양서원이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10월 정일(丁日) 중 좋은 날을 선정하여 황희정승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2013년에는 11월 17일(양력) 제향을 거행하였다

□ 산양서원 묘정비(山陽書院 廟庭碑)와 비각

소재지 :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연대 : 철종 12년(1861)

산양서원 내에 세워진 산양서원 묘정비는 황희 정승이 세종 5년(1423) 관동지방의 흉년을 구휼하기 위해 와서 베푼 공덕과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세운 소공대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그를 기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철종 12년(1861)에 세운 비석이다.

현재 비석은 ‘산양서원묘정비각(山陽書院廟庭碑閣)’이란 편액이 걸려 있는 비각 내에 있는데, 비석의 외형은 개석(蓋石)이 지붕 형태인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이고, 방형(方形)의 비신 받침에 비를 세웠다.

비각 내에는 임자년(1972)에 성낙서(成樂緒)가 쓴 <산양서원묘정비각중건기(山陽書院廟庭碑閣重建記)>와 1971년에 만들어진 <유도회원덕면분회찬조금방명록(儒道會遠德面分會贊助金芳名錄)>, <산양서원묘정비각중건찬조금방명(山陽書院廟庭碑閣重建贊助金芳名)>이 걸려 있어 관련 내용을 알려 준다.



산양서원 묘정비각



산양서원 묘정비

□ 소공대비(召公臺碑)

소재지 :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 67

연대 : 선조 11년(1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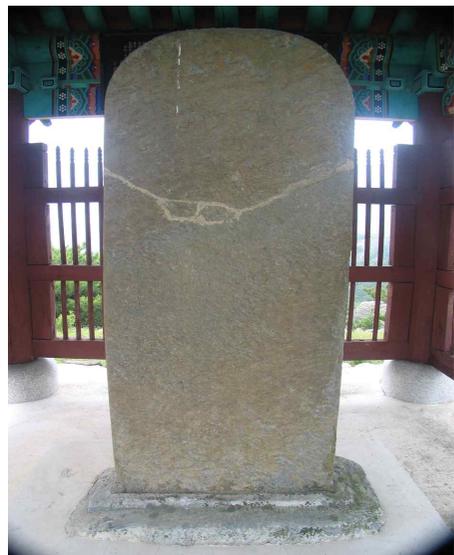
강원도문화재 자료 107호

현재 소공대비가 세워져 있는 비각은 1988년 중건하였으나, 1990년에 태풍으로 비각이 무너지고, 비석의 상단 부분이 완전히 부러졌다. 다음 해인 1991년 문화재연구소에서 부러진 비체(碑體)를 접착시킴으로써 비석을 원상 복구하였다. 그리고 삼척군의 지원으로 비각을 다시 세운 후, 1994년에 장헌경(張憲敬)이 글을 짓고, 일죽(一竹) 홍태의(洪泰義)가 서각(書刻)한 <소공대비각중건기(召公臺碑閣重建記)>를 걸었다.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과 비좌만으로 만들었는데, 비의 윗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원수(圓首)와 방형(方形)의 비신 받침인 방부(方趺)를 갖추고 있다.



소공대비 비각



소공대비

Ⅲ. 삼척지역의 민속과 전통지식

1. 삼척시 도계읍 점리 천제

가. 개요

삼척시 도계읍 점리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제당 이름은 천제단이고, 모시는 신령 또한 천신이며, 천제봉 9부 능선 쪽에 위치해 있다. 천제단은 소나무 아래에 돌담을 둥글게 두르고, 그 내부에 돌로 쌓은 제단을 설치한 후 제단 위에 천신을 모시기 위한 돌 하나를 위패처럼 세운 후 여기에 실을 둘러 한지를 매어 두었다. 천제단은 동남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틀어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원래 천제단이 제단 형태로 있었으나 2006년 화재가 난 후 급조하여 제당 형태로 건립하였다. 이후 지난 2015년 3월 30일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제당 건물을 헐고 위와 같은 형태로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도계읍 점리 천제단 건물을 신축한 후 제당 내부에 걸은 편액에 그 유래를 적었는데, 이 편액을 통해 유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天告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수백년 전부터 점리 주민이 오래된 노송 밑에 천신, 지신, 산신께 3년에 한번 씩 제사를 올리고, 동네 모든 재앙이 없게 빌며, 복을 기원하였음. 오랜 세월이 흘러 노송이 수명이 다 되어 고사된 상태에 이르러서는 외부인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중 촛불이 넘어져 모신 고사목이 화재를 만나 전소되어 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서기 2006년 丙戌 음력 5월 천제당을 짓게 되었다. 목수 박흥신, 장운봉.

인근에 위치한 태백산에서 매년 천제를 지내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은 점리 천제단이 태백산 천제단과 별개라고 여기고 있다.

점리 천제는 3년에 한 번, 음력 3월 중에 날을 받아서 지내는데, 구체적으로 만 2년만에 지낸다고 볼 수 있다. 천제를 지낼 때 소를 잡아서 지냈으나, 언제부터인가 암돼지를 잡아서 천제를 지내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마을 기금이 있음에도 제수 비용은 성심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십시일반으로 내어 정성을 모아서 지낸다.

점리에는 하위 마을 단위, 즉 반별로 서낭이 있어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고사를 지낸다. 그러나 점리 주민들은 천제단에서 모시는 천신을 더 높게 여기며, 서낭은 반 단위, 개인별 안위를 위해 모신다고 한다.

참고로 점리 1반에서는 성황당이 2개있었는데, 아래 성황은 마을 주민들이 모시고, 위의 성황당은 개인이 모셨다고 한다. 마을 단위로 지낸 서낭제사를 ‘당고사’라 하였으며, 제일은 음력 정월에 날을 받아서 자시에 올렸으나, 날이 추워 지금은 단오날 자시에 마을 전체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모셨다. 모신 신령은 산신, 서낭, 지신이며, 당시 준비한 제물은 메 3그릇, 술 3잔 등 기제사와 비슷하게 준비하여 지낸다.

음지마을에는 개인 서낭이 있었다고 한다.

안음달은 점리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4집이 살고 있어 예전에는 모두 서낭을 모셨으나, 지금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다니고 해마다 5월 단오날 모신다. 이를 ‘서낭고사’라 부른다. 제물은 백설기, 포, 과일, 메 한그릇, 물, 돼지머리이고, 술은 집에서 담아서 준비하였다. 옛날에는 “강녕이(강녕이) 모아서 뉘말씩 해가지고 싹 내가지고 뿔아서 끓이고 큰 독에 해서 먹고 저녁에 모여서 하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웃치고 놀고” 그랬다고 한다. 서낭고사 비용은 마을에서 돈을 모아 충당하였는데, 2만원보다 더 거뒀다고 한다. 제물 준비하는 집을 당주라 하고, 당주는 그 해 생기가 맞아야 된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갔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약아서 그렇지 5월 단오에 간다. 깨끗한 분들만 가서 절을 한다. 집집마다 대주 소지를 올리는데, 아들네도 올려준다.

점리 마을 천제단에는 점리를 구성하는 모든 마을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천신을 모셔서 점리 전체를 위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하위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화합, 단합을 도모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하위 마을 단위로 있는 서낭당은 해당 마을의 안위를 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점리에서 천제단에서 기우제나 역질 구축을 위한 제의는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높이 매우 많아 물이 풍부하였으며, 산간 지역이어서 역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물어서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물이 풍부하므로 용왕제도 당연히 안 지냈다고 한다.

나. 전승주체

현재 삼척시 도계읍 점리 천제는 점리 전체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마을 이장과 하위 마을 반장 등 마을 지도자, 그리고 복재 등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점리는 원래 12개 반이었으나, 현재 7개 반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전승지역은 도계읍 점리 7개 반 전체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 전승방법

점리 천제는 점리에서 수 대에 걸쳐 살아온 마을 어르신들의 지도와 마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주도, 마을 주민 전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3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전승되고 있다. 원래 하위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고사를 지내지만, 천제는 이들 모든 하위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이장과 반장들, 부녀회 등의 동참 요청에 적극 호응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라. 전승의 실제 및 특징

점리 천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는 제물은 희생으로 돼지를 올린다는 것이다. 돼지는 천제 전날 당주댁 마당에서 잡는데, 2015년에는 당주인 장○○이 특정 시간은 정하지 않고, 마을 내 반장들과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였다. 목을 탄 후 돼지털을 거슬리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 면도하는 방법으로 털을 제거하고, 부위별로 해체하였다. 돼지 고기는 통돼지 형태로 올리는 것은 아니나 머리, 갈비, 살 등 모든 부위들을 골고루 올린다.

제관은 3분을 모셨는데, 초헌관은 점리 이장님, 아헌은 당주, 종헌은 노인회장님으로 선정하였으나, 선임 후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어 박**(71세)이 담당하였다. 제물 준비는 7개 반 반장과 지도자들이 당주를 도와주는 형태로 준비하였다.

천제에는 부정이 없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2015년에는 반장 위주로 뜻있는 분 여럿이 참여하였다. 천제를 지낸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제는 2015년 4월 21일(음력 3월 3일) 자시에 지냈으며, 제관들은 청포를 입고 지냈다. 당주와 제관들은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천제당 앞에서 짚을 태워 여기를 넘어가서 부정을 가서 내었다. 이 때 당주가 먼저 건너가고, 제관들이 뒤이어 지나갔다.

천제단 입구에는 미리 금줄을 걸어 부정을 막으려 하였다. 제관들은 천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기 전에 신문지 펴고, 그 위에 한지를 덮어 제물을 진설하였다. 진설한 제물은 총 3상(천신, 산신, 토지)으로 돼지머리와 떡[백설기] 시루는 1개, 돼지 갈비 2접시, 메, 술, 채소(무, 시금치, 고사리), 포, 돼지고기 삶은 산적, 오징어 포, 3실과 배, 사과 등이다. 중앙에 천신 위목지를 매고, 제수는 왼쪽부터 천신, 산신, 지신을 위한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을 진설한 후 세워진 돌에 매어 두었던 위목지를 제거하고 새 위목지를 돌에 실을 이용하여 매었다.

진행한 제의 순서는 초헌관이 분향한 후 재배, 강신, 재배, 술을 한 잔 땅 바닥에 3번 나누어 부은 이후 참여자들 모두 절을 2번 하였다. 이후 초헌관이 잔을 각 신위별로 3올린다. 이후 개반, 삼시를 한 후 참석자 모두 부복한 후 축관이 축문을 읽었다. 축문은 천황·산령·지황을 모셔서 마을에서 영원하는 것을 축원하는 축문이다. 축문을 다 읽은 후 참여자 전원이 재배한 후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각각 3잔씩 올린 후 재배하였다. 이후 갹물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점리 7반에 거주하는 장○○ 님이 담당하였는데, 그가 구송한 말을 일부 소개하면, “삼월 초이튿에 날을 받아 천신 산신 지신님을 모셔서 소지 1장을 올리겠다.”고 구송한 후 운수대통하고, 재수소망하고 등 나쁜 액은 물러가라고 복

을 받으라고 소지를 올렸다. 천신, 산신 지신을 위한 소지를 순서대로 1장씩 올린 후 마을 소지를 올리고, 제관들 소지도 각각 올려주었다. 이후 이장, 반장을 비롯하여 개별 소지를 올려 준 후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개별 소지를 올려주었다. 소지를 모두 올린 후 참여자 모두 합동 재배를 하여 천제를 마쳤다. 이후 천제에 참여한 일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올리고 재배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관과 당주 등은 음복을 하였다.

천제를 지낸 후 당주집에 제관들과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수를 함께 먹었으나, 지금은 오전 중에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마을 잔치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점리 천제는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 공동체 신앙 형태였기에 반 단위 서낭고사보다 제물이 풍부하고, 마을 주민들 모두를 아우르는 목적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의 절차와 소지 올림, 제의 후 전체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다.



도계읍 점리 천제단 전경(김도현, 2015년 4월 20일)



도계읍 점리에서 천제를 지내기 위한
진설(김도현, 2015년 4월 21일)



도계읍 점리 천제에서 축문을
읽음(김도현, 2015년 4월 21일)



도계읍 점리 천제에서 제관, 집사들이
절을 함(김도현, 2015년 4월 21일)



도계읍 점리 천제에서 소지를
올림(김도현, 2015년 4월 21일)

2. 도계리 긴잎느티나무와 도계 영등제

천연기념물 제95호

소재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번지

긴잎느티나무는 느티나무의 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흔치 않은 나무인데 일반 느티나무 보다 잎이 더 길고 좁다.

도계읍의 긴잎느티나무는 나이가 1,000여 년 정도된 매우 오래된 나무로 추정되며, 높이 30m, 둘레 약 9.10m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서낭당 나무로 섬기며 행복과 평안, 번영을 기원해 왔으며, 옛날에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 피난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입학 때가 되면 합격을 빌며 치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나무가 학교 운동장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나무로 서낭당 나무를 바꾸려고 하자 이 나무의 노여움을 사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고 한다.

도계읍의 긴잎느티나무는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나무에 영혼을 부여하여 신성시 해온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매년 올라가는 영등날인 2월 15일(음력)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아래에서 도계영등제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등제가 열린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조직화된 기구가 주관한 것은 2015년 기준으로 3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영등제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 단위로 (음력) 2월 1일 내려오는 영등날이라고 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영등제사를 지내고, 올라가는 영등날인 (음력) 2월 15일까지 매일 청수를 갈아주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계지역에서는 올라가는 영등날에 도계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서낭당으로 위해지는 긴잎느티나무 아래에 제단을 마련하여 영등제를 지낸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점이다. 물론 미로 내 몇 개 마을, 하장면 지역에서도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영등날을 맞이하여 마을 주민들의 화합 잔치와 율놀이 등을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영등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신 뿐만 아니라 태백산신

과 후토신을 모셔서 유교식으로 성대하게 영등제를 지내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지역만의 민간신앙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계 영등제 전경(2015년)



도계 영등제에서 제관이 술을 올림

제관은 초헌관 도계읍장, 아헌관 도계지역 시의원, 종헌관 도계영등제운영위원장이다. 이와 같은 제관 구성은 도계읍을 대표하는 민간신앙 제의임을 잘 보여준다. 영등제를 지낼 때, 참여한 인사들과 함께 동참한 도계지역 주민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영등제에 임하였다.

긴잎느티나무 아래에 별도의 제단을 설치하여 제관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영등신, 오른쪽에 후토신을 위패 형태로 모셨고, 제물은 3신위를 모셨기에 3상 준비하였다. 그러나 돼지머리는 태백산신령 상에만 진설하였고, 떡은 팔시루떡, 가래떡, 송편을 각각 한 시루씩 준비하여 진설하였다. 팔시루떡은 영등신 앞에, 가래떡은 태백산신령 앞에, 송편은 후토신 앞에 진설하였다.

이전에는 도계지역 주민들이 쌀이나 금전을 성의껏 내어 영등제를 지냈고, 탄광을 중심으로 석탄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광산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영등제를 지냈다고 한다. 최근에는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 제95호이기에 문화재청과 삼척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강원랜드와 강원남부 주민주식회사에서도 경비를 지원하기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홍보하며, 도계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였다.

도계영등제를 알리는 현수막에 ‘안녕’과 ‘번영’이라 쓴 것으로 보아 영등제의 목적이 도계지역의 ‘안녕’과 ‘번영’임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안녕

과 함께 읍민 평안, 풍년 농사, 재해 예방을 현수막에 적었으며, 축문을 보면 마을제사를 지낼 때 일반적으로 기원하는 요소와 함께 탄광 사고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기원임을 알 수 있다.

영등제이기에 영등신을 모시는 제의인데, 태백산신과 후토신을 모신 것은 세시풍속으로서의 영등제가 지닌 외형적·내면적인 측면에서 원래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도계지역이라는 기후·생업 환경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다면 도계지역 나름대로의 성격을 내재한 영등제로 볼 수도 있다.

3. 삼척 궁촌리 음나무와 단오굿

천연기념물 제363호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번지

음나무는 보통 엄나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중국·만주·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 연한 잎은 나물로 먹고 가지가 있는 가지는 악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이 나무로 6각형의 노리개를 만들어 어린 아이에게 채워 줌으로써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음’이라고 하여 음나무로 불렸다.



근덕 선흥 음나무 전경

이 음나무는 나이가 약 1,000년 정도이며 높이 18m, 둘레 5.43m의 크고 오래된 나무이다. 나무 둘레에는 돌담을 쌓아 보호하고 있는데, 담 안에 고욤나무와 뽕나무가 있고, 담 밖에는 큰고욤나무, 향나무, 소나무가 서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특히 음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 나무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이 나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과 단오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단오 때는 그네뛰기, 널뛰기, 농악놀이 등 잔치를 벌인다.

이 음나무는 오랜 세월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자라온 민속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음나무 중의 하나로써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마을 내 제의 구조는 모든 마을을 관장하는 천제단, 할아버지당, 할머니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단오에 굿을 하는 곳은 할머니당으로 여기는 천연기념물 제363호로 지정된 삼척 궁촌리 음나무 아래에서 연행한다.

매년 단오에 굿을 할 때 굿당에 모시는 신령은 할아버지 서낭과 할머니 서낭인데, 할아버지 서낭은 할아버지 서낭당에서 모셔 와서 단오굿을 한다.

굿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무당을 선정하고, 마을 부녀회에서 주민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굿당에 진설할 제물은 주무로 선정된 분이 주도하여 준비하며, 지화·용선·허개 등은 별도로



공양왕 관련 이야기가 전하는 음나무와 그 아래에서 설행한 선흥 단오굿 (2012년)]

위뢰받은 법사님이 제작하여 장식하였다.

굿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한 보살이 개인별로 점상을 보고 소지를 올려 주었다. 그리고 굿당 입구에 궁촌 단오굿을 늘 주재하다가 돌아가신 무녀를 위한 수부상을 차려두었다. 이를 통해 궁촌 서낭굿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음나무를 신목으로 모신 마을 공동체를 위한 굿이면서, 개인적으로 각 가정의 조상을 모셔오며, 개인의 신수를 보아 각종 액살을 막고, 옛날에 궁촌 단오굿을 주재하였던 무녀도 모셔서 위하기에 마을 내 마을 공동체와 개개인,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들 모두의 화해동참과 소통, 화합을 추구하는 굿이다.

굿을 하는 동안 마을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굿당 내에 마련된 자리를 지키며, 굿을 보면서 개인 소지를 올렸다. 그리고 무당이 굿을 할 때 준비한 돈을 별비로 무당에게 꼽아 주었다. 그리고 마을 부녀회에서는 각종 안주와 술, 식사 등을 준비하여 이들 어르신들을 대접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굿을 통해 세대 간 화합과 소통, 각종 액살을 막고 축원을 하는 무당들

의 구송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이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쌀이나 금전을 성의껏 내어 단오에 굿을 하였다.

궁촌 선흥마을 엄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1392년 조선이 개창되면서 강원도 원주로 유폐되었다가 얼마 후 간성으로 쫓겨 가고, 다시 삼척으로 옮겨진 공양왕은 고려가 멸망한 지 2년 만에 왕비와 두 아들과 함께 목 졸려 죽는다. 그를 죽인 이성계의 변명은 이렇다. “여러 신하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나 내가 여러 날 동안 버티었소. 이제는 마지못하여 억지로 따르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잘 알아주소”

이성계가 보낸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궁촌 마을의 서쪽 끝 작은 개울가에는 높이가 20m에 나무 둘레가 5.4m나 되는 엄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있다. 나이는 700년에서 길게는 1,000년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 엄나무 중에는 가장 큰 ‘왕엄나무’다. 이 나무에는 공양왕이 잠시 머문 집의 마당이라는 전설이 있다. 간성에 있다가 1394년 3월14일 삼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의 궁촌 마을로 짐작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그는 궁촌리에 오면서 더욱 다급해졌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커다란 엄나무가 있는 집을 찾았을 것이다. 엄나무는 아주 옛날부터 귀신을 쫓고 불행을 몰아내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다. 마지막 삶의 희망을 오직 이 나무에 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곳에서 한달 남짓 살다가 4월17일, 엄나무의 효험은 보지도 못하고 474년 34대를 이어오던 고려왕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실록에 ‘교살(絞殺)시켰다’하였으니 전설이 사실이라면 당시에 도 커다랗게 자랐을 이 엄나무에 목매달려 죽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비극의 현장을 외면하였던 마을 사람들은 사자가 떠나자 팽개쳐진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지내려 하였다. 그러나 상여꾼들은 얼마를 가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어버려 꼼짝 못하였다한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산소를 만든 곳이 지금의 공양왕릉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동해 바다를 뒤로 등진 야산 중턱에 크고 작은 무덤 넷이 모여

있다. 큰 무덤이 공양왕과 왕비, 작은 두개는 두 왕자, 작은 무덤은 말 무덤이거나 시녀 무덤이라 한다. 공양왕릉은 경기도 고양시에도 또 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정황으로 보아서는 궁촌리가 진짜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땅 이름도 임금이 유배된 곳이라 하여 궁촌, 마을 뒷길 고돌산에서 살해되었다고 하여 살해재, 왕자 석이 살았다는 궁터, 말을 매던 마리방 등이 있다. 이런 엉뚱한 곳에 왕릉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지나온 역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나무의 둘레에는 아담한 돌담을 쌓았고 앞에는 대문까지 달아 두었다. 담 밖에는 향나무와 소나무 한 그루가 엄나무를 호위하듯이 모여 작은 숲을 이룬다. 오랫동안 성황당을 에워싸는 나무로 보호받아온 것이다. 매년 음력 정월과 단오에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무에 금줄을 치고 치성을 드리는 나무일 따름이다. 600년 세월은 공양왕의 통한을 완전히 묻어버리고도 남는다. 이제는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흔적은 바람결에 스쳐갈 따름이다. 공양왕과의 슬픈 인연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혼자만 싱싱하게 살아가고 있는 엄나무의 모습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듯하다.

4. 삼척지역 전통 가옥에서 '코클'

'코클'은 산촌이나 농촌 가옥에서 조명과 부분 난방을 위하여 안방이나 사랑방에 반원통형 또는 반원뿔형으로 설치한 시설이다. 코쿠리, 코쿨이, 코굴, 콧골, 코쿨, 고쿨이라고도 한다.

가. 개관

초와 기름이 귀하던 시절에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관솔[광솔]을 이용하여 겨울에 안방이나 사랑방을 밝히는 조명 기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부분 난방 기능을 수행한 코클은 생김새가 사람의 콧구멍과 비슷하다 하여 '코굴'이라고 부르던 데서 유래한다.

지붕에 까치구멍이 있는 두령집[井字形]이나 전자집[田字形]의 안방 또는 사랑방 모서리에 주로 설치된다. 구조는 관솔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아궁이, 연기를 배출하면서 데워져 부분 난방 기능을 하는 기둥, 정지[부엌]나 봉당의 벽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구[코클 구멍]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클 아궁이 바닥은 10cm 전후 두께의 편평한 돌을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서 만든다.

나. 내용

연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고 배연구로 외부 바람이 유입되지 않아, 관솔 연기가 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옥의 내부에 해당하는 정지[부엌]나 봉당과 맞닿아 있는 벽과 찬바람에 직접 노출된 방의 외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코클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코클은 주로 안방이나 사랑방에 설치된다. 봉당이나 정지와 맞닿아 있는 벽면이 매우 넓은 큰방 양쪽 모서리에 2개를 설치한, 울진 12령에 위치한 주막 사례도 있다.

코클은 사용하는 사람이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높이에 코클 아궁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방바닥으로부터 30~50cm 높이에 위치한다. 코클의 윗부분과 천장 사이 거리는 대체로 20~45cm이다. 그러나 삼척시 원덕읍 동작골에 있는 가옥 등에서는 천장과 코클 윗부분이 맞닿아 있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코클 윗부분이 천장 가까이에 있는 이유는 코클 기둥을 길게 하여 부분 난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기를 정지나 봉당의 윗부분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삼척시 원덕 지역에서는 코클 입구를 ‘코클 아궁이’라고 한다. 코클 아궁이 바닥은 물푸레나무를 가로지른 후 그 위에 두께 10~11cm, 너비 30~34cm 크기의 편평한 돌을 올린 형태이다. 돌을 코클 아궁이 바닥재로 사용한 이유는 관솔을 지피는 공간이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 강도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클 아궁이 바닥돌이 아궁이에서 앞으로 튀어 나오게 만든 사례도 있다.

코클 아궁이 입구는 장방형이다. 그 크기는 가로 23~39cm, 세로 12~18cm이다. 그리고 코클 아궁이의 윗부분이 앞으로 튀어 나오게 만든 사례도 있다. 이는 연기가 코클 아궁이에서 방 안으로 나오게 하거나 코클 기둥이 연기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코클의 전체 크기는 가옥마다 다르나 보통 높이 120~175cm, 아랫부분 둘레 65~70cm, 윗 부분 둘레 45~55cm이다. 이 수치를 통해 코클의 아랫부분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굴피집을 비롯하여 일부 사례에서는 아래 부분이 넓고 윗부분이 매우 좁은 원추형으로 설치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코클 윗부분이 완만하게 구배져 있다. 이는 코클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부엌이나 봉당 벽에 설치된 코클 구멍을 통해 잘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구 지름은 13~15cm이며, 별도의 연통이 없고, 부엌이나 봉당의 천장 아래 가운데 바깥 모서리 부분의 귀퉁이에 설치된다. 코클 구멍을 통해 배출된 연기는 지붕을 덮은 너와나 굴피 사이 또는 까치구멍을 통해 집 밖으로 배출된다.

삼척시 대이리 굴피집에서 코클을 만든 사례 중심으로 제작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코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물푸레나무나 싸리나무, 진흙, 두께가

10cm, 너비가 30~40cm 정도인 넓적한 돌, 벗짚이다. 물푸레나무를 베어 와서 이를 세로 방향으로 쪼개어 갈비뼈처럼 코클의 가로 방향으로 배치한 후 세로 방향으로 침줄이나 새끼줄로 묶어서 고정시킨다. 가로 방향으로 설치한 물푸레나무 뼈대에도 침줄이나 새끼줄로 감은 후 잘 이긴 진흙을 발라서 벽체 형태의 코클 연통을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진흙에는 미리 잘게 썰어 둔 벗짚을 섞어서 접착력을 높인다. 코클 윗부분부터 준비한 진흙을 골조에 손으로 붙여 잘 다지면서 두드려 형태를 만든 후 맷질을 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코클 아궁이 바닥은 계곡이나 하천에서 가져온 삼각형 또는 네모난 돌을 코클에 맞게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잘 다듬어서 가로 방향으로 설치한 물푸레나무 위에 올려 두고, 받침돌 주변 모서리 부분은 진흙 반죽으로 마무리한다.

코클에 불을 지피는 재료는 관솔이나 겨릅(삼의 속대)이다. 소나무를 벤 후 4~5년 지나면 외부는 썩어 없어지고 내부의 심재만 남는다. 이를 관솔이라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나무의 뼈로 여겨서 '뼈만 남는다'고 표현한다. 관솔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쪼개어 작은 조각을 만들 때 큰 도끼를 이용하여 20~50cm 길이로 다듬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 이를 좀 더 작게 쪼갬다.

관솔 끝의 뾰족한 부분에 불을 붙이며, 웅이가 있는 부분이 좀 더 오래 탄다. 코클 아궁이에 3~5개의 관솔 조각을 포개어 불을 지핀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관솔 조각을 아껴 썼다고 한다.

코클의 연기는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굴피나 너와가 습기 머금은 것을 막아 주고, 각종 벌레를 퇴치하여 굴피나 너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코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곳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삼척시 대이리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코클 구멍을 헹겊이나 수건 멍치로 막는다. 삼척시 도계읍 신리에서는 짚을 이용하여 만든 코클 아궁이 마개로 찬바람이 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한다.

다. 특징 및 의의

전통 가옥에서 실내조명을 위해 사용한 기구는 등잔과 호롱을 비롯하여 정지와 봉당을 함께 밝혀 주는 두등불[두등불], 안방이나 사랑방에 설치한 코클이다. 이 가운데 코클은 강원도와 경상도를 비롯하여 산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소재한 가옥에 주로 설치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집에 설치한 사례는 거의 없다.

코클을 사용한 사례를 보면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짤 때 조명 유지와 함께 방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특히 겨울에 코클의 온기로 무릎을 따뜻하게 하여 삼실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를 이어서 삼베를 삼았다고 한다.

실내를 밝히기 위해 등잔이나 호롱과 함께 코클을 사용한 이유는 코클의 불이 방 안을 매우 밝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실내를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삼척 신기면 대이리 너와집 사랑방에 설치된 코클



삼척 신기면 대이리 너와집 사랑방에 설치된 코클 아궁이



삼척 신기면 대이리 너와집 사랑방에 설치된 코클



삼척 신기면 대이리 너와집 정지에 설치된 코클 구멍

5. 삼척지역 은어잡이 전통 지식

내수면 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 중 하나인 은어는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특산물로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은어를 잡는 전통과 이를 다양한 음식으로 먹는 전통은 지금도 잘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은어가 잡히는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은어 잡는 방법과 이를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전통 지식은 잘 전승되고 있다.

가. 관련 기록 및 전승 환경

조선시대의 강원도지역 관련 각종 지리지를 보면 동해안 전 지역에서 은어가 특산물이고, 이를 공납으로 올렸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宮中食의 기록에서는 은어는 9~10월 사이에 식재료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은어 생태와 이를 이용한 은어잡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어는 바다에 안 들어가고 바다와 민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데, 9~10월에 알을 낳으면, 알에서 부화된 은어 치어는 하류(바다와 민물 경계)로 내려가서 겨울을 지내다가 봄인 음력 3~4월이 되면 올라오기 시작하는 은어를 썬리질 하여 잡기 시작한다. 이 때 잡은 은어는 작다.

은어가 자생하는 강의 상류에 샘물이 있는 곳이 조금 따뜻하기에 여기서 겨울을 나는 '묵사리'라 불리는 은어가 있다. 이들은 이미 조금 크기에 일찍 커서 상류로 올라와서 도모(은어 미끼로 낚는)를 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한다. 즉, 하류에서 잡히는 은어는 1년생임에 비해 묵사리는 2년생이어서 6월부터 도모를 할 수 있는 크기로 자랐기에 다른 개체보다 크다.

즉 매년 6월에는 묵사리(치어가 크지 못하니)가 크기에 이 때 묵사리를 도모로 잡고, 7~8월에는 치어가 자라서 커지므로 도모로 잡을 수 있다. 삼척 오십천에서 은어는 신기면 마차리까지 올라가는데, 상류로 갈수록 큰 은어를 잡을 수 있다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에서 상류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며 서식하는 은어이기에 봄에는 주로 강의 하류에서, 여름에는 강의 중상류 지역에서 큰

은어가 잡힌다. 즉, 은어는 9월쯤 상류에서 다시 하류로 내려와서 삼척 오사리나 남양동 등 바다에서 가까운 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나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은어는 여름철 장마가 자주 와야 빨리 큰다고 한다. 왜냐하면, 흙탕물이 나가면 크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흙탕물에 자양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어가 먹는 이끼는 청태가 아닌 갈색 이끼이다. 이에 돌에 갈색 이끼가 있는 곳에 은어가 많기에 은어를 잡기에 유리하다.

물이 차면 은어는 움직임이 작아서 은어의 움직임이 둔해지기에 낚시로 잡기 어렵다. 이에 일단 물이 일단 따뜻해야 은어의 활동이 활발하여 은어 낚시하기가 좋다. 그리고 은어 낚시는 주로 물살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기 좋다. 특히 초보자들은 물살이 있으면서 수심은 70~100cm 정도 되는 곳이 유리하다.

은어는 8월 중순 이후 잡는 것은 대부분 알이 들어 있다. 알은 은어를 손질할 때 그대로 은어 안에 둔 채 말리거나 튀기면 맛있다. 일본인들은 은어 알이나 열을 빼어 먹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은어잡이는 은어가 잡히는 큰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승되며, 이를 요리하는 것은 은어를 잡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은어를 집에 가져온 이후에 튀김 등의 요리를 하게하면 여성들이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은어잡이의 주요 전승 주체는 은어를 잡는 사람들과 이를 요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나. 은어잡이

은어를 잡는 방법은 썩리질, 곤쟁이 낚시(공갈낚시), 은어를 미끼로 큰 은어를 잡는 도모(뽕고기, 돌림낚시)가 있다. 즉 봄에 파리 낚시로 작은 은어를 잡으며, 7~8월 사이에는 낚시를 이용하여 비교적 큰 은어를 잡는다. 작은 은어를 잡을 때는 물의 흐름이 좋은 곳에서 곤쟁이 낚시로 잡는다.

동해안에서 은어 잡는 시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은어 낚시를 하는 시기는 하루 중 낮에 주로 잡는다.

썩리기나 공갈 낚시는 4~5월경 해 지기 30분 전에 제일 잘 된다. 이때

날파리가 많이 나는 시간대인 이 때 이들을 먹기 위해 작은 은어들이 물 위로 튀어 오른다. 이때는 작은 은어들이 주로 잡힌다.

이미 일정한 크기로 자란 은어들은 ‘청때(갈색 이끼도 청때라고 함)’ 등 이끼를 먹기에 곤쟁이 낚시 등 미끼 낚시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정 크기 이상의 은어들은 영역 싸움 습성을 이용한 도모로 잡아야 한다.

썩리질은 두 발 정도(3.5~4m)되는 길이의 대나무로 낚시대를 만들어 하는 낚시이다. 미끼는 돌에 붙은 1cm 되는 집을 짓고 사는 애벌레(구더기보다 작은)를 잡아서 미끼로 사용한다.

곤쟁이낚시(공갈낚시)는 곤쟁이를 미끼로 사용하여 은어를 잡는 낚시인데, 주로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은어를 잡는 낚시이다. 하천 안쪽으로 들어온 은어를 잡을 때는 가짜 미끼를 이용하여 은어를 잡는 파리낚시를 한다. 이는 은어가 수면 위를 나르는 하루살이를 잡아먹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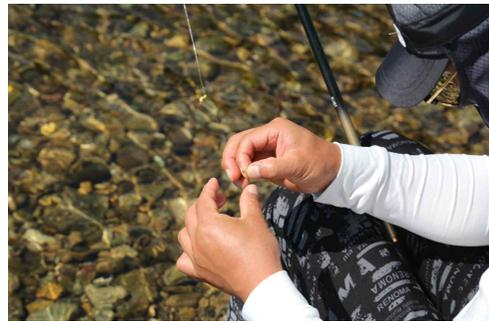
일명 도모(뿡고기)라 불리는 은어잡이는 은어를 미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강의 하류에는 작은 은어가 잡히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중류쯤에는 제법 큰 20~30cm 정도 크기의 큰 은어를 잡을 수 있다. 은어는 배타적이어서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습성이 강하여 이를 이용하여 잡는 낚시법이다. 참고로 은어 1마리의 활동 권역은 1m²이다. 이에 은어를 한 번 잡은 자리에는 은어가 없으니, 반드시 1m 이상 이동하여 낚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은어를 잡는 과정은 활동량이 많아서 운동이 많이 된다. 은어를 잡기보다는 이를 위해 은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큰 은어를 잡는 방법은 미끼로 사용할 은어를 곤쟁이 낚시로 잡은 후 이를 은어 아가미에 낚시 바늘을 꿰 후 은어의 움직임이 많은 뒷부분에 작은 삼중 낚시를 꿰어 은어를 유인하여 잡는 돌림 낚시로 잡는다. 돌림 낚시는 은어가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속성이 강하기에 이를 이용한 낚시법이다. 몸놀림이 좋지 않은 은어는 바꾸어서 계속 낚시를 한다.

물이 차면 은어의 활동이 줄어 낚시로 잡기 힘들다. 이에 평소에 은어를 잡다가 비가 오면 2~3일 지나서 수온이 올라가면 은어 낚시를 한다. 그리고 은어는 이끼가 낀 돌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기에 그 주변에서 주로 은어 낚시를 한다.



가곡천 하류에서 썬리질을 하여 은어를 잡는 모습



가곡천 하류에서 곤쟁이 낚시로 잡은 작은 은어 낚시 미끼를 끼는 장면은 은어



오십천 중류지역에서 돌림낚시를 위해 오십천 중류에서 돌림낚시를 하는 전경은 은어 뒷부분에 삼중 낚시를 끼운 모습

다. 은어를 활용한 요리

이와 같이 잡은 은어를 먹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화덕구이로 훈제 은어를 만들어 먹거나, 은어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회로 먹고, 은어구이, 추어탕, 찌개에 넣어 먹기도 한다. 그리고 은어밥, 은어튀김, 은어 조림을 하여 먹기도 한다.

은어 튀김은 밀가루 반죽을 물게 만들어 은어에 밀가루 반죽을 살짝 입히고, 튀김 가루도 조금 묻혀서 한번 튀긴 후 꺼내었다가 다시 튀겨 놓으면 은어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며, 식으면 맛이 덜하다. 은어 튀김을 하기 위하여 먼저 은어의 내장을 빼서 손질한 후 소금간을 하여 두었다가 밀가루와 튀김가루를 묻혀서 기름에 튀긴다.

여름의 은어는 수박향, 구체적으로 덜 익은 수박향이 난다고 한다. 이에 회로 먹는 사례들도 있으나, 지금은 기생충 감염을 우려하여 회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회로 먹는 은어는 껍질이나 뼈를 바르지 않고 그대로 사선 방향으로 썰어서 먹는다. 봄에 잡은 작은 은어는 머리를 잡고 통째로 먹는다고 한다.

훈제 은어는 화덕구이를 하여 만든다. 훈제 은어를 만들기 위한 화덕을 6월 경에 마당에 크게 만들어 은어 훈제 도구로 사용한다. 화덕은 진흙으로 짓이겨 만드는데, 화덕의 위는 연기가 빠지게 7~10cm 정도의 구멍을 만든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3~4개 정도의 숨구멍[공기 구멍]을 작게 내어 왕겨가 서서히 타도록 한다. 이와 같이 만든 화덕은 여름 내내 은어 훈제용으로 사용한다.

훈제한 은어는 놀노리하게 되어 그 맛을 더하는데, 큰 은어는 아가미 쪽이 약간 노란색을 띠는다고 한다. 화덕에 훈제를 할 때 한 번에 1두름(20마리) 정도의 은어를 꽂아 은어를 훈제한다. 화덕에는 왕겨를 넣어 불을 붙이고, 왕겨 더미에 은어를 대나무나 싸리 꼬챙이, 오뎅 꼬챙이에 아가미를 꿰어 왕겨 위에 세워둔다. 왕겨가 10시간 정도 서서히 타면서 훈제 은어가 만들어진다.

훈제된 은어는 한지로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싸서 20마리 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는데, 20마리 묶음을 1축 또는 1두름이라고 한다. 훈제 은어는

그냥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훈제할 때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하기 때문이다. 술안주나 반찬으로 훈제 은어를 먹었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이를 안주로 내어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삼척시 미로지역에서는 예전에 집안 제사에 훈제 은어를 제물로 올렸다고 한다.

훈제 은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은어는 20cm 이상 되는 은어로 만드는데, 삼척시 미로지역에서는 25cm 정도 되는 은어를 큰 은어로 여긴다.

은어 추어탕은 은어를 갈거나 통은어로 추어탕을 끓인다. 다른 고기와 함께 섞어서 추어탕을 끓이는데, 은어를 넣으면 독특한 향이 나는 추어탕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은어가 귀하기에 이와 같은 추어탕은 많이 안 해 먹었다고 한다.

은어구이는 약간 말린 은어를 숯불에 구워 먹거나, 바로 잡은 생은어를 구워 먹는 것을 이른다. 바로 잡은 생은어는 푸른 갈대를 석쇠에 깔고 그 위에 은어를 올려 은어 구이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은어가 석쇠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생은어는 은박지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올려 은어구이를 하기도 한다.

은어밥은 밥을 할 때 사람 숫자만큼 은어를 넣어 밥을 한다. 밥이 다 되면 은어 머리를 잡고 젓가락으로 몸통을 훑으면 살이 머리·뼈와 쉽게 분리되어, 은어살과 밥을 양념으로 비벼서 먹으면 독특한 은어향을 느낄 수 있는 은어밥이 된다.

이외에도 은어를 찌개에 넣어 먹거나, 말린 은어를 조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손질한 은어를 튀기기 전에 밀가루 반죽 한 번 튀긴 은어 피를 입히는 모습



두 번 튀긴 은어

라. 은어잡이 전승지식이 지닌 가치

위에서 소개한 은어잡이 전승지식이 지닌 유산의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물고기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은어를 잡기 위한 은어 낚시는 동해안에 연해 있는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7·8월 무더운 여름에 은어를 잡는 취미 활동이면서, 이를 이용하여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으로도 여긴다. 강에 연해 있는 마을에서는 은어를 제사 음식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에 은어 낚시는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내기 위해 농한기에 망중한을 즐기는 취미이면서, 잡은 은어를 이용하여 은어 훈제, 뚜거리탕, 은어 튀김, 은어밥, 조림 등을 하여 밥상을 풍요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은어가 잡히는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어잡는 지식은 매우 소중한 전통지식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현재도 잘 전승되는 지식기에 계속 보존할 가치가 크다. 다만 은어 요리에서 은어 훈제, 은어밥 등을 만들어 먹는 전통은 매우 중요한 전통지식인데, 대부분 사라졌기에 매우 아쉽다.

6. 근덕 덕봉산 명상길, 덕봉산 내 기우제와 정월대보름 용왕제

덕봉산과 당지바위, 기우제를 지냈던 전통을 지닌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는 德峯山 아래에 있으므로 덕산리라 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 전주 이씨가 처음 살았다고 하나 알 수 없고 그 후 이리삼(李履三), 김해 김, 경주 최, 강릉 최, 박, 김씨 등이 이주해 왔다.

덕산리에 있는 덕봉산은 『척주지』에 “덕산은 해안에 있는 작은 섬으로 여기서는 전죽(箭竹)이 난다. 덕산에 옛날 회선대(會仙臺)가 있었는데 날이 가물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덕봉산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삼형제산이 강원도 양양으로부터 해상으로 떠내려 왔는데, 그 하나는 덕봉산이 되고, 둘째는 삼척시 월덕읍 해망산이고, 셋째가 울진 비래봉[혹은 영해의 죽산]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산 꼭대기에 심[산삼]물이 담긴 쇧독이 있다는 전설이 있으나 아직 쇧독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맹방 홍씨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572년(선조 5) 맹방리에 사는 홍견(洪堅)이 덕봉산에서 대(竹)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밤에 이슬을 밟으며 산에 올라갔고, 덕봉산에서 기도한 지 7일 밤에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한 그루에 다섯 개의 대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베어 화살을 만들어 무과에 응시할 때 사용하였더니 합격하였다고 한다.

덕봉산 주변에 맹방해변과 덕산해변이 있는데, 맹방해변에서 보면 섬이지만, 반대편 덕산해변과는 연결되어 있다. 즉, 덕산해변의 모래들이 덕산도를 육지와 연결시킨 육계사주에 해당된다. 이에 통제 구역이었던 덕봉산을 개발하여 덕산 해변과 맹방 해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나무 다리를 만들어 설치하고, 덕봉산 둘레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시설을 하였다. 이 산책로는 동해 바다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다 명상길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덕산리의 마을 제당은 성황당, 덕봉산에 있는 당지바위와 부소바위, 그리고 기우제를 지냈던 회선대, 양야산에 있는 봉할머니 제당이 있다. 마을제 의는 성황제, 3년에 한 번 실시한 풍어제, 어민들에 의해 행해진 동짓달 고사, 그리고 산메기가 있었다.

3년에 한 번씩 음력 8월 추석 전에 덕산 해수욕장에서 하였던 풍어제는 현재 실시하지 않는데, 옛날 풍어제를 할 때 근덕 무당들이 와서 굿을 주관 하였다고 한다.

떠내려 온 섬이라는 전설을 지닌 덕봉산에는 주변의 당지바위¹⁷⁾, 부서 바위, 기우제를 지낸 회선정 등 신앙 대상물들이 많다.

덕산 주민들은 정월 대보름에 남대천에서 목욕재계하고 당지 바위나 부서 바위에서 메, 술, 포 등을 준비하여 개인 치성을 올리고 바닷가에서 망우리 돌리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지바위에서 치성을 드린 후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용바위를 바라보며 술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당지바위에 크게 제수를 차려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풍어제를 지낼 때 물에 죽은 사람 가족들이 각자 제수를 준비하여 굿이 진행되는 과정에 올린 후, 당지바위에 가서 영혼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 치성을 드리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지바위나 부서바위, 봉할머니 제당에 겹쳐서 가는 경우는 없고, 3곳 중에 한 장소에만 가서 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마을에서 봉화산이라고도 부르는 양야산 정상에는 과거 봉수대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연통 부분이 무너진 채 월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들이 개인적으로 무당을 데리고 치성을 드려 풍어를 기원하거나, 동짓달에 해상에서 사고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어촌계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도가와 무당이 대표로 제를 올리는 제당이다. 지금도 선주 중에서 개인적으로 봉할머니 제당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17) 황일소님은 “당지신명”에서 “당지” 2글자를 떼서 당지 바위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촌계 장님인 우종술님(59세)은 “지당바위”라고 하였다.

있다고 한다.

봉할머니 제당은 여성을 상징하고, 덕봉산 옆에 있는 당지 바위는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인식하여, 어업에서의 풍요를 기원할 때 다른 해안 마을처럼 여성을 상징하는 봉할머니 제당에 가서 풍요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실시하지 않지만 과거에 실시하였던 풍어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서낭신에게 고하고 남성을 상징하는 당지 바위에 가서 제를 올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봉할머니 제당에 가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이 때 봉할머니 제당에 가는 이유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멸치 등을 후리하던 어민들 중에서 일부는 남애포 탄봉의 너른 방석(바위)에서 고사를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정월대보름 저녁에는 마읍천 또는 덕봉산 당지바위 앞 등에서 개인적으로 용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해 1년 동안 닥칠 액운을 막는 한편 건강 기원을 위하여 용왕제를 지낸다.



근덕 덕봉산 아래 당지바위와 제단 전경

IV. 삼척지역의 자연 유산

1. 대금굴

천연기념물 제178호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대이리 산25번지

석회동굴은 가장 많이 알려진 카르스트지형으로서 규모와 내부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지표면 아래 석회암 내부의 절리와 층리면을 따라 이루어지는 용식(溶蝕: 암석의 가용성 물질이 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용해되고 그로 인해 암석이 파괴되는 과정) 작용으로 인해 크고 넓은 공동이 생성되면서 만들어진다.

대금굴이 속한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에는 환선굴, 관음굴, 양터목세굴, 덕밭세굴, 제암풍혈, 큰재세굴 등 다수의 석회동굴이 분포한다. 이 지역은 고생대 조선계 대석회암통 하부 지층에 속하여 풍촌석회암층이 두텁고 넓게 발달해있다.

물골이라 불리우는 골짜기에 있는 대금굴은 해발고도 약 400m에 있다. 2003년 2월 25일에 발견되어 2006년 6월 20일에 현재 이름으로 명명되어 천연기념물 제178호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에 추가되었다. 동굴 입구 크기는 폭 3m, 높이 4.5m, 길이는 주굴(主窟) 730m와 지굴(支窟) 880m를 합쳐 1,610m에 이른다.

남서~남서서 방향으로 발달한 수평 및 경사, 수직(폭포) 통로로 이루어진 대금굴은 전체적으로 단일층으로 이루어지며, 수직통로의 연장이 거의 없는 수평굴이다.

‘대금굴’이라고 부른 이유는 황금색의 화려한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굴생성물들로 가득하여 대금(大金)이라 붙였다고 한다. 2007년 6월 5일에 일반에 개방되었다.

대금굴은 4개의 폭포와 종유석, 석순, 석주,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다양

한 자원이 태고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연장 60m와 30m, 수심 8~9m의 동굴호수가 발달되어 있으며, 출처와 연장을 알 수 없는 다량의 동굴하천이 빠른 유속으로 용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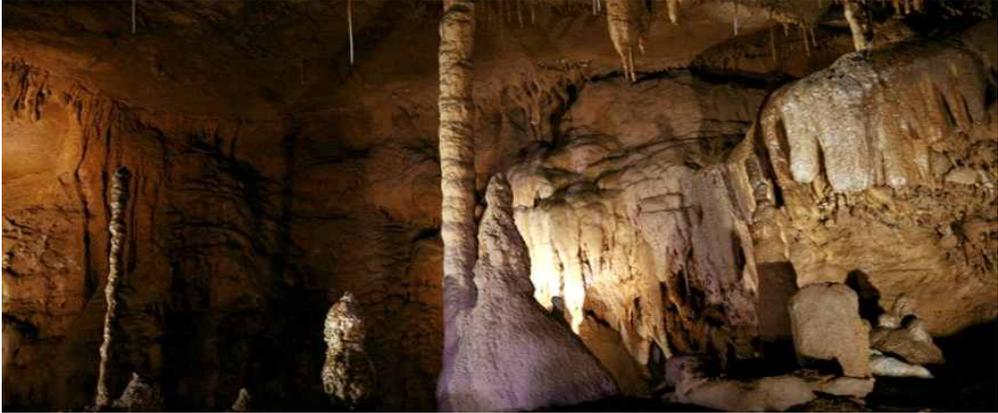
특히 동굴 내부의 유속이 빨라 2차생성물의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동굴 경관이 빈약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소량이지만 휴식소·막대형 종유석·베이컨 시트·동굴방패·곡석 등 다양한 종류의 동굴생성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단조로운 수굴(水窟)을 형성하였다.

대금굴과 같은 석회동굴은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그 물이 낮은 위치의 출구를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로서 형성된 지형이다. 석회동굴은 최초에 지하수위 밑에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절리 등 균열이 많은 부분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는 틈이 넓어지면 서로 결합하여 큰 구멍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멍을 채우는 지하수는 천천히 흐르면서 초기 단계의 동굴을 만들어낸다.

그러다 주변의 골짜기가 하천의 하방침식을 받아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초기 단계의 동굴 윗부분에 빈 공간이 드러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 지하수가 동굴하천을 이루면서 지상의 하천처럼 흐르게 된다. 석회동굴은 물이 흐르는 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인접한 골짜기가 깊게 파이고 동굴하천이 그 밑에 형성된 다른 통로로 유로를 옮기면 기존 통로는 건조해지면서 성장을 멈추게 된다.

2007년부터 개방된 공개구간 끝의 대형호수와 이어진 주굴의 연장선에 있는 석실 등 미개방 지역은 접근이 어렵고, 동굴 생성물이 계속해 형성되고 있어 미래를 위하여 남겨진 공간으로 보호하고 있다.¹⁸⁾

18) 최기주·김런, 『삼척의 지형과 지질』, 삼척시립박물관, 2021.
디지털삼척문화대전(<http://samcheok.grandculture.net/samcheok>)



대금굴 내부 전경



대금굴 내 동굴 호수

2. 추암 촛대바위와 해암정

1) 추암 촛대바위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 화면으로 유명한 각종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는 촛대바위, 이 바위에 걸리는 아침 해돋이가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돋이 명소이다.

동해시와 삼척시 경계 해안에 위치한 추암은 한국 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가볼만한곳 10선'에 선정된 해돋이 명소이며 이 곳 해안지역은 해식애와 각가지 기이한 형상의 시스택이 발달한 곳이다.

거북바위, 부부바위, 형제바위, 두꺼비바위, 코끼리바위 등 기암괴석이 온갖 형상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촛대처럼 기이하고 절묘하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바위가 있으니 이를 '촛대바위'라고 부르며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시대 때 강원도 체찰사로 온 한명회가 이곳의 경관에 감탄한 나머지 미인의 걸음걸이를 비유하여 '능파대'라 이름부르기도 했던 해안 자연절경의 보고이다.

이곳을 '능파대'라 부르게 된 이유는 강원도 체찰사로 부임한 한명회가 이 곳을 둘러보고 그 경치에 반하여 다음과 같이 경관을 묘사하면서, 능파대라 하였다.

삼척군에서 동쪽으로 십리쯤 가면 경치좋은 곳이 있는데, 불끈 솟아오르고 구멍이 나고 절벽을 이룬 것이 바다 가운데 있다. 그 위는 넓어서 수십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고 기암괴석이 좌우로 늘어서서 흡사 사람이 눕기도 하고 비스듬히 서 있기도 하는 것 같이 또는 호랑이가 꿰어앉은 것 같기도 하고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이 천태만상을 이루었으며 소나무가 우거져서 그 사이로 비치니 참으로 조물주의 작품이라 하겠다. 강릉 경포대와

통천 총석정과 는 그 경치가 비슷하며 기이한 점은 이곳이 더 좋다 하겠다. 속되게 '추암'이라 이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고 이제라도 자연에 대하여 부끄럼이 없게 '능파대'라고 하고 그 이름을 고치노라

이에 후일 이곳을 능파대라고 하였으며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는 그의 금강사군첩에 능파대를 그려 당대에도 최고 절경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촛대바위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추암 바닷가에 살던 한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소실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 본처와 소실 간에 투기가 빚어져 왔으며, 이 두 여자의 강샘에 급기야는 하늘도 노하여 벼락으로 징벌을 가해 남자만 남겨 놓았는데 오늘날 홀로 남은 촛대바위가 이 남자의 형상이라 하며 과거에는 한 남자와 본처, 소실을 상징하는 3개의 바위로 있다가 그중 2개의 바위가 100여 년전 벼락으로 부러져 없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추암의 경관은 사진에서도 보듯이 기암괴석은 물론이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여명의 잿빛과 뜨는 태양의 선홍빛이다. 두 번째는 녹색의 에메랄드빛과 옥빛 바다이다. 세 번째는 일출 직후 펼쳐지는 금빛의 바닷물결이다. 네 번째는 검고 회색빛의 기암에 부딪혀 부서지는 흰색의 물보라이다. 이렇듯 추암의 바다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일시적 경관들이 있어 방문 때마다 깊은 감동을 주는 곳이다.

그리고, 추암에는 갖가지 해안 식생이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멋진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을에 해국이 필 때이다. 기암들에 애처롭게 매달려 있는 해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질긴 생명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생명력 속에는 또 다른 구도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세밀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단원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중에서 능파대 그림



추암 해변과 촛대바위 전경

2) 심동로와 해암정(海岩亭)

강원도 지방문화재 63호

해암정은 추암(湫岩) 해변, 일명 능파대(凌波臺)라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능파대’라는 명칭은 조선 세조 때 한명회(子濬 韓明澮, 1415~1487)가 추암해변의 아름다움에 반해 ‘미인의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뒷문을 열면 능파대가 병풍처럼 서 있고, 동해의 푸른 바다는 정원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 정자는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삼척 심씨 시조인 심동로(信齊 沈東老, 1310~?)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중종 25년(1530)에 심언광(漁村 沈彦光, 1487년~1540)이 중건하고, 정조 18년(1794)에 중수하였다. 현재는 단층 팔작지붕 초익공 양식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면에 문을 달아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별장식 건물로 복원하였으며, 1979년 5월 30일에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었다.

정면의 각 칸의 평방에 걸려있는 현판 중 가운데 ‘해암정(海巖亭)’은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글씨이며, 그는 덕원(德原)으로 유배되어 가는 도중 이곳에 들러 ‘풀은 구름과 어우르고 좁은 길은 비스듬히 돌아든다’라는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실내에는 많은 문인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심동로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해암정(海巖亭)

| | |
|------------------|-----------------------------|
|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 | 우거진 방초와 자욱한 구름 속에 길이 났는데 |
| 출산계수범도화(出山溪水泛桃花) | 산 속에서 나오는 시냇물에 복숭아꽃 떠있네 |

| | |
|------------------|-------------------------|
| 행행우과암전로(行行偶過岩前路) | 걸다가 우연히 바위 앞길로 지나게 되었는데 |
| 계견상문사오가(鷄犬相聞四五家) | 개와 닭소리 나는 곳에 집이 너덧 채 있네 |
| 조여구맹로해천(早輿鳩盟老海天) | 일찍이 갈매기와 더불어 바닷가에서 늙으니 |
| 일생행지갱표연(一生行止更飄然) | 일생의 행적이 바람결 같구나 |
| 공명부귀각한사(功名富貴渾閑事) | 부귀공명은 다 헛된 일이니 |
| 기직증동탈각선(棄置會同脫殼蟬) | 매미껍질을 벗듯이 일찍 관직을 버렸오 |



동해시 추암에 있는 해암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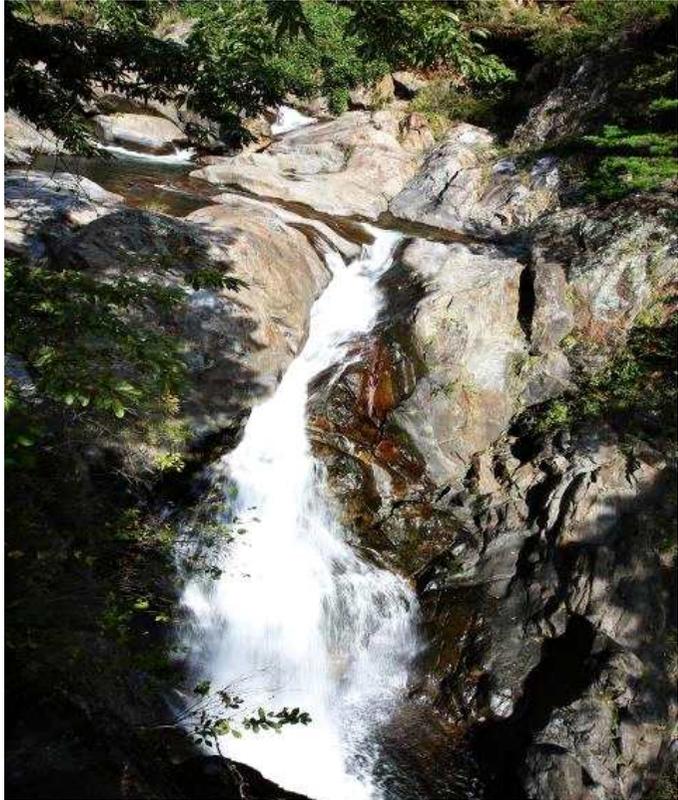
3. 이천폭포와 기우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을 가로지르는 호산천 계곡 상류 박가터 마을과 우산 마을 사이에 위치한 이천폭포가 있다. 호산천의 최상류는 사금산 [1082m] 도심애골에서 발원한 물줄기인데, 이천폭포의 물은 이곳에서 내려온 물이다. 낙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폭호(瀑壺)의 발달이 뚜렷한 폭포이다.

폭포가 흐르는 하천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이천화강편마암이다. 이천폭포의 낙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폭포수의 와류 현상과 마식작용으로 폭호(瀑壺)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수심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¹⁹⁾

그리고,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가뭄이 들어 관청 또는 민간에서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비가 오지 않으면, 주로 용추·용연·용소·용담 등 ‘용(龍)’ 자(字)가 접두어로 들어간 지명이 있는 곳이나 천제(天祭) 지내는 장소에서 음력 5월~6월경 비오기를 기원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낸다.

원덕지역에서도 가뭄이 들면 이천폭포에서 개를 희생으로 하여 기우제를 지냈다.



이천폭포 전경

19) 김창환, 「이천폭포」, 『디지털삼척문화대전』, 삼척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1. 史料

『三國史記』 / 『三國遺事』 / 『帝王韻紀』 /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 『朝鮮王朝實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 『高宗實錄』

허목, 『陟州誌』, 1662.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 營建廳儀軌(下)』, 1899. (삼척시립박물관 소장 ; 유
물번호 450번)

沈宜昇, 『三陟郡誌』, 1916.

박한영, 「天恩寺紀實碑」, 1921.

『江原道誌』, 1940.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2. 단행본

강원문화재연구소, 『三陟 寥田山城 : 基本設計(地表調査) 報告書』, 강원문
화재연구소 · 삼척시, 2001.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天恩寺 이승휴 유허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
화재연구소 · 삼척시, 2006.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호산리 LNG산업단지내 유적 발굴 조사 약보고
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관동대학교박물관, 『三陟 史直洞古墳群 地表調査 報告書』, 학술총서 13책,
1994.

關東大學校 博物館,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삼척시 · 관동대 박물관, 1995.

관동대학교 박물관, 『三陟 城北洞 葛夜山 古墳群』, 학술총서 13책, 2003.

국립민속박물관(편),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 1994.

국립민속박물관(편), 『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 1998.

국립민속박물관(편), 『불의 민속』, 1996.

- 문화재청(편), 『삼척 대이리 굴피집』, 2005.
- 문화재청(편), 『삼척 대이리 너와집』, 2005.
- 문화재청(편),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2005.
- 김도현 외, 『삼척지방의 金石文과 記文』,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삼척시, 2006.
-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 김도현 외, 『민족의 역사가 이승휴, 제왕운기를 쓰다』,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2010.
- 김도현·장동호, 『3대 강 발원과 태백』, 강원도민일보·태백시, 2010.
- 김도현, 『태백의 3대 강 발원지와 옛길』,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11.
- 김도현 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 김도현 외, 『강원도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문화재청·충북문화재단구원, 2013.
- 김도현, 『삼척 공양왕릉』, 삼척시립박물관, 2014.
- 김도현 외, 『동해학』, 동해문화원, 2018.
- 김도현·이창식, 『삼척기줄다리기』, 삼척문화원, 2018.
- 김도현, 『준경묘영경묘청명제』, 삼척시·준경묘영경묘봉향회, 2019.
- 김도현 외, 『한국고대사 史料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 김도현, 『(증보)우리가 알아야 할 삼척 문화유산(초·중·고등학용)』,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상원도 삼척교육지원청, 2020.
- 김도현, 「〈看藏寺記〉·〈看藏庵重創記〉를 통해 본 이승휴와 천은사」, 『2020년 동안 이승휴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사)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20.
- 김도현·김세건·김해규·안승택·오석민, 『전통오일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20.
- 김도현, 『한국의 마을天祭』, 모시는사람들, 2021.
- 김도현, 『《제왕운기》의 산실, 천은사』, 세창출판사, 2021.
- 김도현·이창식·장정룡·최명환, 『김진원의 삶과 삼척문화 연구』, 삼척시립박물관, 2021.

- 김도현, 『삼척 준경묘·영경묘』, 삼척시립박물관, 2022.
- 두창구, 『삼척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3.
- 배재홍(譯),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2003.
- 배재홍,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우물이 있는 집, 2007.
- 삼척시지편찬위원회, 『삼척시지』, 삼척시, 1997.
- 심영진, 『2008 오십천 사진전』, 2008.
- 임상규, 『전통 민가의 이해』, 성은, 2000.
- 임상규, 『삼척의 민가』, 삼척시립박물관, 2011.
-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 문화재청 ·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 차장섭·배재홍·김태수, 『죽서루』, 삼척시립박물관, 2004.
- 최기주·김련, 『삼척의 지형과 지질』, 삼척시립박물관, 2021.
- 한국고전연구회(편), 『동안거사집과 제왕운기의 종합적 검토』, 진단학회, 2004.
- (사)한국이사부학회(편), 『삼척, 아사부와 동해 -학술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사)한국이사부학회·(재)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3. 논문

- 권태효,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 『구비문학 연구』 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도현, 「歷代地理誌의 三陟郡 敘述에 대한 一考察」, 『江原文化史研究』2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 김도현, 「영은사」, 『한국 주요 사찰의 편액과 주련』, 불교문예진흥원, 2000.
- 김도현, 「삼척 기줄다리기」, 『한국 세시풍속 사전(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김도현, 「삼척 邑城考」, 『悉直 文化』제 15집, 삼척 문화원, 2004.

- 김도현, 「삼척지역의 무형문화 현황과 과제」, 『강원민속학』17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 김도현, 「삼척시 하장면 中峯里寺址 小考」, 『悉直 文化』제 15집, 삼척 문화원, 2004.
- 김도현, 「삼척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과 性」, 『강원민속학』19집, 강원민속학회, 2005.
- 김도현, 「三陟지역의 烽燧 연구」, 『博物館誌』第 11輯, 江原大學校 博物館, 2005.
- 김도현, 「강원도지역 邑治 城隍祠 考察」, 『朝鮮史研究』제 14집, 조선사연구회, 2005.
- 김도현,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2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김도현, 「삼척 邑治 城隍祠의 지속과 변동」, 『박물관지』제12호,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6.
- 김도현, 「동해, 삼척, 태백지역의 비지정 문화재」, 『강원도 비지정문화재 조사』, 강원도, 2007.
- 김도현, 「삼척시 원덕읍 갈남 2리 신남마을 서낭제」, 『한국의 마을신앙(上)』,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도현, 「삼척지역 불교문화의 형성과 발전」,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2007.
- 김도현, 「준경묘·영경묘 수축의 의미와 풍수지리」, 『조선왕조 창업 터의 재조명과 지역자원화 방안』, 강원대 삼척캠퍼스·삼척시, 2006.
-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천은사의 역사와 목조아미타불 복장」, 『박물관지』13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 김도현, 「삼척시 근덕면 현대사·근덕면 동제」, 『근덕면지』,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삼척시 근덕면, 2010.
- 김도현, 「울진 망양정」, 『울진 길의 문화 시나리오』, 포스터 미디어, 2010.
- 김도현, 「삼척지역의 효자·열녀·효부 연구」, 『제 2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 논문집』,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2011.
- 김도현, 「준경묘·영경묘 수호활동과 제향」, 『박물관지』제 20호, 2013.
- 김도현, 「강원도의 옛길과 문화」, 『강원의 민속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14.

- 김도현, 「삼척도호부 관아건축의 배치 특징」,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의 활용 및 보존방안’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년 4월.
- 김도현, 「悉直國의 역사성 연구」, 『강원지역의 옛나라』, 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4.
- 김도현, 「삼척지역 공양왕 관련 지명 고찰」, 『강원문화연구』33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4.
-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제 32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 김도현, 「울진과 울릉도 공동체신앙의 관계성 검토」,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 영남대 독도연구소·울진군, 2015.
- 김도현, 「동안 이승휴의 불교 인식과 看藏寺」, 『이사부와 동해』제10집, 한국이사부학회, 2015.
-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 음식문화 연구」, 『박물관지』22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6년 2월.
- 김도현, 「신라의 국가 제사와 삼척」, 『이사부와 동해』12호, 한국이사부학회, 2016. 8.
- 김도현, 「삼척 기줄 제작과 전승 현황, 그리고 과제」, 『삼척기줄다리기 원형 고증 학술 세미나 자료집』, 삼척시·삼척문화원, 2016.
- 김도현, 「동안 이승휴 선생의 생애와 관련 유적」, 『박물관지』23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7년 2월.(「이승휴의 생애와 관련 유적」, 『이승휴와 제왕운기』, 동안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 2004.)
- 김도현,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 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 김도현, 「『帝王韻紀』에 수록된 ‘天王’ 기사 분석 - 〈檀雄神話〉에 보이는 天王的 성격을 중심으로 -」, 『2018년 동안 이승휴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2018.
- 김도현, 「민속으로 본 이사부와 삼척」, 『삼척, 아사부와 동해 -학술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사)한국이사부학회·(재)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 의생활 연구」, 『박물관지』24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8년 1월.
- 김도현, 「환웅신화에 보이는 天王的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최광식 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 김도현, 「역사·문화로 본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 고찰」, 『강원사학』 31집, 강원사학회, 2018.
- 김도현,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사)숲과 문화연구회·산림청, 2018.
- 김도현, 「강원도 삼척·동해·태백지역 독립유공자와 이의 교육적 활용」, 『강원지역독립운동사』, 강원도교육청, 2018.
- 김도현, 「삼척 탄광지역의 주거 문화 연구」,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1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19.
- 김도현, 「코클, 화티」,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주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19.
- 김도현, 「마을 천제의 구조와 성격」, 『한국민속학』 69호, 한국민속학회, 2019.
- 김도현, 「삼척지역 내수면 어업 민속 고찰 - 연어·은어잡이, 민물김 채취를 중심으로 -」, 『박물관지』 27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21.
- 김도현, 「삼척 향교 省牲石과 望燎石函[望瘞石函]이 지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삼척향교 내 석조물 및 봉황산 미륵불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강원대학교, 2021.
- 김선풍, 「삼척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민속학』8집, 민속학회, 1975.
- 김승희, 「강원도의 불교회화」, 『월정사 정보박물관 학술총서』Ⅱ, 월정사 정보박물관, 2001.
- 김일기, 「三陟의 기줄다리기」, 『삼척공전논문집』14집, 삼척공업전문대, 1981.
- 金駟起, 「三陟 葛夜山 出土 新羅 土器」, 『江原史學』4집, 江原大 史學會, 1988.
- 김일기, 「삼척지방의 원시신앙」, 『실직문화논총』 제 1집, 1989.
- 김일기, 「태조 이성계는 강원인의 핏줄」, 『실직문화논총』 제 1집, 1989.
- 김종욱, 「공양왕릉 소재지 고찰」, 『실직문화』1집, 삼척문화원, 1990.
- 김창균, 「영은사 괘불탱화에 대한 연구」, 『영은사 괘불 탱화 수리보고서』, 강원도·평창군청·오대산 월정사, 2003.

- 김호동, 「삼국시대 신라의 동해안 제해권 확보의 의미」, 『대구사학』65집, 대구사학회, 2001.
- 박옥생, 「新興寺 阿彌陀後佛幀」, 『오대법보』5·6월호, 오대산 월정사, 2002.
- 박옥생, 「新興寺 阿彌陀後佛幀」, 『오대법보』11·12월호, 오대산 월정사, 2002.
- 배일환, 「본적사지 답사기」, 『태백문화』제 20집, 태백 문화원, 1999.
- 배재홍, 「동해·삼척의 역사와 문화」, 『강원 영동 남부 지역사회의식』, 삼척대 지역사회연구회·삼척시·동해시·삼척MBC, 2005.
- 배재홍,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조 목조 이안사와 삼척」, 『조선사연구』 제 12집, 2003.
- 배재홍, 「남구만과 약천사」, 『동해학』, 동해문화원, 2018.
- 원영환, 「목조의 활동과 흥서대고」, 『강원사학』 제9집, 1993.
- 유재춘, 「驛에 대한 築城과 기능에 대하여-三陟 沃原驛城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제 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 윤명철, 「金異斯夫, 于山國 정복의 역사적 가치와 21세기적 의미」, 『이사부 그ダイ나믹한 동해의 기억, 그리고 내일』,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문화축전 발표 요지, 2008.
- 이근우, 「고대 동해안의 해상 교류와 이사부」, 『이사부 그 다이내믹한 동해의 기억, 그리고 내일』,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문화축전 발표 요지, 2008.
- 이은희, 「삼척 영은사 불화에 대한 고찰」, 『문화재』27집, 문화재관리국, 1994.
- 이익주, 「이승휴의 사상」,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2007.
- 이창식, 「술비통과 줄다리기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3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84.
- 이창식·김도현, 「김이사부의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이사부 그 다이내믹한 동해의 기억, 그리고 내일』, 2008 삼척 동해왕 이사부문화축전 발표 요지, 2008.
- 이청희, 「6세기 초에 鬱陵島를 정벌한 실직주 군주 이사부 장군」, 『실직문화』18집, 2007.
- 정운혁, 「삼척 심씨 시조 심동노」, 『실직문화』11집, 2000.
- 최영희, 「공양왕릉」, 『실직문화논총』 제 1집, 1989.

최장순, 「삼척산간지역 두령집의 주거공간 구성과 확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7, 대한건축학회, 2004.

한명희, 「이승휴의 시문학 세계」, 『삼척의 불교미술』, 삼척시립박물관, 2007.

洪永鎬·金道賢, 「三陟市 未老面 天恩寺의 佛像 考察」, 『강원지역문화연구』제 2호, 강원지역문화연구회, 2003.

디지털삼척문화대전(<http://samcheok.grandculture.net/samcheok>)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uljin>)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필자 현지 조사 : 2001~2022년

□ 저자 소개

· 저자 : 김 도 현(金 道 賢)

-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현재)
-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자문교수·강원도 문화재위원 (현재)
- 강원대학교 외래교수·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역임)
- 민속 신앙, 불교 의례, 전통 지식, 시장 민속, 그리고 이승휴와 『제왕운기』, 삼척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 주요 저서

: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삼척 공양왕릉』,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 『삼척기줄다리기』, 『《제왕운기》의 산실, 천은사』, 『삼척 준경묘·영경묘』, 『한국의 마을 천제(天祭)』 外 다수

· 주요 논문

: 「울진 12령 셋재[鳥嶺] 城隍祠와 褌負商團」, 「신앙과 산림 문화: 산(山)에서 모시는 신령(神靈)과 의례(儀禮)」, 「환웅신화에 보이는 天王의 성격」, 「마을 천제의 구조와 성격」, 「강원도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山神)의 성격」, 「동해안지역 마을신앙의 구조와 성격」, 「太白山에서의 天祭, 그리고 산신·천왕·용왕 모신 전통에 대한 歷史民俗的 고찰」, 「영산재와 수록재의 설단 비교 연구」, 「삼척 상두산 산맥에서 모시는 신령의 성격과 의미」 外 다수